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15-01

2022년 주요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용역 결과보고서

2022. 11.

CONTENTS

제 1장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3
2. 과업 대상	3
1) 모니터링 개요	3
2) 대회별 모니터링 현황	4
3) 심층인터뷰	8
3. 주요 조사내용	12
1) 모니터링	12
2) 심층인터뷰	14
4. 모니터링 방법	17
1) 모니터요원 교육 자료	17
2) 모니터 요원 교육 일정	18
3) 모니터링 실시	18

종합 결과

I 비장애인 체육대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21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21
2) 탈의실	22
3) 대기실	24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30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31
6) 연습 공간	33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36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37
9) 과도한 일정	38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39
1) 의료조치	39
2) 언어 폭력	40
3) 신체 폭력	42
4) 성희롱·성폭력	42
3. 기타 확인사항	44
1) 숙박 장소 적절성	44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45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45
4) 비자발적 동원	46

II 장애인 체육대회

1.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이동·정보 접근 등에 관련한 사항	47
1) 보행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47
2)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50
3) 경기장 내부 진입에 대한 점검	52
4)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	53
5)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	53
6) 경기장 내부 화장실	55
7) 장애인 정보 접근권	56
2.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57
1) 탈의실	57
2) 재난상황 대비책	59
3) 대기실	60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63
5) 신고안내물 비치 및 상담실 운영	64
6)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64
7)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65
8) 과도한 일정	66
3.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66
1) 의료조치	66
2) 언어 폭력	66
3) 신체 폭력	66
4) 성희롱·성폭력	67

대회별 모니터링 결과

I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71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71
2) 탈의실	72
3) 대기실	73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74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74
6) 연습 공간	75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76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77
9) 과도한 일정	77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78
1) 의료조치	78
2) 언어 폭력	78
3) 신체 폭력	78
4) 성희롱·성폭력	79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79
3. 기타 확인사항	80
1) 숙박 장소	80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81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81
4) 비자발적 동원	81

II.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82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82
2) 탈의실	83
3) 대기실	84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85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85
6) 연습 공간	86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87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87
9) 과도한 일정	88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89
1) 의료조치	89
2) 언어 폭력	89
3) 신체 폭력	89
4) 성희롱·성폭력	90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90
3. 기타 확인사항	90
1) 숙박 장소	90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91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91
4) 비자발적 동원	92

Ⅲ. 제19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93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93
2) 탈의실	94
3) 대기실	96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97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98
6) 연습 공간	99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101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02
9) 과도한 일정	102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03
1) 의료조치	103
2) 언어 폭력	103
3) 신체 폭력	103
4) 성희롱·성폭력	104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104
3. 기타 확인사항	105
1) 숙박 장소	105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106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106
4) 비자발적 동원	106

IV.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07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107
2) 탈의실	108
3) 대기실	109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10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110
6) 연습 공간	111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112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13
9) 과도한 일정	113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14
1) 의료조치	114
2) 언어 폭력	115
3) 신체 폭력	116
4) 성희롱·성폭력	116
3. 기타 확인사항	116
1) 숙박 장소	116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117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117
4) 비자발적 동원	117

V.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12세부)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18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118
2) 탈의실	119
3) 대기실	120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21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121
6) 연습 공간	122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123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24
9) 과도한 일정	124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25
1) 의료조치	125
2) 언어 폭력	125
3) 신체 폭력	125
4) 성희롱·성폭력	126
3. 기타 확인사항	126
1) 숙박 장소	126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127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127
4) 비자발적 동원	127

VI.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28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128
2) 탈의실	130
3) 대기실	132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35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138
6) 연습 공간	141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144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47
9) 과도한 일정	150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50
1) 의료조치	150
2) 언어 폭력	152
3) 신체 폭력	153
4) 성희롱·성폭력	153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154
3. 기타 확인사항	155
1) 숙박 장소	155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156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156
4) 비자발적 동원	156

Ⅶ.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1.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이동·정보 접근 등에 관련한 사항	157
1) 보행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157
2)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159
3) 경기장 내부 진입에 대한 점검	161
4)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	162
5)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	164
6) 경기장 내부 화장실	166
7) 장애인 정보 접근권	169
2.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71
1) 탈의실	171
2) 재난상황 대비책	173
3) 대기실	173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76
5) 신고안내물 비치 및 상담실 운영	177
6)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178
7)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80
8) 과도한 일정	182
3.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83
1) 의료조치	183
2) 언어 폭력	184
3) 신체 폭력	184
4) 성희롱·성폭력	184

심층인터뷰 결과

I.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구분	187
2. 장애여부	187
3. 종목	188
4. 인권침해 경험	189

II. 언어·신체·성 폭력

1. 대회 안내 책자 및 리플릿 배포	190
2. 경기대회 인권침해	191
1) 인권침해 경험	191
2) 인권침해 대처 방안	191
3) 타인 및 기관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192
4) 폭력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193
5) 인권침해 시 정부의 노력	195

III. 학습권 침해 등

1. 대회 출전·시합 준비로 인한 수업 미참여	198
1) 수업 미참여 여부 및 시간	198
2) 학교수업 배제 시 수업 보충 방법	198
2.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199
1) 찬·반 의견	199
2) 개선 방안	200
3.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 찬·반 의견	202
4. 학교체육진흥법	203
1) 학교체육진흥법 규정의 학습권 회복 도움 정도	203
2) 학교체육진흥법 학습권 회복 도움 되는 이유	203
3) 학교체육진흥법 규정의 학습권 회복 도움 정도	204
5. 날씨 영향에 따른 훈련 방법	205
6. 훈련 방법	206
1) 주중 훈련 방법	206
2) 주말 훈련 방법	206
3) 훈련 시간	206

IV. 시설 및 환경

1. 경기대회 참가 시 숙소 환경	207
2. 숙소 이용 시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발생 사례 및 해결 방안	209
3. 학생선수 이용 숙박시설 및 보호자 동행 여부	210
1) 주 숙박장소	210
2) 동성 보호자 동행	211
4. 화장실·대기실·탈의실·연습실 등 환경 및 개선사항	211
5. 선수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경기일정	214
6. 경기대회 개최 시 휴식 시간 보장	215
7. 체육대회 및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216

IV. 장애인 선수 대상

1. 경기장 내 이동, 시설접근 불편사항	219
2. 장애인 전용 화장실·엘리베이터 시설 미설치로 인한 불편사항 ..	220
3.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220
4.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신고 상담 안내	221
1) 장애 유형 및 특성 고려한 안내	221
5. 장애인 선수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222

V. 기타

1. 선수 인권향상 및 인권 친화적 경기대회 개최 위한 정부 추진 사항	224
2. 인권교육 내용 및 교육시기 관련 개선사항	226
3. 인권교육 관련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효과	228
4. 인권교육 강사 유형	229
5. 경기대회 개최 관련 개선 사항	229
6. 선수 인권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231

제 5장

결론 및 제언

1. 종합 결론 235
2. 체육대회 주최 등 기관 대상 정책 제언 236
3.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237

* 붙임

붙임1. 모니터요원 명단

붙임2. 비장애인경기대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붙임3. 장애인경기대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붙임4. 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제 1장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2. 과업 대상
3. 주요 조사내용
4. 모니터링 방법

1. 과업 목적

- 2019년부터 실시한 전국단위의 주요 경기대회 모니터링 결과, 과열경쟁으로 인한 경기장 내 폭언, 적절하지 않은 숙소와 탈의실, 의료조치 미흡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이에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선수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실태를 파악·점검하고, 주요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스포츠인권 개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2. 과업 대상

1) 모니터링 개요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및 종별 선수권 대회 등 총 7개 대회, 20개 종목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함

[표 1] 모니터링 개요

연번	대회명	종목	대회일정	개최지역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2022.6.10~6.26	경북 경주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2022.6.22~6.25	강원 정선
3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2022.7.16~7.24	강원 태백
4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2022.7.22.~8.1	전남 영광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2022.8.23.~8.28	강원 양구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9개 종목 - 테니스, 야구, 농구, 소프트볼, 체조, 롤러, 자전거, 태권도, 축구	2022.10.7.~10.13	울산 등
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6개 종목 - 휠체어농구, 유도, 배구, 태권도, 사이클, 축구	2022.10.19.~10.24	울산 등

2) 대회별 모니터링 현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는 10명의 모니터 요원이 5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2]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6월 10일	경주베이스볼파크	야구
2	2022년 6월 11일		
3	2022년 6월 12일	포항생활체육야구장	
4	2022년 6월 22일	경주베이스볼파크	
5	2022년 6월 23일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6명의 모니터 요원이 3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3]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6월 22일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육상
2	2022년 6월 23일		
3	2022년 6월 24일		

(3) 제19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

○ 제19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는 8명의 모니터 요원이 4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4]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3) 제19회 태백산기전국종합대회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7월 16일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핸드볼
2	2022년 7월 19일	고원체육관, 세연중학교	
3	2022년 7월 21일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4	2022년 7월 23일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4)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 제77회 전국남녀종별선수권대회는 10명의 모니터 요원이 5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5]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4)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7월 22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영광스포티움보조체육관	농구
2	2022년 7월 24일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3	2022년 7월 26일	영광홍농초등학교체육관	
4	2022년 7월 28일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영광스포티움보조체육관	
5	2022년 7월 31일	영광홍농초등학교체육관,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는 6명의 모니터 요원이 3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6]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8월 23일	양구테니스파크	테니스
2	2022년 8월 25일	양구테니스파크, 양구중고등학교테니스코트	
3	2022년 8월 27일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는 36명의 모니터 요원이 7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7]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10월 8일	문수테니스장	테니스
2	2022년 10월 10일		
3	2022년 10월 12일	울산문수야구장, 중구야구장	야구
4	2022년 10월 13일		
5	2022년 10월 9일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농구
6	2022년 10월 11일	울주군민체육관	
7	2022년 10월 7일	문수축구경기장	축구
8	2022년 10월 9일	온양체육공원, 농소운동장	

<계속>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9	2022년 10월 12일	동구야구장	소프트볼
10	2022년 10월 13일		
11	2022년 10월 7일	동천체육관	체조
12	2022년 10월 8일		
13	2022년 10월 8일	문수롤러경기장	롤러
14	2022년 10월 9일		
15	2022년 10월 8일	양양벨로드롬	자전거
16	2022년 10월 10일		
17	2022년 10월 9일	문수체육관	태권도
18	2022년 10월 11일		

(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4명의 모니터 요원이 6일간 모니터링 진행함

[표 8] 대회별 모니터링 대상 - (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연번	모니터링 일정	대회 장소	종목
1	2022년 10월 20일	울산대 체육관	휠체어농구
2	2022년 10월 24일		
3	2022년 10월 21일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유도
4	2022년 10월 23일		
5	2022년 10월 22일	오토밸리복지센터	배구
6	2022년 10월 23일		
7	2022년 10월 21일	울주군민체육관	태권도
8	2022년 10월 22일		
9	2022년 10월 19일	양양벨로드롬	사이클
10	2022년 10월 20일		
11	2022년 10월 21일	서부시민운동장, 미포구장, 문수풋살장	축구

3) 심층인터뷰

(1) 심층인터뷰 개요

- 훈련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 훈련이나 합숙에서의 운동부 내부 규율, 사회적 관계, 과도한 훈련과 경기 등에 대해 선수와 지도자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하며, 미성년 선수의 경우 학부모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함
- 7개 체육대회 20개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 각 2인 이상 심층인터뷰 실시 계획이었으나,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 인터뷰 거절하는 사례 많았으며, 지도자와 동료 선수가 함께 있는 현장 특성상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 있었음. 이에 심층인터뷰 희망자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인터뷰 희망자는 종목과 장애여부에 관계없이 인터뷰 진행함

[표 9] 심층인터뷰 개요

구분	세부 내용
1. 인터뷰 대상	· 2022년 주요 7개 경기대회 참석 선수, 지도자, 학부모
2. 인터뷰 인원	· 80명 (지도자 14명, 선수 55명, 학부모 11명)
3. 인터뷰 방법	· 1:1 심층인터뷰 (전화, 이메일 설문 병행)
4. 인터뷰 기간	· 2022년 7월 26일(화) ~ 2022년 11월 2일(수)

(2) 심층인터뷰 응답자 현황

-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80명(지도자 14명, 선수 55명, 학부모 11명)이며, 세부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10] 심층인터뷰 응답자 현황

연번	구분	나이	장애여부	종목
1	지도자	63세	비장애	농구
2		51세	비장애	배구

<계속>

연번	구분	나이	장애여부	종목	
3	지도자	48세	비장애	싸이클	
4		40세	비장애	유도	
5		49세	비장애	육상	
6		54세	비장애	육상	
7		45세	비장애	육상	
8		36세	비장애	축구	
9		43세	비장애	태권도	
10		44세	비장애	태권도	
11		34세	비장애	핸드볼	
12		27세	비장애	핸드볼	
13		45세	장애	휠체어농구	
14		51세	장애	휠체어농구	
15		선수	18세	비장애	농구
16			18세	비장애	농구
17	19세		비장애	농구	
18	16세		비장애	농구	
19	20세		비장애	농구	
20	16세		비장애	농구	
21	20세		비장애	농구	
22	19세		비장애	농구	
23	35세		장애	농구	
24	29세		장애	농구	
25	35세		장애	농구	
26	51세		장애	농구	
27	36세		장애	농구	
28	40세		장애	농구	
29	13세		비장애	롤러	
30	15세		비장애	롤러	

<계속>

연번	구분	나이	장애여부	종목
31	선수	13세	비장애	롤러
32		48세	장애	배구
33		37세	장애	배구
34		41세	장애	배구
35		44세	장애	배구
36		32세	장애	배구
37		55세	장애	배구
38		49세	장애	배구
39		17세	비장애	소프트볼
40		19세	비장애	사이클
41		54세	장애	사이클
42		32세	장애	사이클
43		39세	비장애	사이클
44		19세	비장애	육상
45		23세	비장애	육상
46		23세	비장애	육상
47		23세	비장애	육상
48		21세	비장애	육상
49		17세	비장애	육상
50		56세	장애	육상
51		58세	장애	육상
52		46세	장애	육상
53		21세	비장애	체조
54		30세	장애	축구
55		26세	장애	축구

<계속>

연번	구분	나이	장애여부	종목
56	선수	20세	장애	축구
57		25세	비장애	축구
58		23세	비장애	축구
59		19세	비장애	태권도
60		24세	장애	태권도
61		23세	비장애	핸드볼
62		15세	비장애	핸드볼
63		15세	비장애	핸드볼
64		32세	장애	휠체어농구
65		48세	장애	휠체어농구
66		21세	장애	휠체어농구
67		36세	장애	휠체어농구
68		31세	장애	휠체어농구
69		40세	장애	휠체어농구
70		보호자	46세	비장애
71	56세		비장애	농구
72	48세		비장애	농구
73	40세		비장애	롤러
74	43세		비장애	롤러
75	47세		장애	육상
76	51세		비장애	체조
77	47세		비장애	테니스
78	40세		비장애	테니스
79	44세		비장애	테니스
80	42세		비장애	테니스

3. 주요 조사내용

1) 모니터링

(1) 비장애 체육경기대회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등 6개 비장애 체육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1] 비장애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조사내용

구분	항목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이동하는지 여부
	2. 경기장 내 탈의실 여부 및 안전한 공간 인지 여부
	3. 경기장 내 대기실 여부 및 안전한 공간 인지 여부
	4.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 인권침해 및 안전 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5.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 대응체계 여부
	6.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 공간 여부
	7. 경기장 내외 의료진 및 구급차 상시 대기 여부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시영 여부
	9.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에게 무리 가는 등 과도한지 여부
	10. 기타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1.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여부
	12. 언어 폭력
	13. 관중 등이 팀, 지역을 비하, 혐오, 차별하는 발언 하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하는지 여부
	14.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
	15.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하는지 여부
	16. 선수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
	17.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촬영 행위를 하는지 주목
	18. 이외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특이사항

<계속>

구분	항목
기타 확인사항	19.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20. 숙박장소에 남녀 숙박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21.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가 동행하는지 여부
	22.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23. 기타사항

(2) 장애 체육경기대회

○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음

[표 12] 장애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조사내용

구분	항목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이동, 정보 접근 등에 관련된 사항	1. 보행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
	2.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
	3. 경기장 내부 진입에 대한 점검
	4.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에 대한 점검
	5. 경기장 내부 관람석에 대한 점검
	6. 경기장 내부 화장실에 대한 점검
	7.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점검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8. 경기장 내 탈의실 여부 및 안전한 공간 인지 여부
	9. 경기장 내 대기실 여부 및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10.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 인권침해 및 안전 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1. (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 대응체계 여부
	12. 경기장 내외 의료진 및 구급차 상시 대기 여부
	13.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시영 여부
	14.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에게 무리가는 등 과도한지 여부
	15. 기타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계속>

구분	항목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6.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여부
	17. 언어 폭력
	18. 관중 등이 팀, 지역을 비하, 혐오, 차별하는 발언 하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하는지 여부
	19.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
	20.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하는지 여부
	21. 선수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
	22.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촬영 행위를 하는지 주목
	23. 이외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특이사항
	24. 기타 특이사항

2) 심층인터뷰

○ 인권상황 심층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3] 장애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조사내용

구분	항목
대상자 정보 확인	1. 응답자 정보 (나이, 종목, 선수/지도자/보호자, 장애여부)
	2. 인권침해 목격 경험
인권침해 현황 및 홍보활동	1. 경기장 내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배포 인지도
	2. 대처 매뉴얼 미인지 이유
	3. 경기대회 중 인권침해 경험
	4. 인권침해 대처 방안
	5. 타인 및 기관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6. 폭력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7. 인권침해 발생 시 정부의 노력

<계속>

구분	항목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1. 대회 출전·시합 준비로 인한 수업 미참여
	2. 수업 미참여 시 일일 평균 시간
	3. 학교 수업 배제 시 수업 보충 방법
	4.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안)’에 대한 의견
	5.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안)’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 찬·반 의견
	7. ‘학교체육진흥법’ 규정의 학습권 회복 도움 정도
	8. 날씨 영향에 따른 훈련 방법
	9. 방과 후 및 주말 훈련 시간
시설 및 환경	1. 경기대회 참가 시 숙소 환경
	2. 숙소 이용 시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3. 경기대회 중 숙소 이용 시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해결 위한 개선사항
	4. 학생선수 이용 숙박사실 및 보호자 동행 여부
	5. 화장실, 대기실, 탈의실, 연습실 등 환경 및 개선사항
	6. 선수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경기일정
	7. 경기대회 개최 시 휴식 시간 보장
	8. 체육대회 및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1. 경기장 내 이동, 시설접근 불편사항
	2. 경기장 내 이동, 시설접근 불편 및 개선사항
	3. 장애인 전용 화장실·엘리베이터 시설 미설치로 인한 불편사항
	4.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5.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신고·상담 안내
	6.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신고·상담 안내 개선사항
	7. 장애인 선수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계속>

구분	항목
기타	1. 선수 인권 향상 및 인권 친화적 경기대회 개최 위한 정부 추진 사항
	2. 인권교육 내용 및 교육시간 관련 개선사항
	3. 인권교육 관련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효과
	4. 인권교육 강사 유형
	5. 경기대회 개최 관련 개선 사항
	6. 선수 인권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4. 모니터링 방법

1) 모니터요원 교육 자료

- 모니터링 진행 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모니터링 단원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이해 교육, 체크리스트 및 모니터링 방법, 유의사항 등 교육 실시함

[그림 1] 모니터요원 교육 자료

2022년 주요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원 교육자료
- 모니터요원 교육자료 -

2022. 06. 알앤알컨설팅(주)

I. 사업 배경 및 목적

1. 체육계 인권 침해 문제

-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제벌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사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공론화 되고 있음
-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사자사태 해소를 위한 노력과 협력을 위한 필요성이 절실함

체육계 인권침해 문제 현황

- 절인3중 선수 사망사고 등을 계기로 스포츠 선수 인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스포츠계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 또한 제기됨
- 스포츠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체육정책의 개선 또한 요구되고 있음

학생선수 인권실태조사 필요성

- 학교체육/학교운동부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정도가 전문체육 생활체육 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생은 정서적 발달이 중시되기 때문에 피해 정도가 더 나쁠 수 있으며, 스포츠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생선수의 인권실태 조사 및 현황 파악이 필요한 시점임

스포츠 분야 시간 분석 결과

[성폭력 실태]		[폭력 실태]	
인사: 2인	인사: 2인	인사: 2인	인사: 2인
성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29	43	8	27
7	7	7	7

※ 출처: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폭력 시간 면적분석 및 구제방안 연구

III. 모니터링 준비

- 모니터요원임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끼를 착용하며, 모니터요원용 배움하여 모니터원의 공신성을 확보함
- 현장 상황 재증을 위한 사진 영상촬영, 녹화기, 휴대 및 작도기(정해진 체육대회용) 준비

▶▶ 모니터요원 복장

현장 모니터요원 복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 **의복**
 - 밝고 단정한 의복
 - 청결한 느낌의 색상
 - 무늬를 상사 적용
- **화장**
 - 단정하고 위생한 화
 - 단추를 잠금 있음
 - 액세서리 착용 금지
- **가방**
 - 청결 신중함
 - 위생용 손소독제/수시 사용

▶▶ 모니터요원 준비물

- **체크리스트**
- **협조공통물**
- **모니터요원 교육자료**
- **장비인대비용**
- **계측도구**

V. 유의사항

1.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 '제 00회 전국중학교아동선수권대회'는 제1경기장, 제2경기장 두 곳에서 동시 진행되었으며 요원 2명이 각 1개 경기장 전담하여 모니터원 진행함
- 향후 고개 이상 경기장에서 동시 진행되는 대회는 모니터원 간 협의하여 누락되는 경기 없이 고르게 모니터원 진행
- 대회 1일차에는 알앤알컨설팅 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가 대회담당자에게 과업 안내함 (1일차 진행 모니터요원은 안내 시 동시연 하연 담당)
- 2일차 부터는 경기장 도착 후 대회담당자에게 모니터원임을 간단히 소개 후 바로 모니터원 진행 (대회별 담당지 명확하게 후단에 기재)
- 소속 모니터원은 각 선수단 감독/교사의 협조를 진행

2. 심층인터뷰 요청 시 유의사항

- 심층인터뷰 명함 전달 시, 알앤알컨설팅으로 안내하기보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안내함이 효과적
- 심층인터뷰 안내 명함은 경기 중에는 '보호자' 위주로 배포하며, 경기 전과 경기 후에 선수와 교차에게 배포함. 경기 종료 후에는 패배팀 보다는 승리팀 위주로 명함 제공 시 보다 협조적일 것으로 예상함
- '선수 인권보호 인터뷰'라고 하면, 폭력 제벌 시제 그날로 오해하는 경우 폭력 제벌도 담당하 본 인터뷰 내용에 포함되지만, 체육대회의 흥경이나 대회에서 학습권 침해(경쟁력 저하) 등 도 모두 인터뷰 내용에 포함됨. 침해사태가 없더라도 보다 나은 체육대회 운영, 체육시설 개선 등 후회 선수들을 위해 좋은 의견 주시면 된다고 안내함
- QR코드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함께 스캔하는 것도 추천함

2) 모니터 요원 교육 일정

- 각 대회별 모니터 요원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음

[표 14] 모니터 요원 교육 일정

구분	대회	교육 일정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2022. 6. 8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3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2022. 7. 14
4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2022. 8. 22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2022. 10. 5
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2022. 10. 17

3) 모니터링 실시

- 인권상황 조사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모니터링 인원 확보
- 모니터링 대상 환경에 탈의실, 휴게실, 화장실 등 남녀 공간 분리된 곳들이 있으므로, 남녀 단원을 혼성으로 구성
- 대회 개최 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시설 및 환경, 경기 중 폭력행위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현장 사진 확보

제 2장

종합 결과

1. 비장애인 경기대회
2. 장애인 경기대회

1 비장애인 경기대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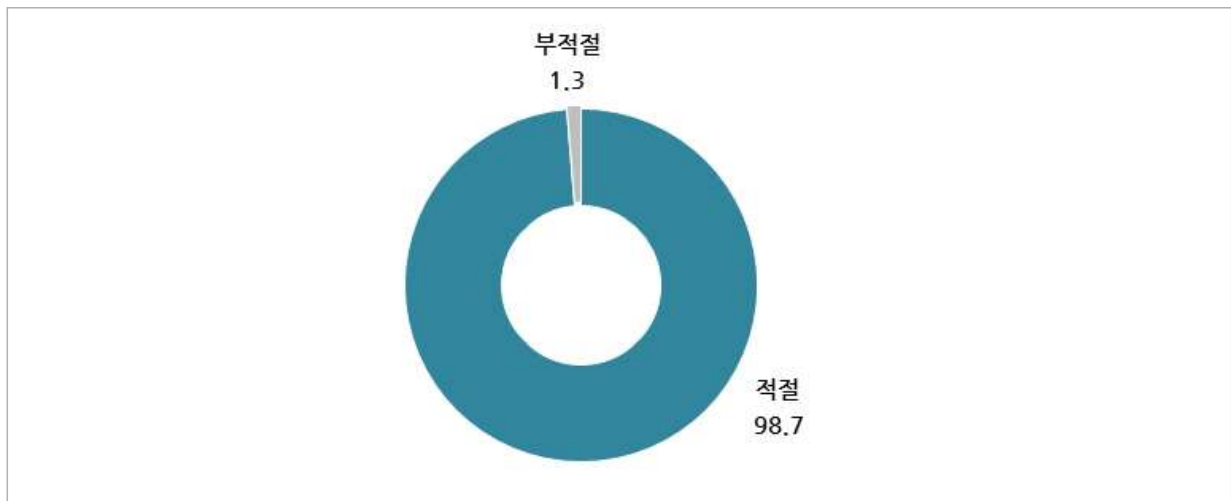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등 6개 비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75회(98.7%)는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한 반면, 1회(1.3%) 인원 과다 탑승하여 이동함

[그림 2]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6개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15] 차량 과다 인원 탑승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세부 내용
1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농구	검은색 9인승 차에 13명 탑승함

2) 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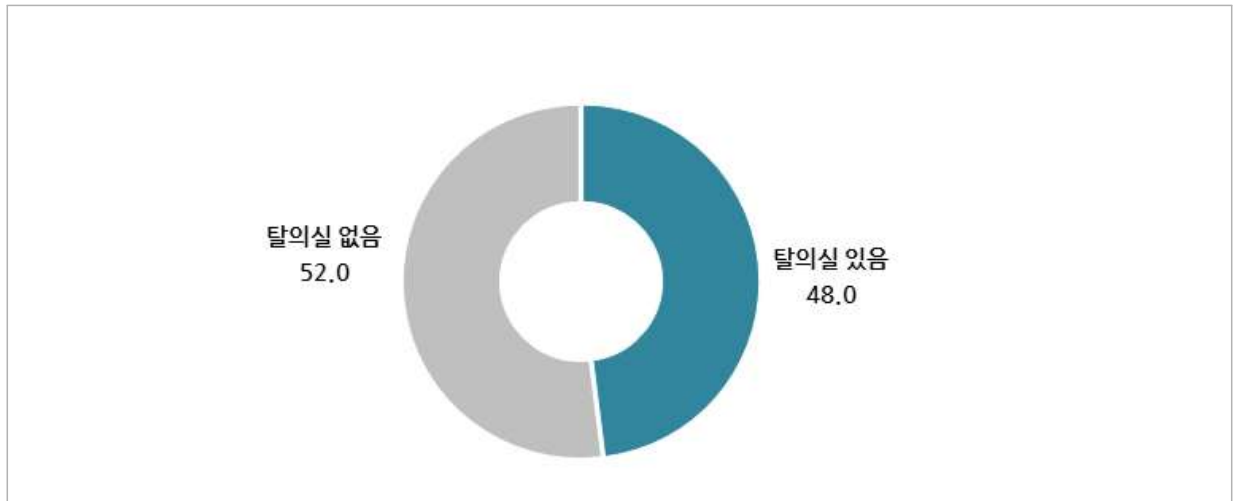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1) 탈의실 설치 여부

○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탈의실 있는 경기장은 12개(48.0%), 없는 경기장은 13개(52.0%)로 나타남

[그림 3] 탈의실 설치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장소 25개, 단위 : %)



[표 16] 탈의실 미설치 경기장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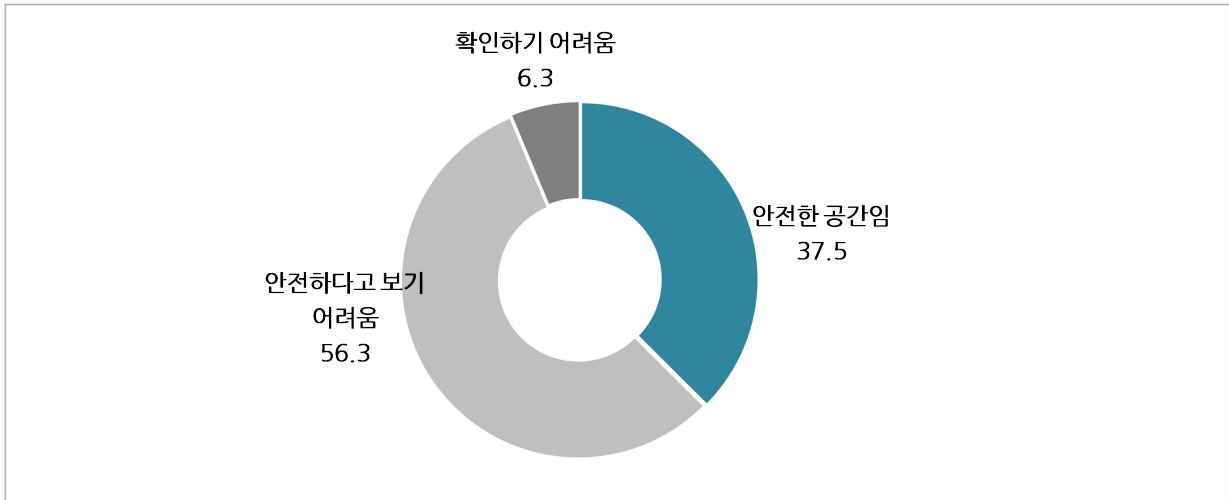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경기장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경주베이스볼파크
			포항생활체육야구장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3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영광홍농초등학교체육관
4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양구테니스파크
			양구중고등학교 테니스코트
5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야구	중구야구장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2) 탈의실 안전공간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탈의실 있는 경기장 12개 대상 32회 모니터링 한 결과, 12회(37.5%)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확인된 반면, 18회(56.3%)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됨 (탈의실 시정장치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움 2회)

[그림 4] 탈의실 안전공간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32회, 단위 : %)



[표 17] 탈의실 안전하지 않은 공간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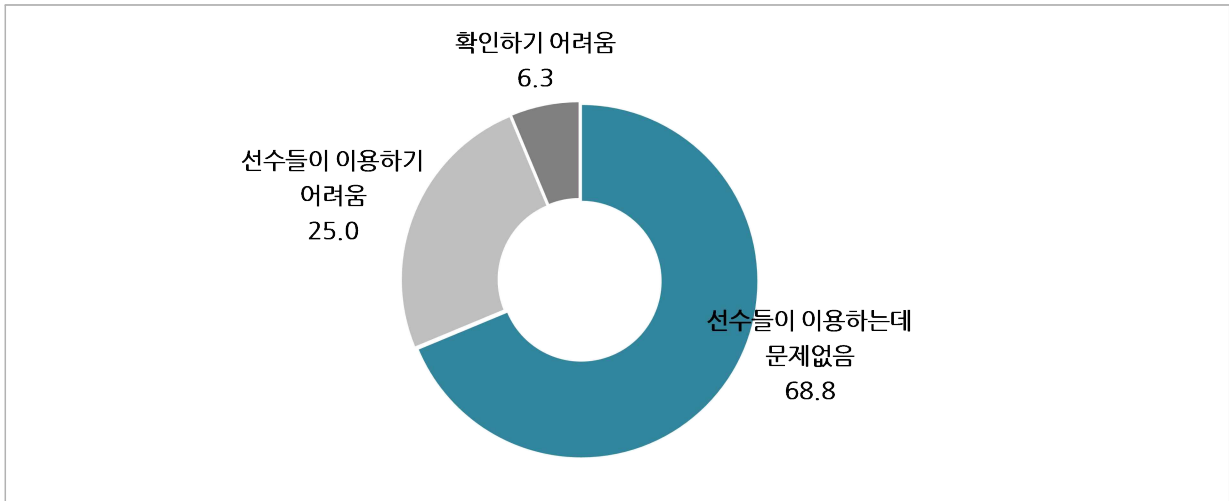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축구
		체조
		롤러
		태권도

(3) 탈의실 선수이용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탈의실 있는 경기장 12개 대상 32회 모니터링 한 결과, 22회(68.8%)는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8회(25.0%)는 탈의실 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탈의실 시정장치로 인해 확인하기 어려움 2회)

[그림 5] 탈의실 선수이용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32회, 단위 : %)



[표 18] 탈의실 선수 이용 어려움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축구
		롤러

3) 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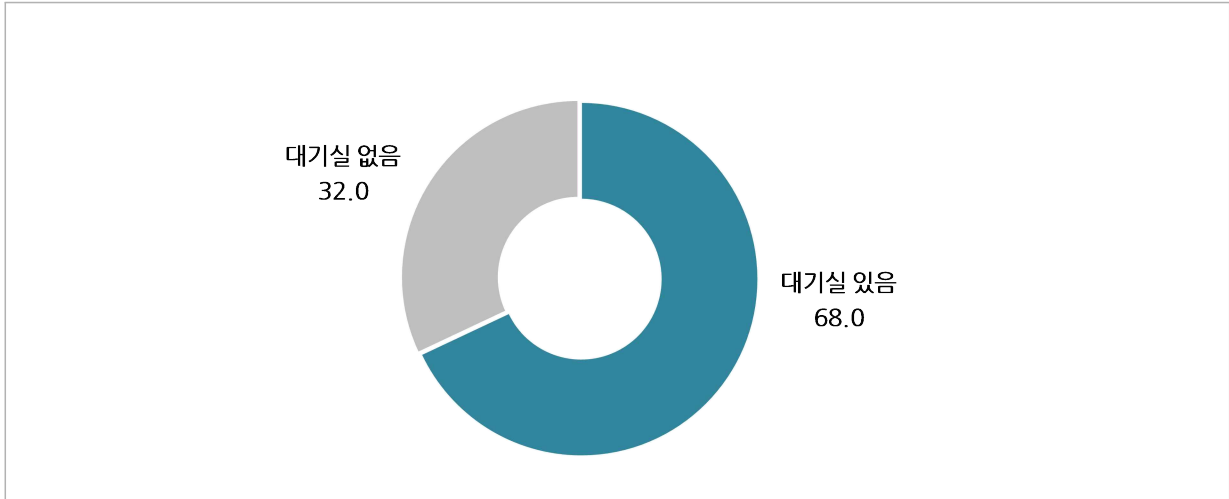
-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1) 대기실 설치 여부

- 비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은 17개(68.0%), 없는 경기장은 8개(32.0%)로 나타남

[그림 6] 대기실 설치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장소 25개, 단위 : %)



[표 19] 대기실 미설치 경기장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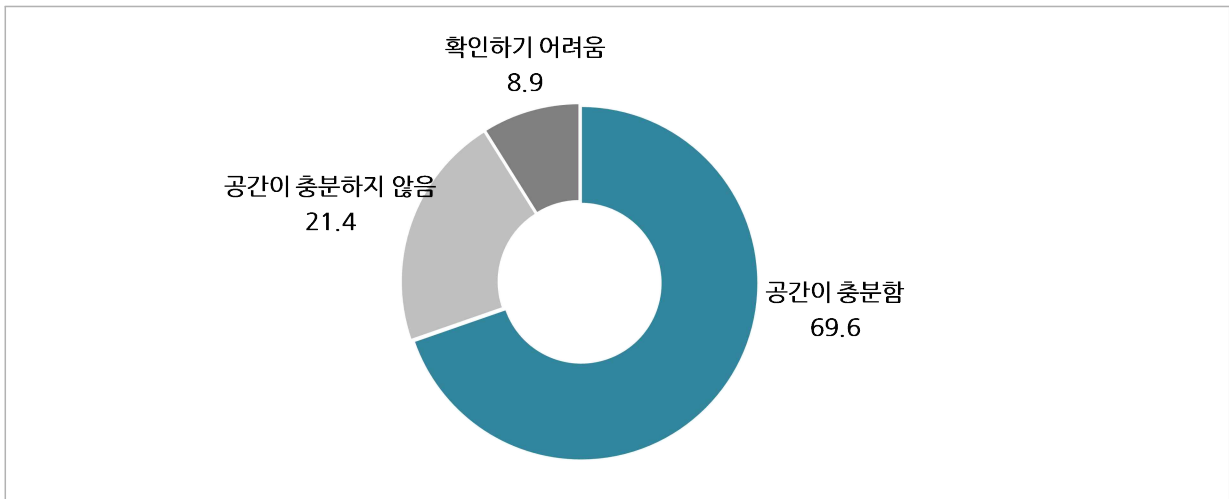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경기장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포항생활체육야구장
2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영광홍농초등학교체육관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울주군민체육관
		체조	동천체육관

(2) 대기실 공간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17개 대상 56회 모니터링 한 결과, 39회(69.6%)는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12회(21.4%)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5회)

[그림 7] 대기실 공간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56회, 단위 : %)



[표 20] 대기실 공간 충분하지 않음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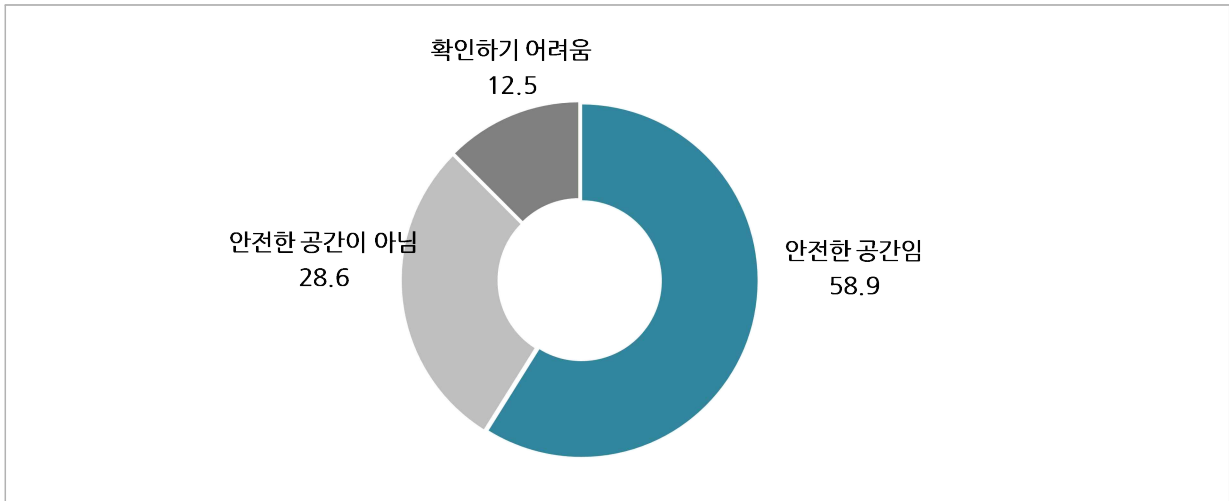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축구
		소프트볼
		롤러
		자전거
		태권도

(3) 대기실 안전공간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17개 대상 56회 모니터링 한 결과, 33회(58.9%)는 안전한 공간으로 확인된 반면, 16회(28.6%)는 안전한 공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7회)

[그림 8] 대기실 안전공간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56회, 단위 : %)



[표 21] 대기실 안전한 공간 아님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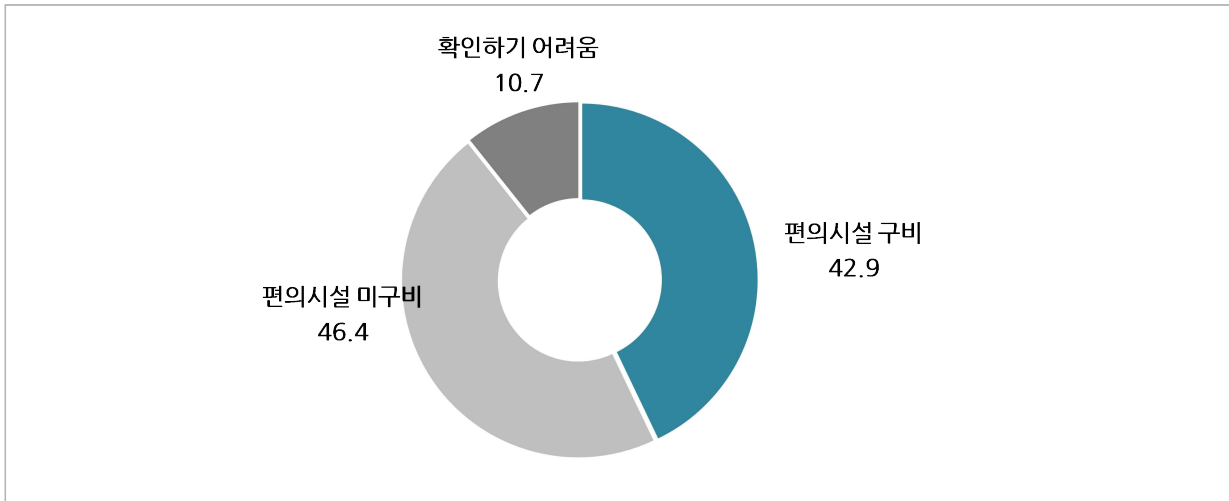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3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4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야구
		축구
		소프트볼
		롤러
		태권도

(4) 대기실 편의시설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17개 대상 56회 모니터링 한 결과, 24회(42.9%)는 대기실 내 편의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26회(46.4%)는 적절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6회)

[그림 9] 대기실 편의시설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56회, 단위 : %)



[표 22] 대기실 편의시설 미구비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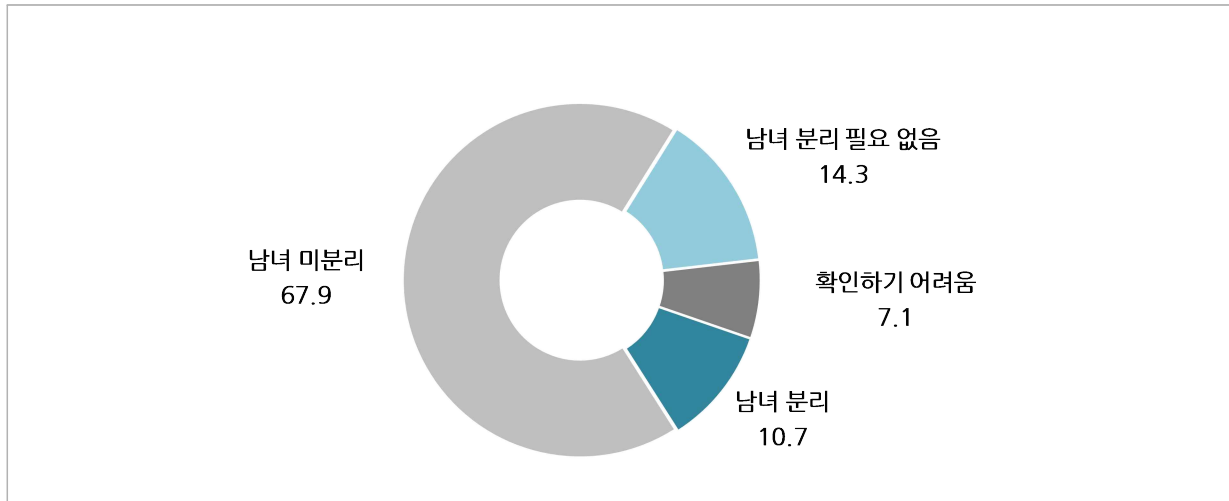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2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3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4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축구
		소프트볼
		롤러
		자전거
		태권도

(5) 대기실 남녀분리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17개 대상 56회 모니터링 한 결과, 6회(10.7%)는 남녀 분리되어 있었으며, 38회(67.9%)는 분리되지 않은 통합 공간인 것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6회)
-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는 남자 중학생만 참여 하는 경기로 남녀 대기실 분리 필요 없었음

[그림 10] 대기실 남녀분리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56회, 단위 : %)



[표 23] 대기실_남녀 미분리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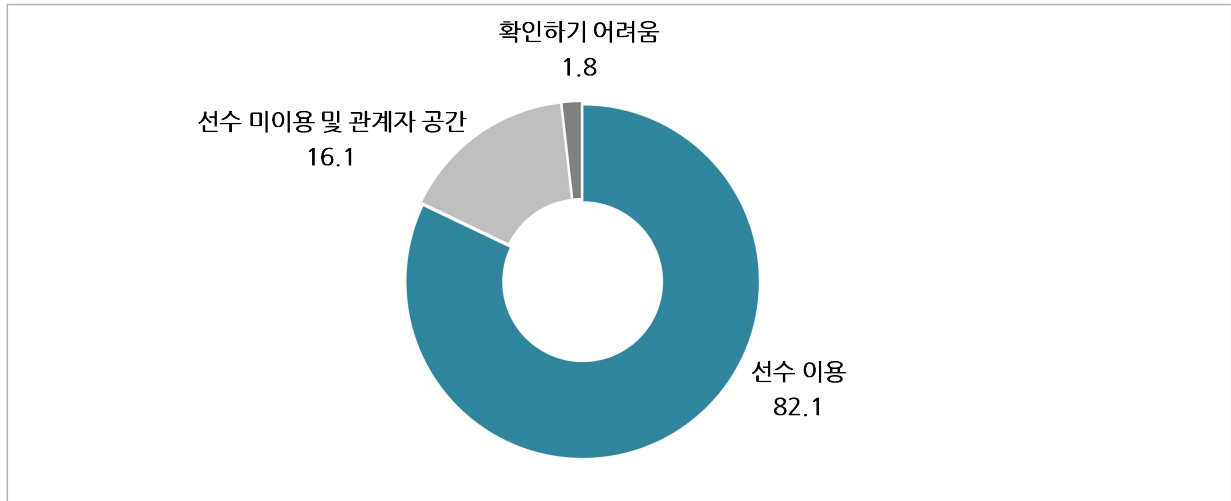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2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야구
		축구
		소프트볼
		롤러
		자전거
		태권도

(6) 대기실 선수 이용 적절성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17개 대상 56회 모니터링 한 결과, 46회(82.1%)는 선수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9회(16.1%)는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관계자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1회)

[그림 11] 대기실 선수 이용 적절성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56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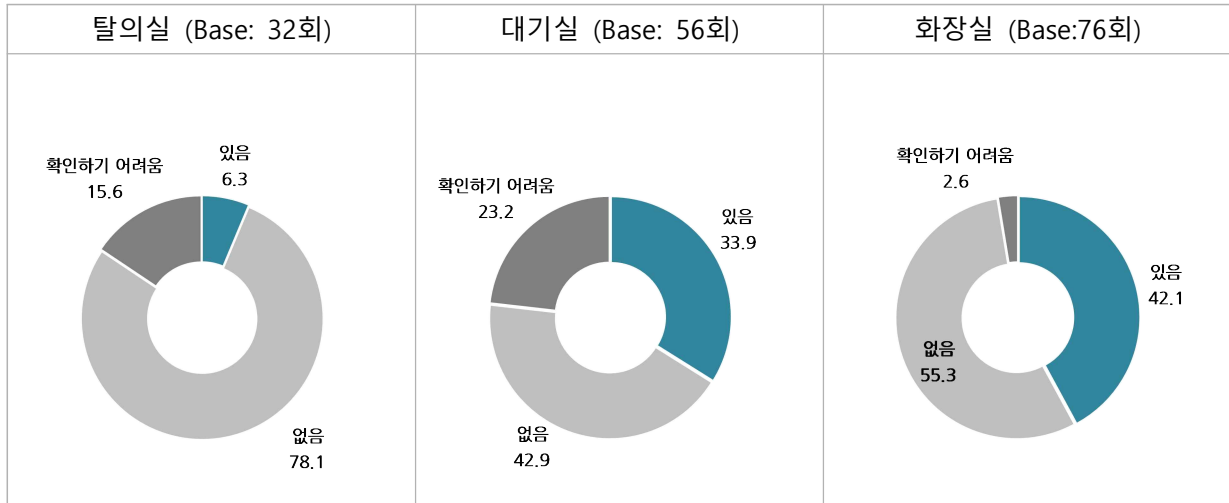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에 대해 탈의실과 대기실, 화장실 3개 공간에 대해 모니터링 함
- 탈의실 있는 경기장 12개 대상 32회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음 2회(6.3%), 없음 25회(78.1%)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5회)
-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17개 대상 56회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음 19회 (33.9%), 없음 24회(42.9%)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13회)
- 25개 경기장 76회 화장실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음 32회(42.1%), 없음 42회 (55.3%)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2회)

[그림 12]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단위 : %)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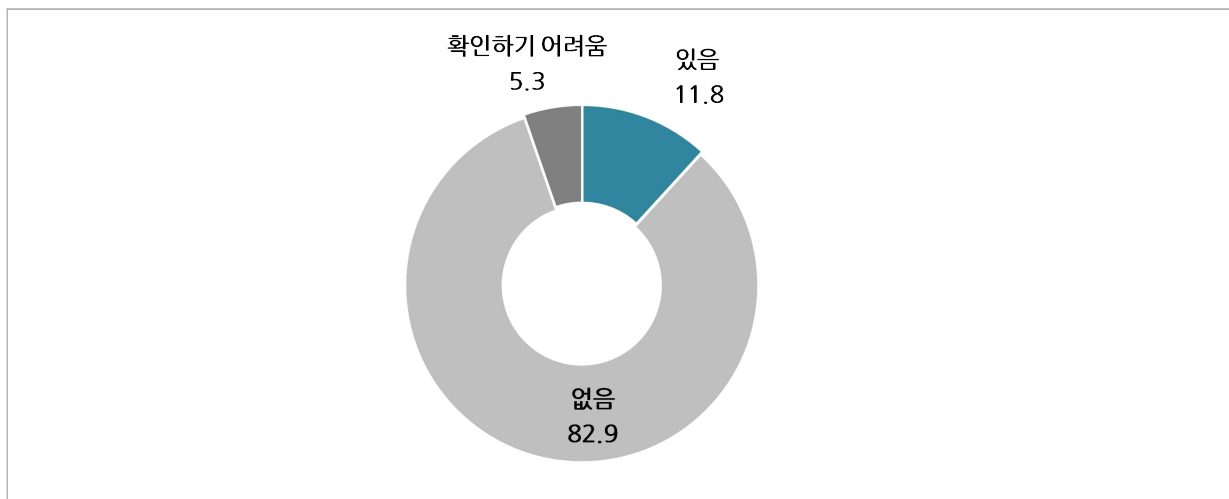
-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1) 신고안내물 비치·부착

-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안내물이 비치·부착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신고안내물이 있음 9회(11.8%), 없음 63회(82.9%)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4회)

[그림 13] 신고안내물 비치·부착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24] 신고안내물 비치·부착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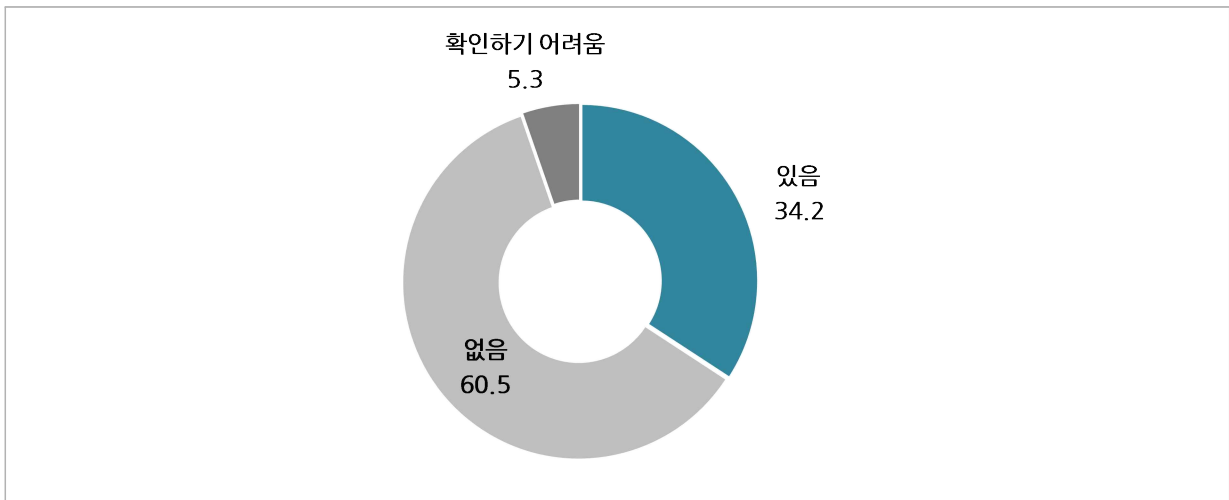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2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3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4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5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야구
		농구
		축구
		소프트볼
		체조
		롤러
		자전거
태권도		

(2) 상담실 운영·안내

-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 운영·안내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상담실 운영 중은 26회(34.2%), 상담실 없음 46회(60.5%)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4회)

[그림 14] 상담실 운영·안내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25] 상담실 미운영·미안내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육상
3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4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야구
		농구
		축구
		소프트볼
		자전거

6) 연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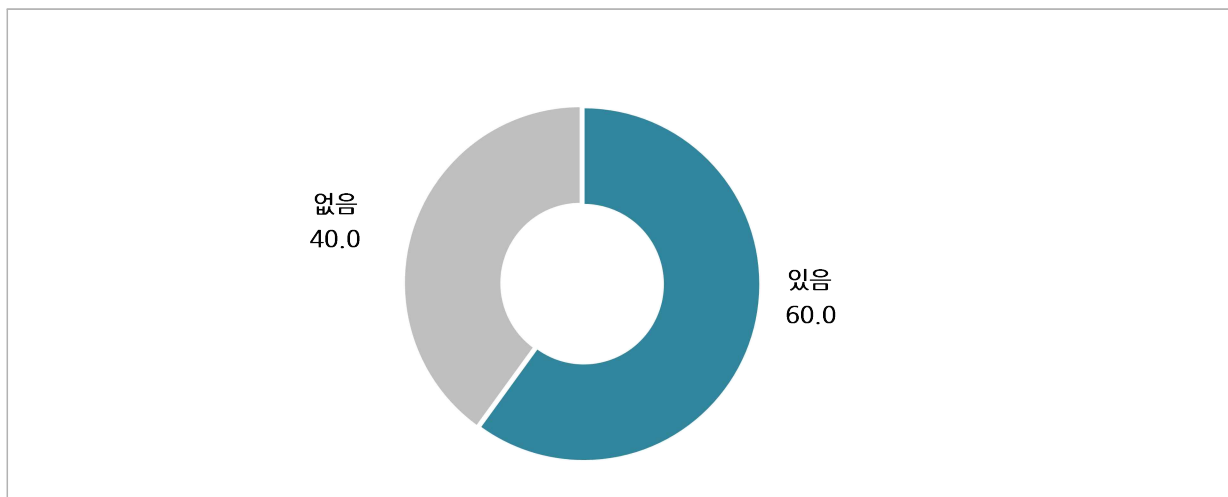
-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1) 연습공간 설치 여부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5개 경기장 중 연습 공간이 있음 15개(60.0%), 연습 공간 없음 10개(40.0%)로 나타남

[그림 15] 연습공간 설치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장소 25개, 단위 : %)



[표 26] 연습공간 미설치 경기장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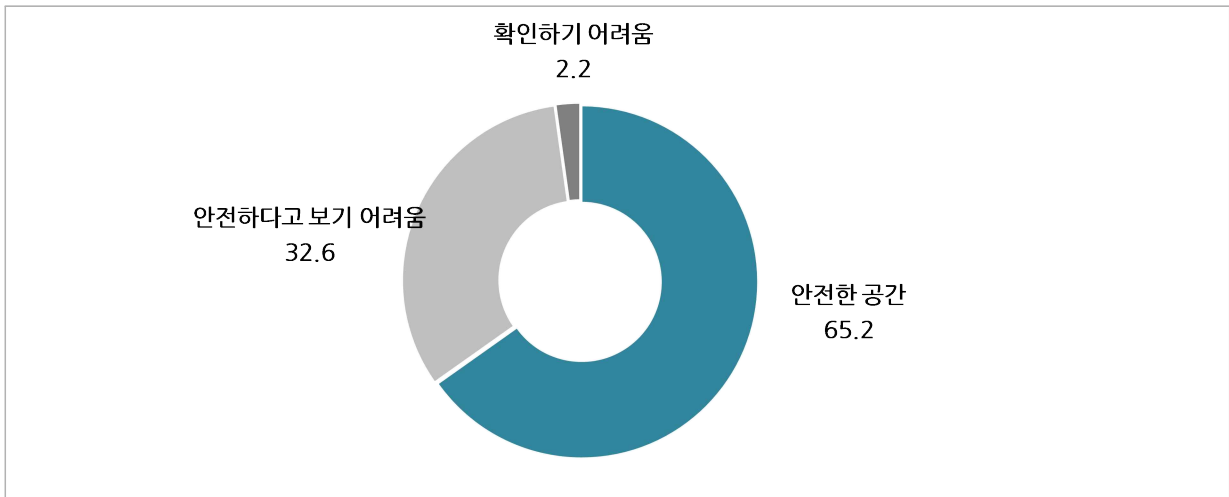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경기장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경주베이스볼파크
2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고원체육관
3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영광홍농초등학교 체육관
4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양구테니스파크
			양구중고등학교 테니스코트
5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야구	중구야구장
		농구	울산과학기술원 체육관 울주군민체육관

(2) 연습공간 안전 여부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연습공간이 있는 경기장 15개 대상 46회 모니터링 한 결과, 30회(65.2%)는 안전한 공간으로 확인된 반면, 15회(32.6%)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1회)

[그림 16] 연습공간 안전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46회, 단위 : %)



[표 27] 연습공간 미안전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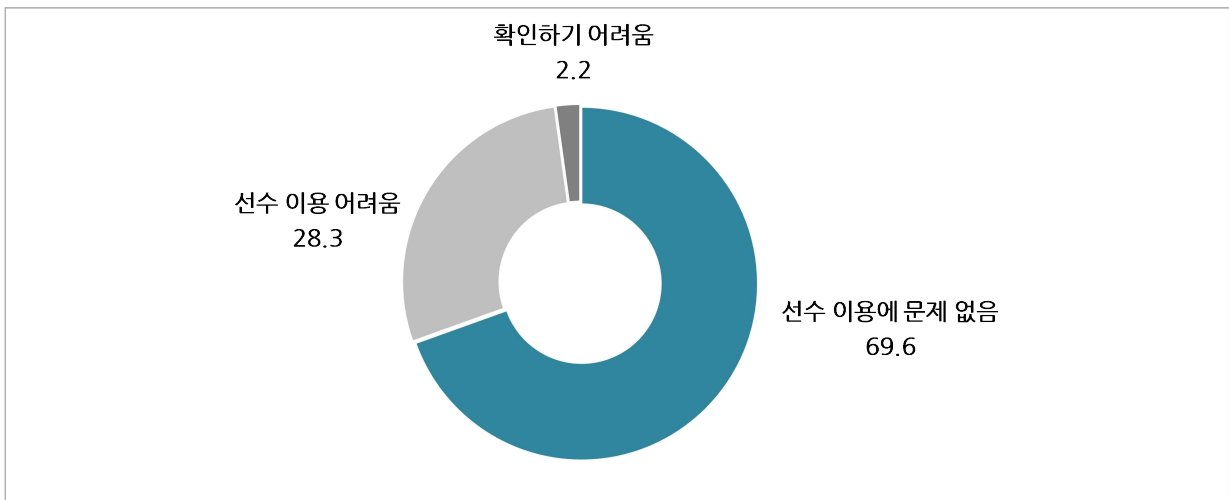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2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소프트볼
		체조
		롤러
		자전거
		태권도

(3) 연습공간 선수 이용 적절성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25개 경기장 중 연습공간이 있는 경기장 15개 대상 46회 모니터링 한 결과, 32회(69.6%)는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13회(28.3%)는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1회)

[그림 17] 연습공간 선수 이용 적절성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46회, 단위 : %)



[표 28] 연습공간 선수 이용 부적절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2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축구
		소프트볼
		체조
		자전거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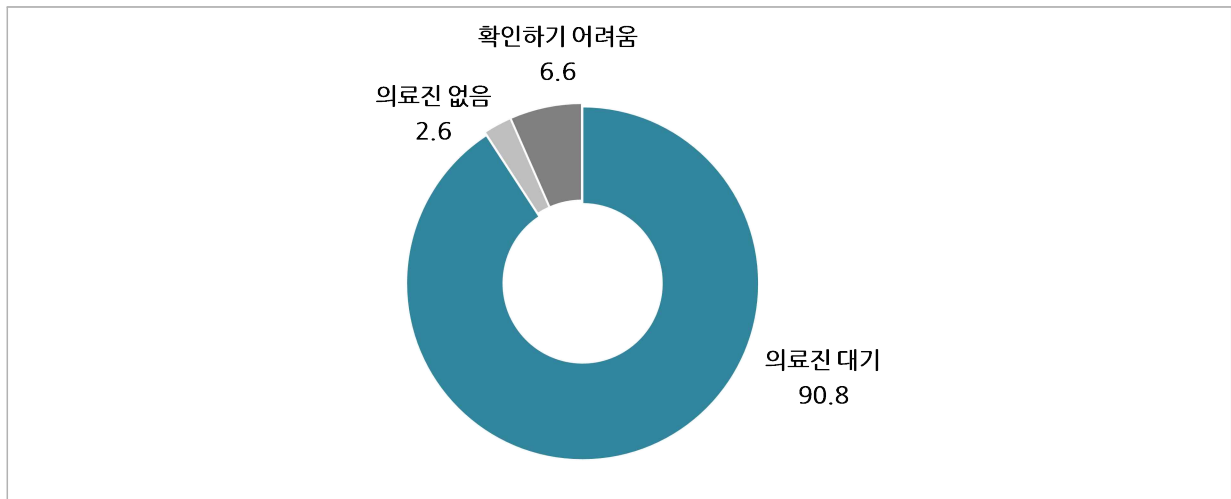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1) 의료진 대기 여부

○ 경기장 내 의료진 대기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의료진 대기 69회 (90.8%), 의료진 없음 2회(2.6%)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5회)

[그림 18] 의료진 대기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29] 의료진 미대기_비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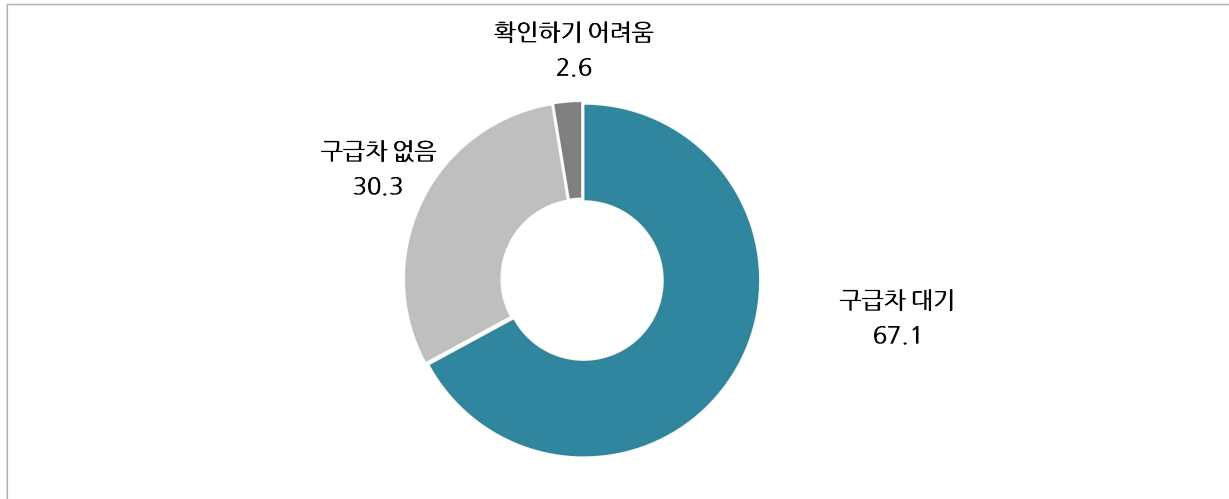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2) 구급차 대기 여부

○ 경기장 내 구급차 대기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구급차 대기 51회 (67.1%), 구급차 없음 23회(30.3%)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2회)

[그림 19] 구급차 대기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0] 구급차 미대기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2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야구
		소프트볼
		체조
		롤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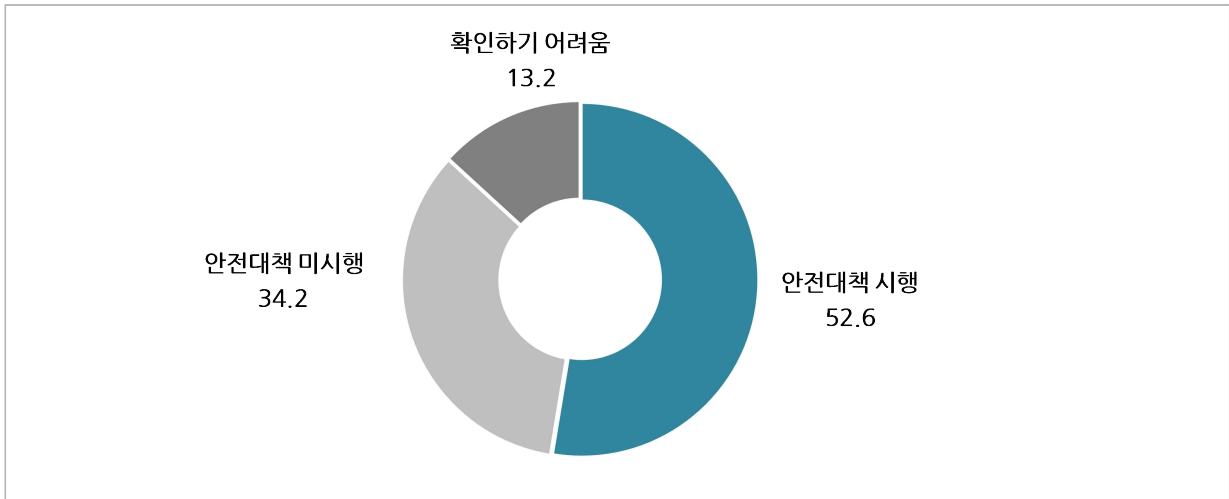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 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출입 시 위험 물건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경기장 내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안전대책 시행 중은 40회(52.6%), 미시행 26회(34.2%)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10회)

[그림 20]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1]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미시행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2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야구
		농구
		체조
		롤러
		자전거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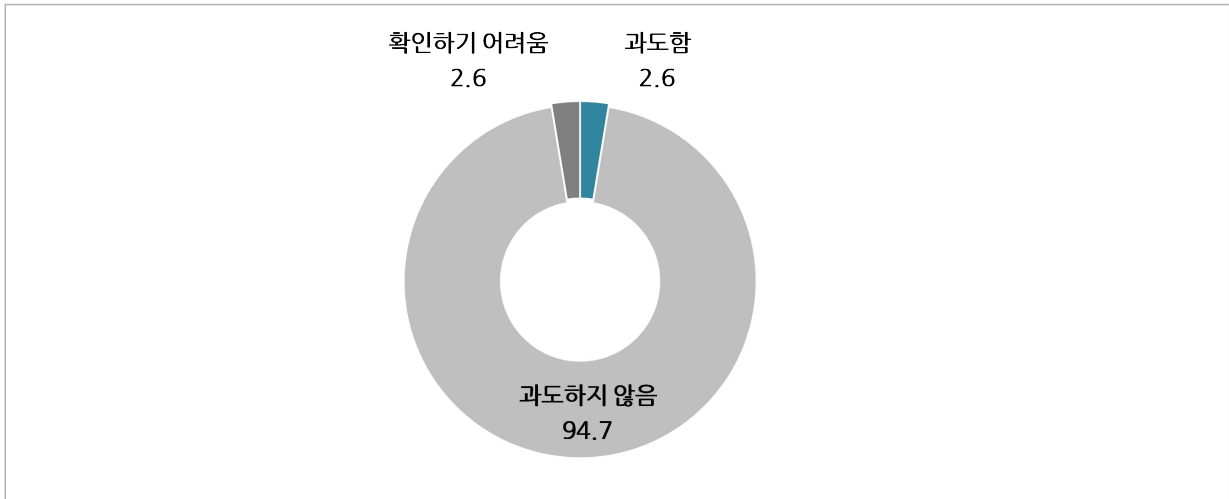
9) 과도한 일정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과도함 2회(2.6%), 과도하지 않음 72회(94.7%)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2회)

[그림 21] 과도한 일정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2] 과도한 일정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자전거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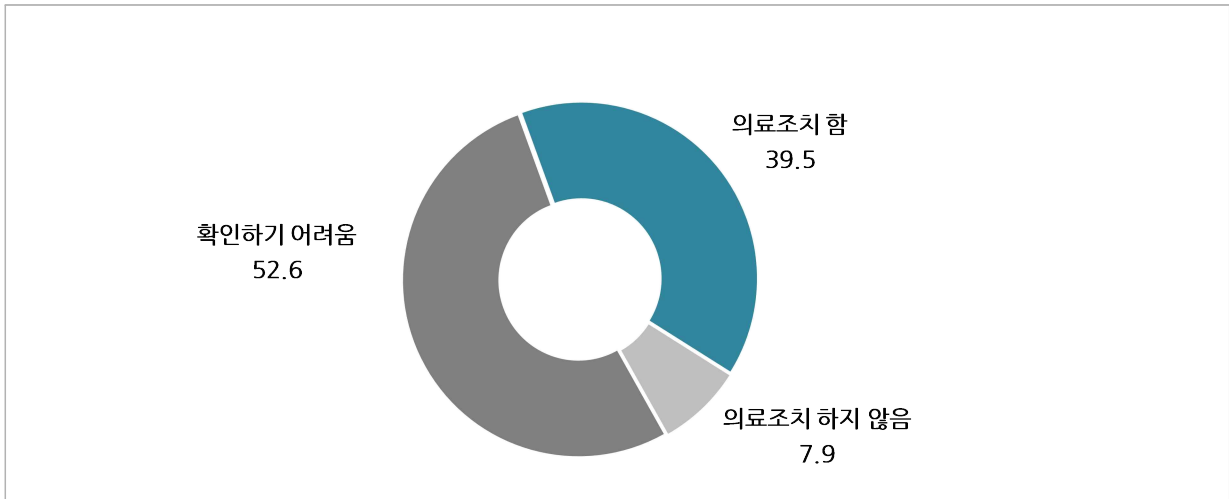
1) 의료조치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의료조치 시행 30회(39.5%), 의료조치 미시행 6회(7.9%)로 나타남 (선수 부상사례 없어 의료조치 여부 확인하기 어려움 40회)

[그림 22] 의료조치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3] 의료조치 미시행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야구
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체조

2) 언어 폭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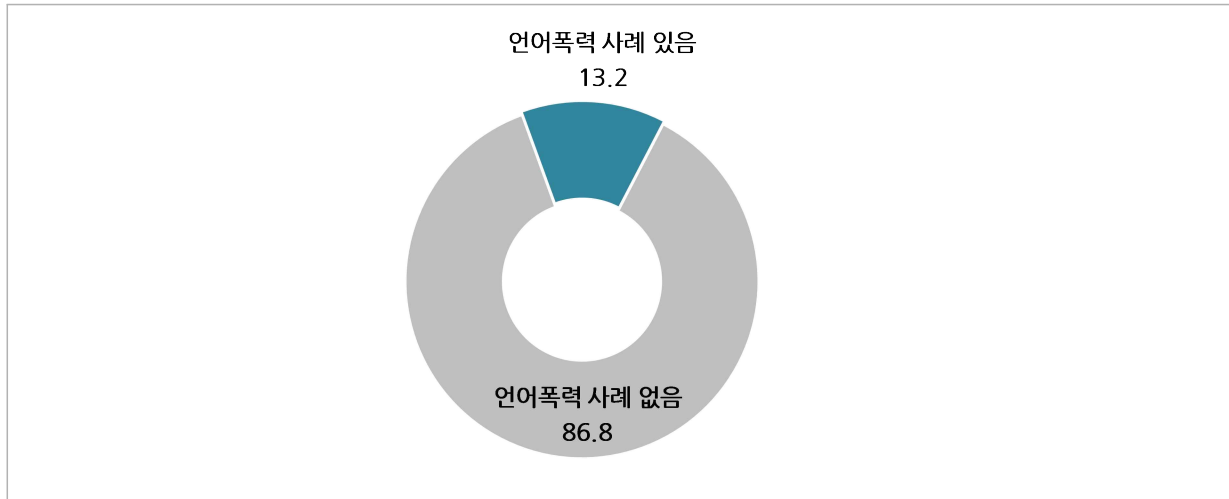
(1) 언어 폭력 여부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이 있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언어 폭력 사례 있음 10회(13.2%), 언어 폭력 사례 없음 66회 (86.8%)로 나타남

[그림 23] 언어 폭력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4] 언어 폭력 사례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행위자	행위자 성별	피해자 성별
1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코치/감독	여	여
				남	남
2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코치/감독	남	남
				여	여
				남	남
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농구	관중/학부모	여	여
		축구	코치/감독	남	남
		태권도	코치/감독	남	여

(2) 선수 비하 발언 및 주최측 제재 조치 여부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관중 등이 팀이나 지역을 비하하거나 혐오, 차별하는 발언을 하는 사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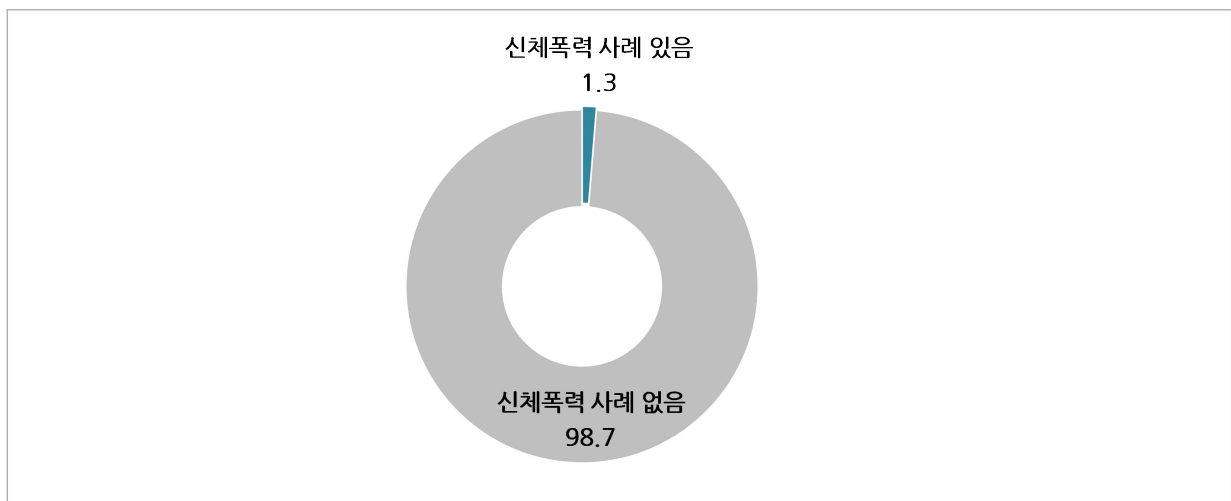
3) 신체 폭력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 신체적 폭력이 있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신체 폭력 사례 1회(1.3%) 있었음

[그림 24] 신체 폭력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5] 신체 폭력 사례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행위자	행위자 성별	피해자 성별
1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테니스	코치/감독	남	남

4) 성희롱·성폭력

(1) 성희롱 발언 여부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희롱 발언 사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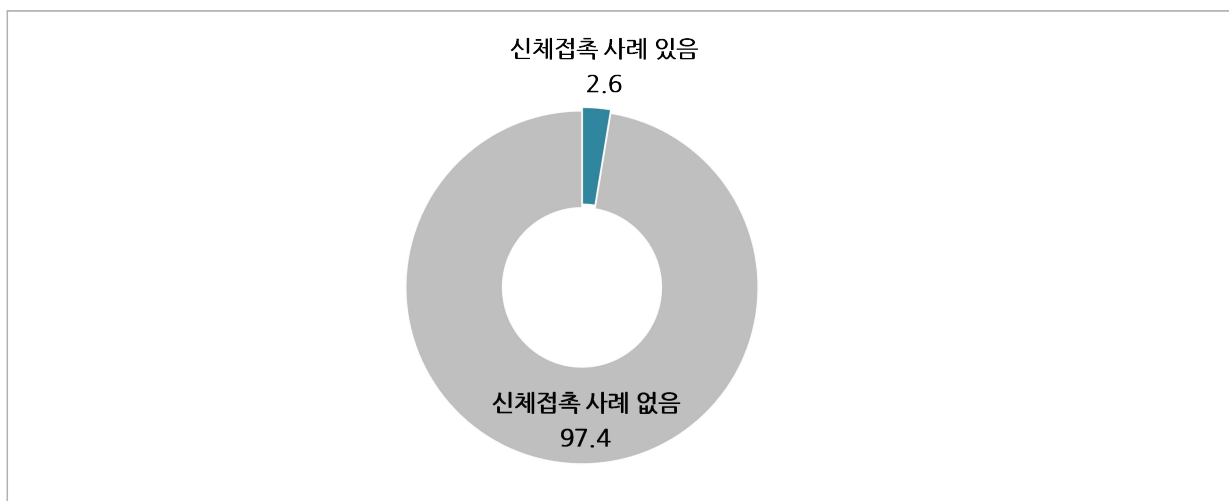
(2) 불필요한 신체접촉 여부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선수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신체접촉 사례는 2회(2.6%)로 나타남

[그림 25] 불필요한 신체접촉 여부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6] 신체 접촉 사례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행위자	행위자 성별	피해자 성별
1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체조	코치/감독	남	여
			코치/감독	남	여

(3) 불법촬영 여부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특정 신체를 촬영하는 사례 없음

3. 기타 확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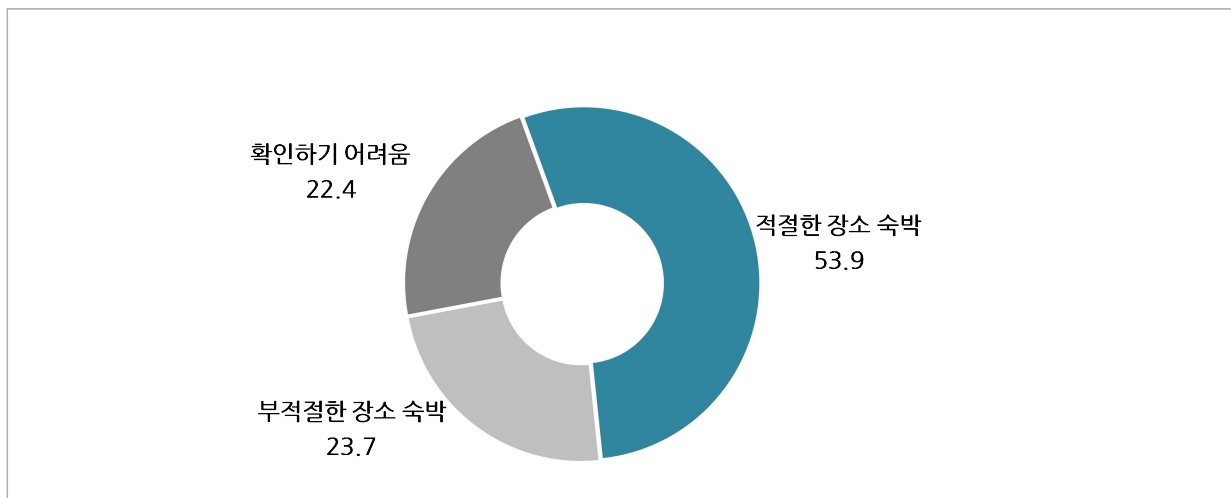
1) 숙박 장소 적절성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고교부 등 아동 선수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에 숙박하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유스호스텔 등 적절한 곳에서 숙박이 41회(53.9%), 모텔 등 부적절한 장소 숙박 18회(23.7%)로 나타남
- 숙소 퇴실 등 모니터링 기간 중 숙소 확인이 어려운 사례 17회임

[그림 26] 숙박 장소 적절성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표 37] 숙박 장소 부적절_비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대회명	종목
1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핸드볼
2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농구
3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 12세부)	테니스
4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농구
		소프트볼
		자전거
		태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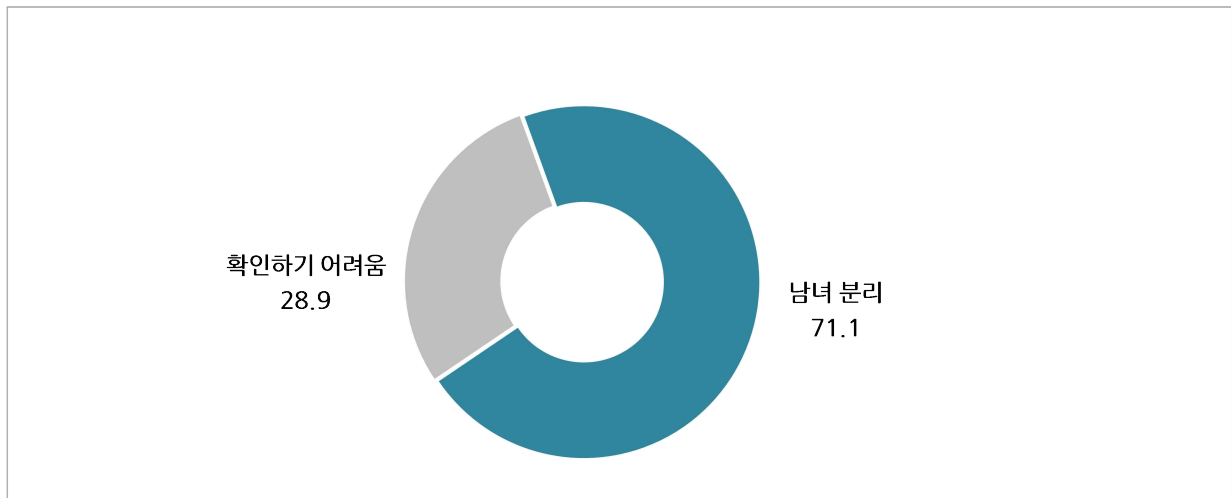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숙박장소 내에 남녀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54회 (71.1%)는 분리되어 있었으며, 성인대상 경기이거나 숙박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는 22회(28.9%)임

[그림 27] 숙박 장소 남녀 분리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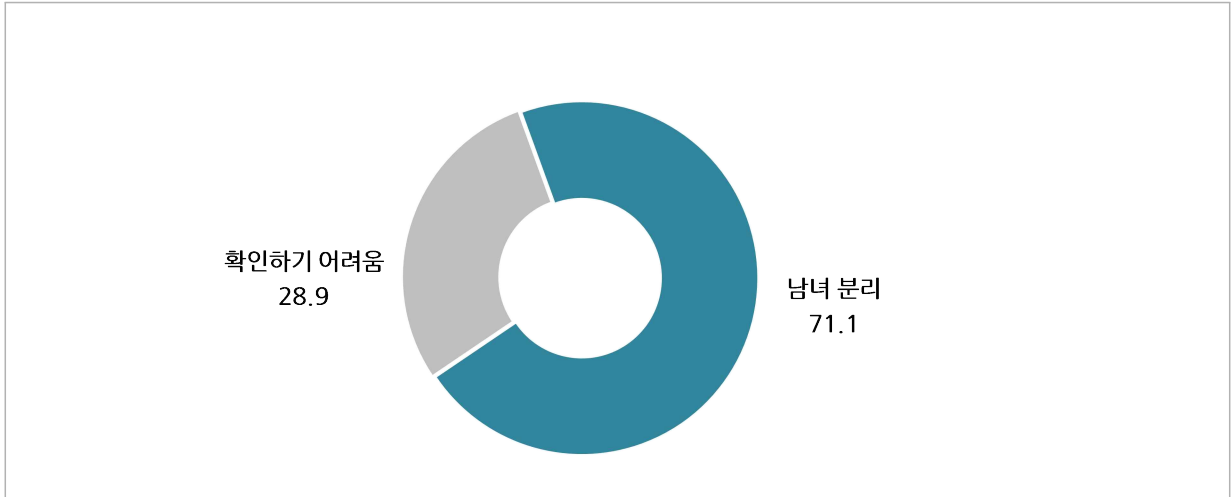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동성의 보호자인 감독관 동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76회 모니터링 중 60회(78.9%)는 동행했으며, 성인대상 경기이거나 숙박 장소를 확인이 어려운 사례는 16회(21.1%)임

[그림 28]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_비장애인 경기대회

(Base: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76회, 단위 : %)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타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에 비자발적으로 동원된 사례 없음

2 장애인 경기대회

1.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이동·정보 접근 등에 관련한 사항

1) 보행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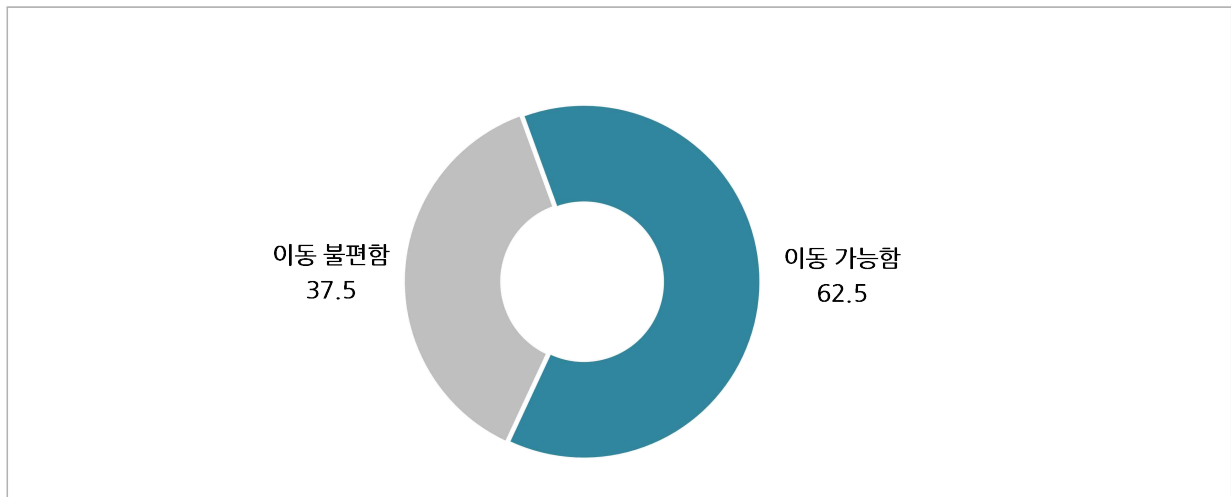
(1) 보행자 안전 이동

▶ 보행자가 차량 등의 방해받지 않고 경기장 입구(경기장이 속한 공원 또는 부지의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 보행자가 차량 등의 방해받지 않고 경기장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지 모니터링 한 결과,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이동이 불편한 경기장은 3개(37.5%), 이동 가능한 경기장 5개(62.5%)로 나타남

[그림 29] 보행자 안전 이동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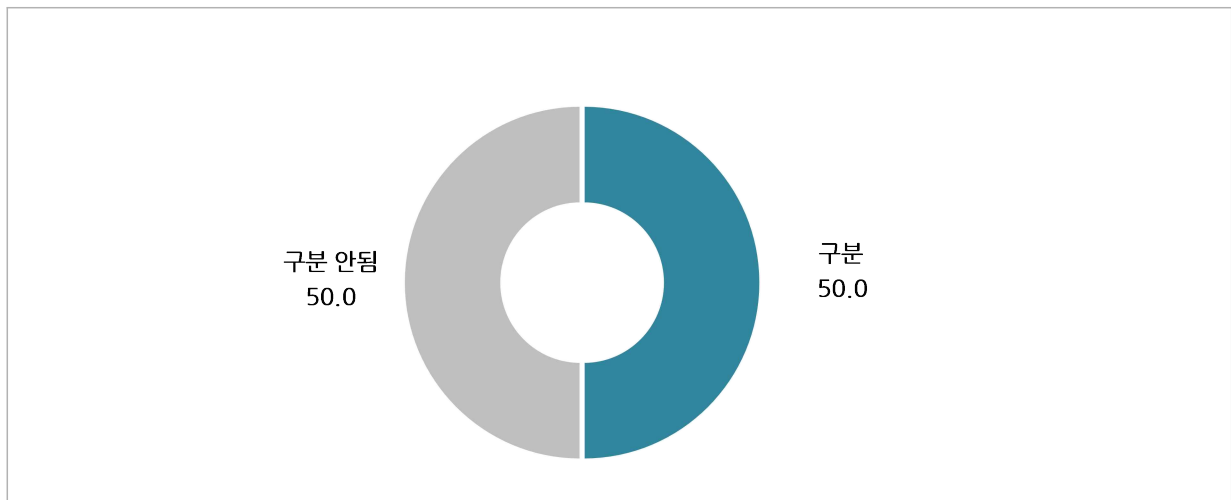
(2) 접근로와 차도 경계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지

- 장애인 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대상으로 접근로와 차도 경계 구분을 모니터링 한 결과, 경계 구분된 경기장은 4개(50.0%), 구분되지 않은 경기장 4개(50.0%)로 나타남

[그림 30] 접근로와 차도 경계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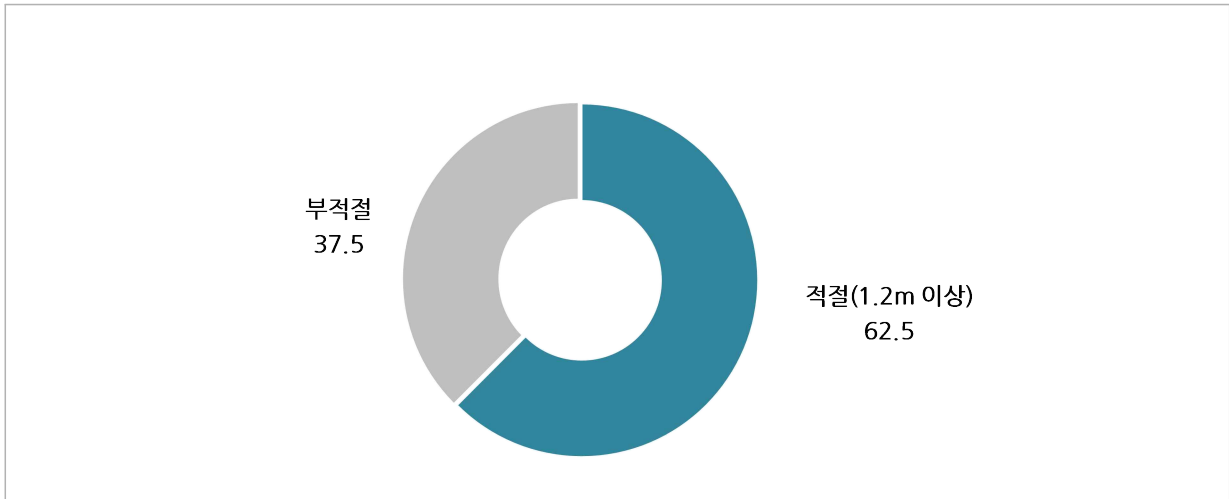
(3) 접근로 폭

▶ 접근로의 폭이 1.2m 이상으로 적절한지?

- 접근로 폭이 1.2m 이상으로 장애인이 경기장에 진입하는 데 문제없는 경기장은 5개 (62.5%), 부적절한 경기장은 3개(37.5%)로 나타남

[그림 31] 접근로 폭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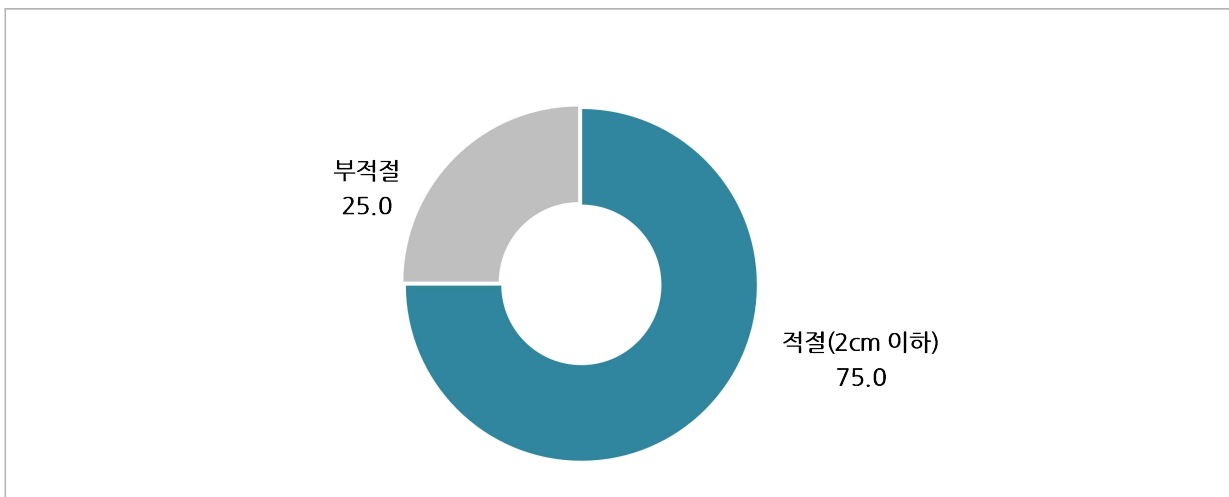
(4) 접근로 단차

▶ 접근로에 단차가 없거나, 2cm이하인지?

- 경기장 진입하는 접근로에 단차가 없거나, 단차가 2cm 이하로 적절한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6개(75.%)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개(25.0%)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접근로 단차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표 38] 장소별 보행로 점검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보행자 안전 이동	접근로와 차도 경계	접근로 폭	접근로 단차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이동 불편	구분 안됨	부적절	적절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3	배구	오트밸리복지센터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이동 불편	구분 안됨	부적절	부적절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이동 불편	구분 안됨	부적절	부적절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이동 가능	구분 안됨	적절	적절

2)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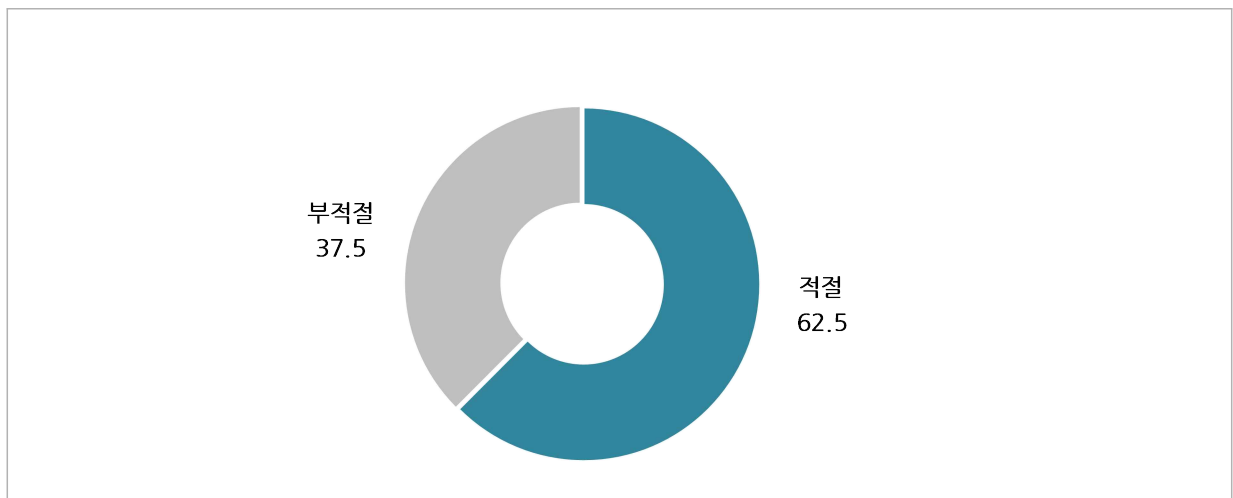
(1) 장애인 주차구역 확인

▶ 주차장 입구에서 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에 적절한지?

-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 되어 있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에 적절한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5개(62.5%)는 적절했으며, 3개(37.5%)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장애인 주차구역 확인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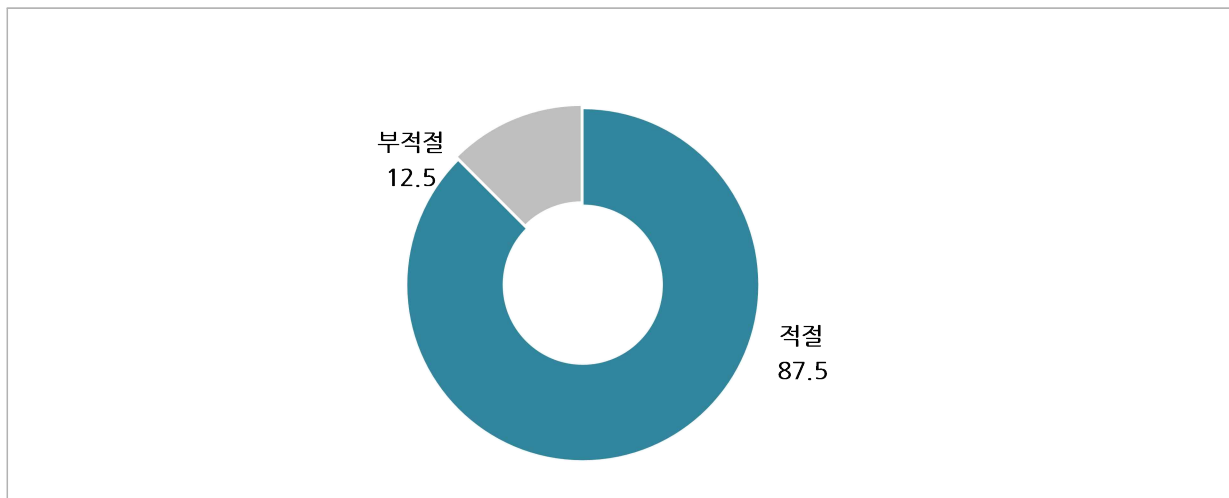
(2) 장애인 주차구역 시행규칙 적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1개 경기장(12.5%)을 제외한 7개 경기장(87.5%)에서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4] 장애인 주차구역 시행규칙 적용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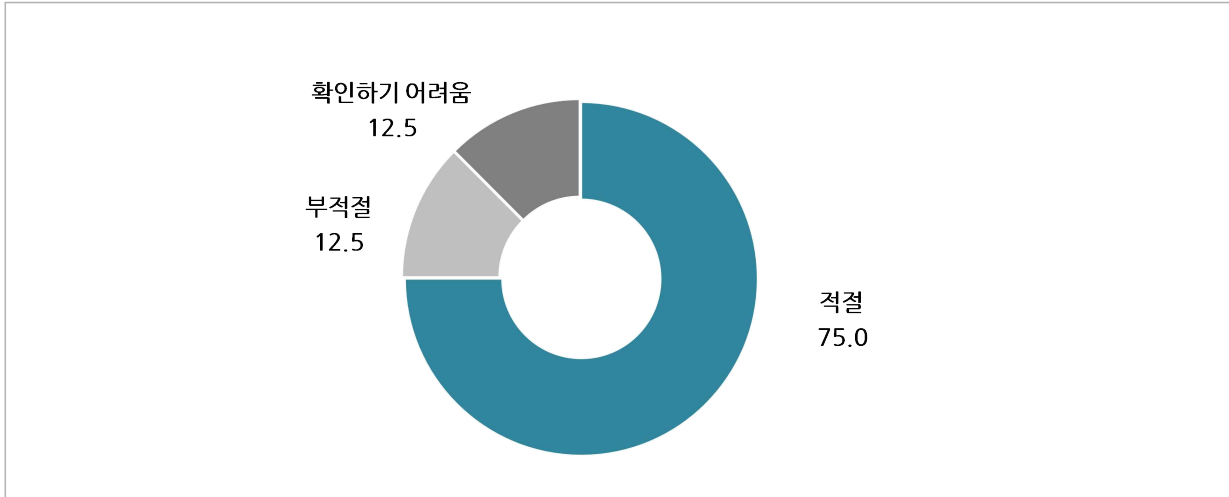
(3) 승강기까지 장애인 통행 적절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경기장 출입구 또는 경기장과 연결되는 승강기까지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적절한 한지?

-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 되어 있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찾기에 적절한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6개(75.0%)는 단차 2cm미만이며 경사로 없는 등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12.5%)는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확인하기 어려움 1회)

[그림 35] 승강기까지 장애인 통행 적절성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표 39] 장소별 자동차 이용 경기장 진입 점검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확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시행규칙 적용	승강기까지 장애인 통행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적절	적절	적절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적절	적절	부적절
3	배구	오도밸리복지센터	부적절	적절	적절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적절	적절	적절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적절	적절	적절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부적절	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적절	부적절	적절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부적절	적절	적절

3) 경기장 내부 진입에 대한 점검

▶ 경기장 내부 경사로의 폭과 기울기가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지?

○ 8개 경기장 모두 경기장 내부 경사로 폭과 기울기가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4)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

- ▶ 승강기 전면에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
- ▶ 장애인이 승강기에 출입하고 내부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 ▶ 승강기 외부, 내부에 승강기 안내, 층수 등에 대한 점자 안내가 되어 있는지?
- ▶ 승강기 외부, 내부에 도착여부·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나 음성신호장치가 있는지?
- ▶ 승강기 층수 조작 버튼에 휠체어용 조작버튼이 있는지 여부(가로식 조작 버튼)?

-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승강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5개 경기장은 모니터링 점검에서 제외함
- 승강기가 있는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울주군민체육관’ 3개 장소 모두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점자 안내 및 음성신호장치, 휠체어용 조작버튼도 확인됨

[표 40] 장소별 경기장 내부 승강기 점검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승강기 설치 여부	활동공간 적절성	공간 충분성	점자 안내	점멸등 및 음성신호 장치	휠체어 용 조작버튼 여부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미설치	-	-	-	-	-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설치	적절	적절	있음	있음	있음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설치	적절	적절	있음	있음	있음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설치	적절	적절	있음	있음	있음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미설치	-	-	-	-	-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미설치	-	-	-	-	-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미설치	-	-	-	-	-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미설치	-	-	-	-	-

5)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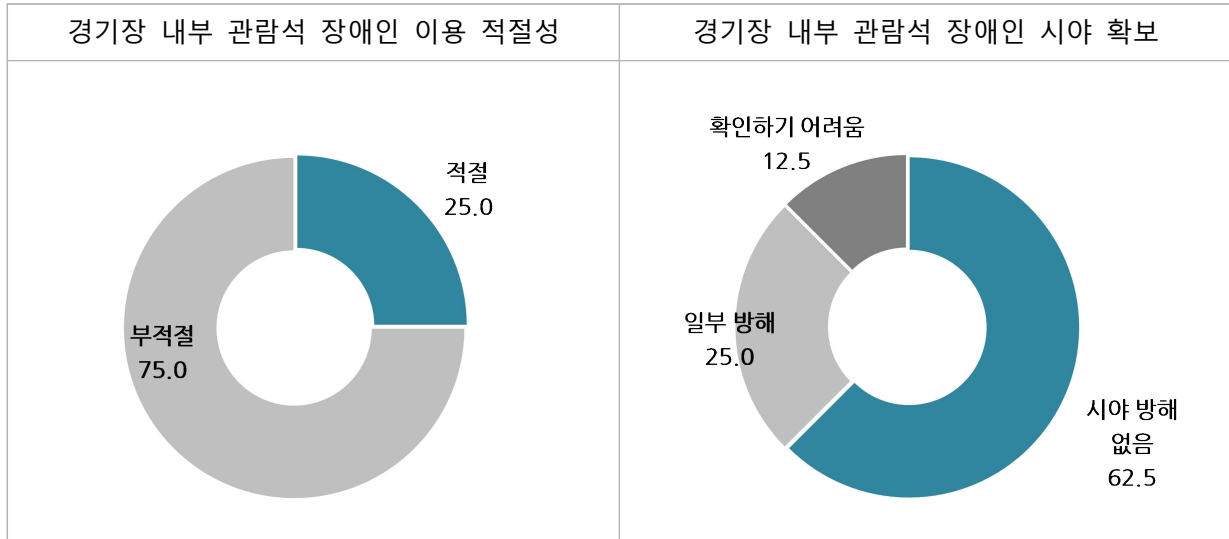
- ▶ 내부 관람석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관람석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지?

- 경기장 내부 관람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한지 모니터링 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2개(25.0%)는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6개(75.0%)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휠체어 이용 시 관람석 장애인 시야 확보는 8개 경기장 중 5개(62.5%)는 시야 방해 없었으며, 2개(25.0%)는 일부 시야 방해가 된 것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1회)

[그림 36]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표 41] 장소별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 내부 관람석 이용 적절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람석 시야 확보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부적절	시야 방해 없음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3	배구	오도밸리복지센터	부적절	시야 방해 없음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부적절	일부 방해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적절	시야 방해 없음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부적절	시야 방해 없음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적절	시야 방해 없음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부적절	일부 방해

6) 경기장 내부 화장실

-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설치 공간이 충분히 넓은지?
- ▶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 손잡이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 ▶ 야외에서 이뤄지는 경기(론볼 등)에서 이동식 화장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 경기장 내부 화장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7개 경기장(87.5%)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자동문이거나, 밖으로 열리는 문, 접이 문, 미닫이 등 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확인하기 어려움 1회)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사용 여부 확인 가능한 장치와 대변기 공간, 손잡이 설치 7개 경기장 모두 설치 확인됨
- 장애인경기대회 6개 종목 중 야외에서 이뤄지는 경기는 축구가 유일했으며, 축구 경기가 개최된 3개 경기장 중 이동식 화장실이 없는 경기장은 1개임(33.3%)

[표 42] 장소별 경기장 내부 화장실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설치	사용여부 확인장치	대변기 공간	손잡이	이동식 화장실설치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적절	있음	넓음	적절	실내경기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적절	있음	넓음	적절	실내경기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적절	있음	넓음	적절	실내경기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움	설치되지 않음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7) 장애인 정보 접근권

- ▶ 장애인이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두 선택)
- ▶ 청각장애인선수대회 경기 현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 장애인이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되어 있는지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해 점검함
- 점자자료와 확대경, 영상전화기 및 문자지원 장치는 8개 경기장 모두 확인되지 않음
- 장애인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경기장은 ‘울산대체육관’ 등 6개 (75.0%), ‘활동보조인 외 안내인’ 있는 경기장은 7개(87.5%)로 확인됨
-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경기장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등 3개(37.5%)로 확인됨

[표 43] 장소별 장애인 정보 접근권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활동보조인	활동보조인 외 안내인	수어통역	점자자료	바코드기재 유인물	확대경	영상전화기 문자지원 장치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O	O	X	X	X	X	X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O	O	O	X	X	X	X
3	배구	오토벨리복지센터	O	O	X	X	X	X	X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O	O	O	X	X	X	X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X	X	X	X	X	X	X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O	O	X	X	X	X	X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X	O	O	X	O	X	X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O	O	X	X	X	X	X

- 청각장애인선수대회 경기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여부는 8개 종목 중 청각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은 ‘휠체어농구’, ‘배구’ 종목은 제외 한 6개 종목에 한해 모니터링 함
- ‘유도’와 ‘태권도’, ‘축구’는 3개 종목은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싸이클’은 수어통역사 배치되지 않았음

[표 44] 장소별 수어통역사 배치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수어통역사 배치
1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배치
2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배치
3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미배치
4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배치
5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배치
6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배치

2.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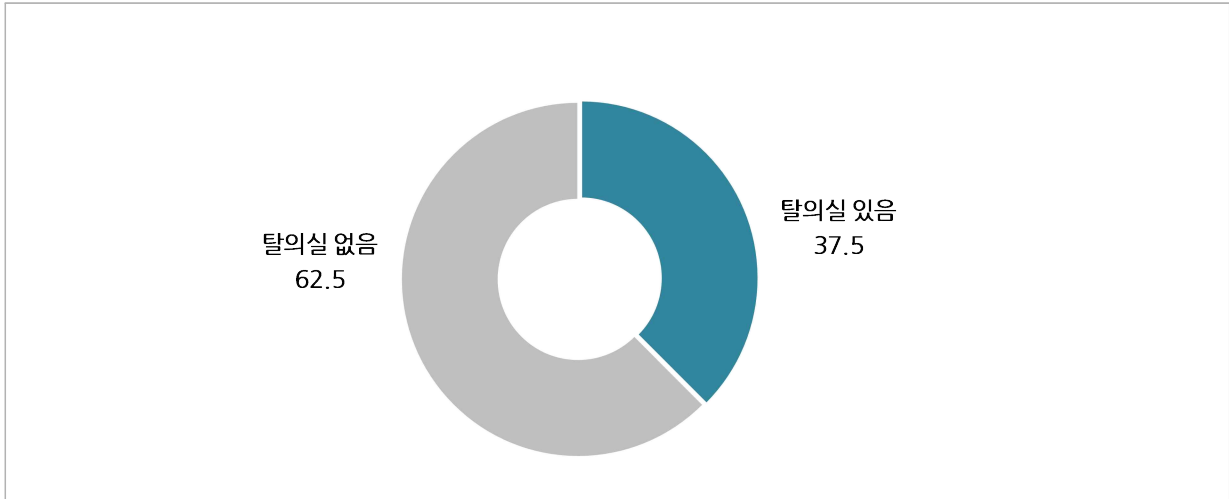
-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1) 탈의실 설치 여부

- 장애인 종목이 개최된 8개 장소 중 탈의실이 있는 경기장은 3개(37.5%)였으며, 5개(62.5%) 경기장은 탈의실 없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7] 탈의실 설치 여부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표 45] 탈의실 미설치 경기장_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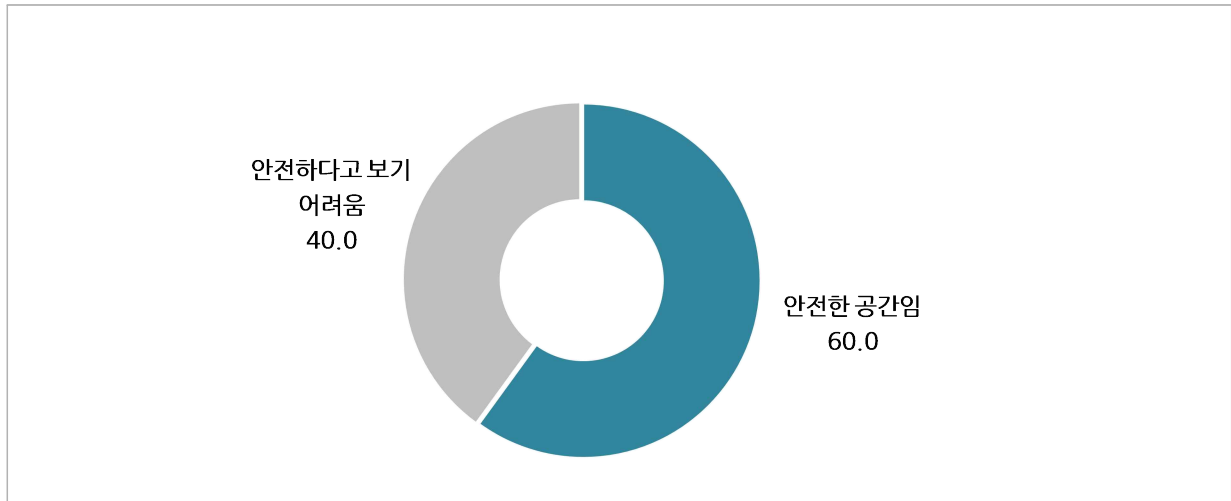
연번	종목	경기장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2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3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4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5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2) 탈의실 안전공간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탈의실 있는 경기장 3개 대상 10회 모니터링 한 결과, 6회(60.0%)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확인된 반면, 4회(40.0%)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됨

[그림 38] 탈의실 안전공간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10회, 단위 : %)



(3) 탈의실 선수이용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탈의실 있는 경기장 3개 대상 10회 모니터링 한 결과, 10회 모두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이성의 활동지원인 출입 가능 여부

- 이성의 활동지원인이 출입 가능한 별도의 탈의실을 운영하는 경기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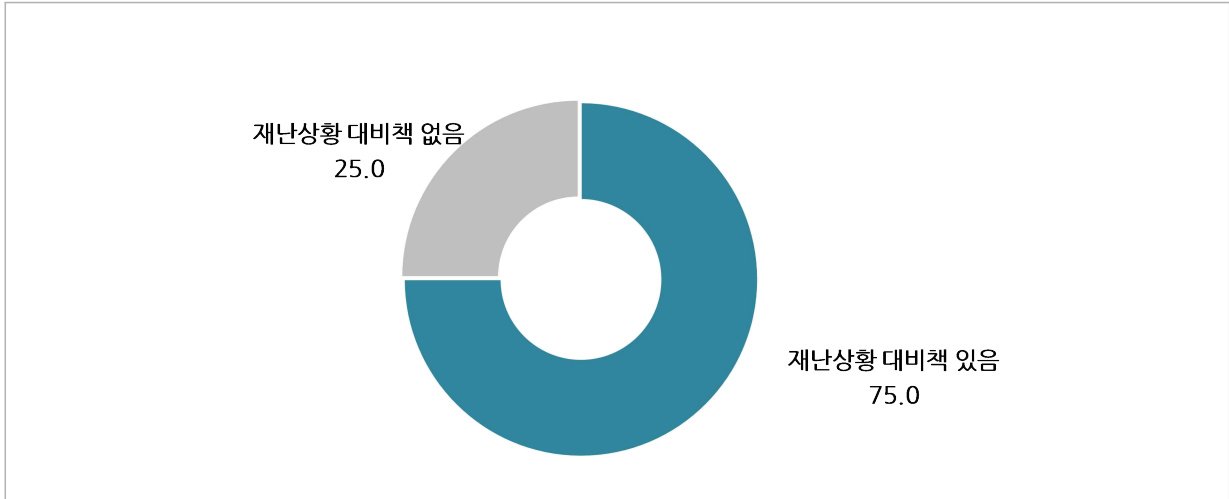
2) 재난상황 대비책

▶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안내도, 대비방법 등의 안내표시가 있는지?

-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안내도, 대비방법 등에 대한 안내표시가 있는 경기장은 6개(75.0%), 재난상황 대비책 없는 경기장은 2개(25.0%)로 나 타남

[그림 39] 재난상황 대비책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3) 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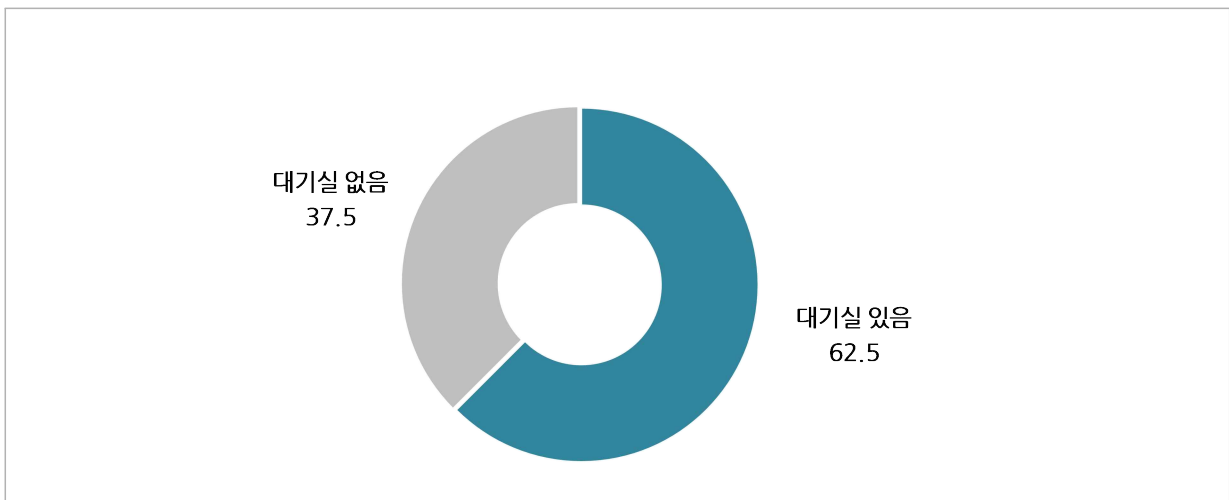
-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1) 대기실 설치 여부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은 5개(62.5%), 없는 경기장은 3개(37.5%)로 나타남

[그림 40] 대기실 설치 여부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장소 8개, 단위 : %)



[표 46] 대기실 미설치 경기장_장애인 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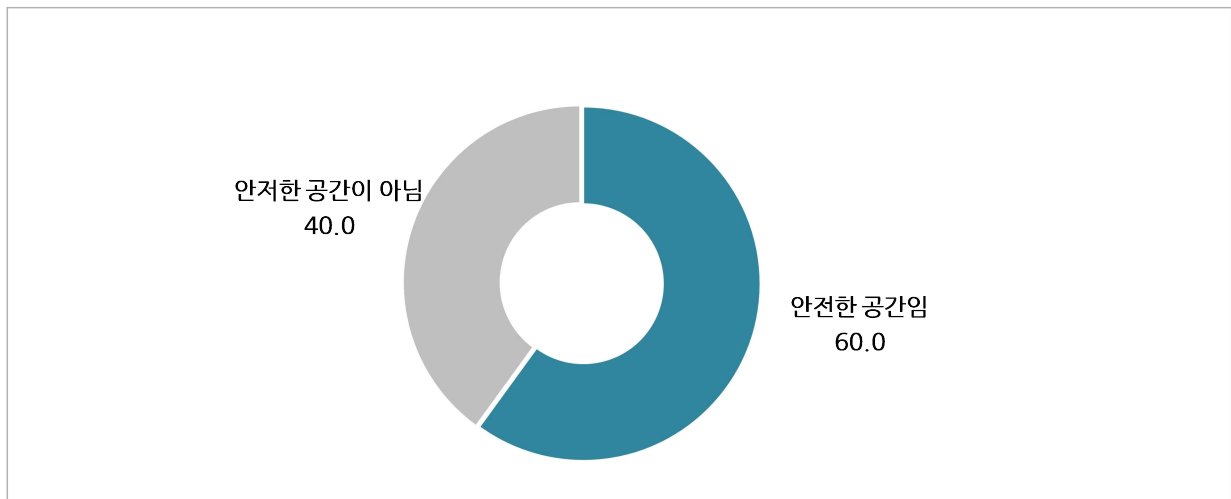
연번	종목	경기장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2) 대기실 안전공간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5개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3개(60.0%)는 안전한 공간으로 확인된 반면, 2개(40.0%)는 안전한 공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그림 41] 대기실 안전공간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5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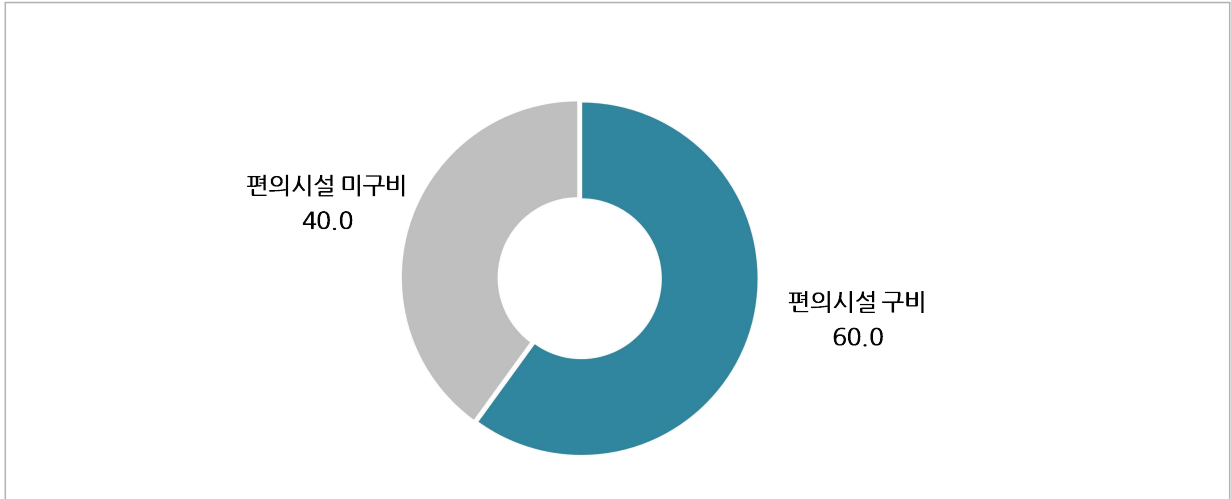


(3) 대기실 편의시설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5개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3개(60.0%)는 편의시설이 구비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2개(40.0%)는 적절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42] 대기실 편의시설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5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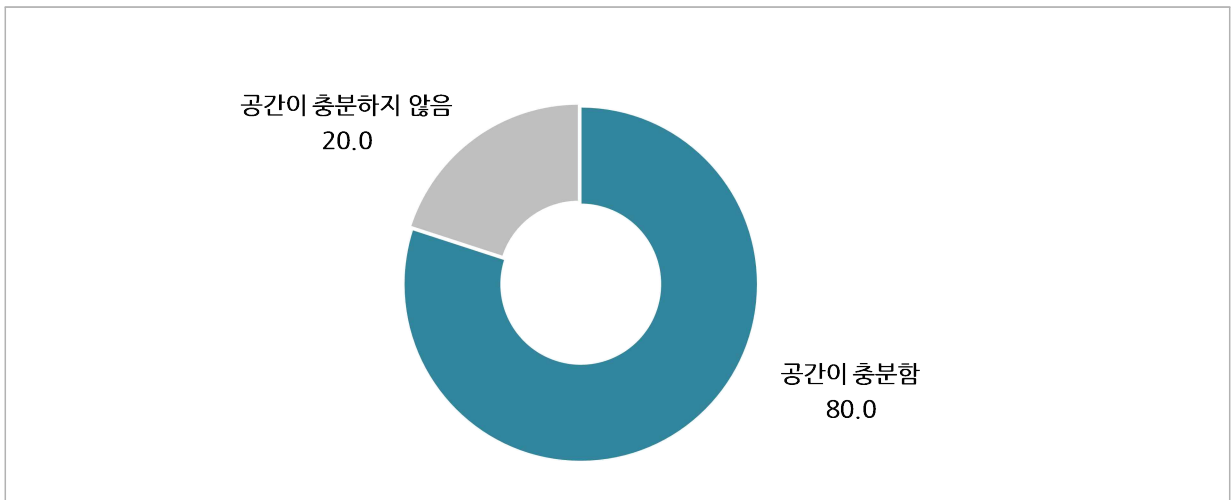


(4) 대기실 공간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5개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4개(80.0%)는 휠체어 등을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1개(20.0%)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3] 대기실 공간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중 대기실 있는 경기장 5개, 단위 : %)



(5) 대기실 남녀분리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5개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3개 경기장은 남자 선수만 참여 하는 경기로 남녀 대기실 분리 필요 없었으며, 남녀과 동반 참여한 경기장 2개 모두 남녀 대기실 분리 된 것으로 확인됨

(6) 대기실 선수 이용 적절성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5개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5개 경기장 모두 선수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7) 대기실 이동성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경기장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5개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5개 경기장 모두 대기실에서 경기장까지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 등이 낮아 이동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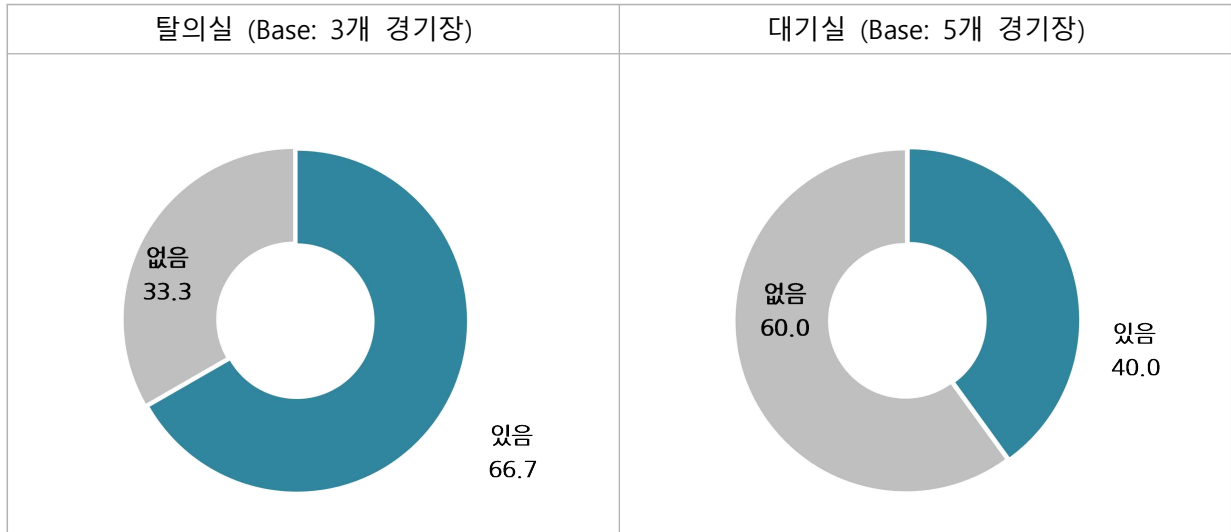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에 대해 탈의실과 대기실, 화장실 3개 공간에 대해 모니터링 함
- 탈의실 있는 경기장 3개 경기장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음 2개(66.7%), 없음 1개(33.3%)로 나타남
-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 5개 경기장 대상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음 2개(40.0%), 없음 3회(60.0%)로 나타남

[그림 4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경기장, 단위 : %)



5) 신고안내물 비치 및 상담실 운영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장소 모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물 비치되지 않았고, 상담실 또한 운영하지 않았음

6)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장소 모두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47] 장소별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_장애인 경기대회

연번	종목	경기장	의료진 대기	구급차 대기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0	0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0	0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0	0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0	0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0	0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0	0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0	0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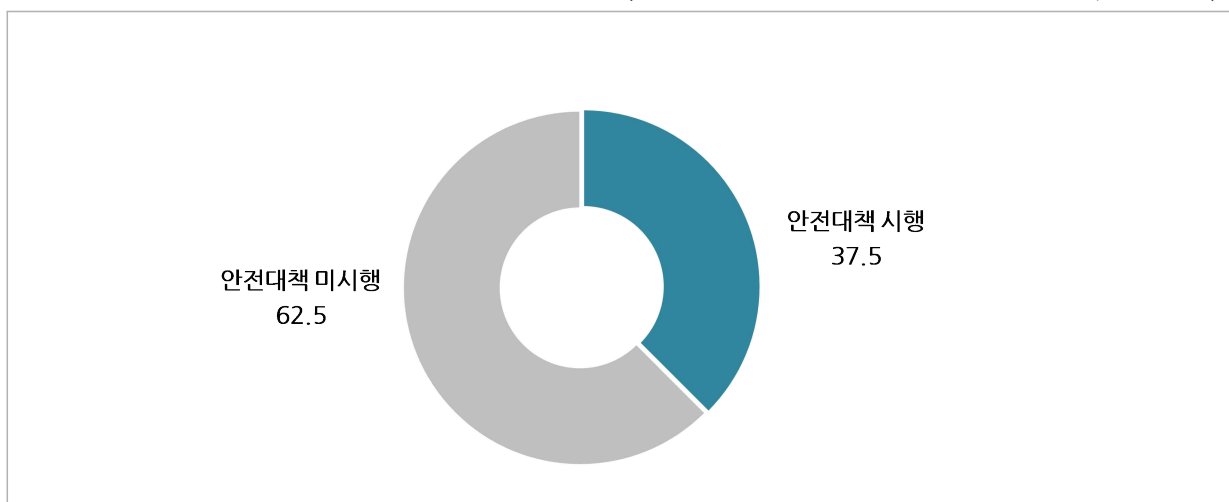
7)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8개 장소에서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장은 3개(37.5%), 시행하지 않은 경기장 5개(62.5%)로 나타남

[그림 45] 재난상황 대비책_장애인 경기대회

(Base: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장소 8개, 단위 : %)



8) 과도한 일정

-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모니터링 중 선수에게 무리 가는 과도한 일정 소화하는 선수 없었음

3.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4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사례 없음 12건(50.0%), 의료조치 시행 12건(50.0%) 있었음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에서 언어 폭력이나, 팀이나 지역을 비하하거나 혐오, 차별하는 발언 하는 사례 없음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에서 선수 대상으로 신체 폭력을 가하는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 성희롱 발언 사례, 불필요한 신체접촉, 특정 신체 촬영 사례 없음

제 3장

대회별 모니터링 결과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3.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4.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12세부)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1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6월 10일 ~ 6월 26일 17일간
- 대회 장소 : 경주베이스볼파크, 포항생활체육야구장
- 대회 종목 : 야구
- 모니터링 횟수 : 10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함을 확인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차량 상태 좋으며 내부 정수시설 있음
- 차량 상태가 좋음. 정수기가 있고 에어컨 잘 가동되고 쾌적함
- 대형버스에 적정 인원 탑승하여 안전하게 이동함

차량 상태



2) 탈의실

-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본 대회가 개최된 '경주베이스볼파크'와 '포항생활체육야구장' 2개 장소 모두 탈의실 운영하지 않았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경주베이스볼파크]

- 탈의실이 없어 유니폼 착용 상태로 경기장 도착함
- 선수들은 숙소에서 유니폼 갈아입고 대회장에 옴. 심판 탈의실은 별도로 있었음
- 유니폼을 입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탈의실 이용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임

3) 대기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경주베이스볼파크’에는 선수 대기실 있었으며, ‘포항생활체육야구장’에는 대기실 없었음
- ‘경주베이스볼파크’ 대기실은 공간이 충분했으며 선수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음
- 경기장과 대기실 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파울볼이 대기실로 날아갈 수 있는 등 선수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보여짐
- 본 대회는 남자 중학생만 참여하는 대회로, 남녀 대기실 분리 필요해 보이지 않음

대기실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경기당일 설치된 듯한 천막과 간이용 의자 비치되어 있었음
- 선수대기석에 소파와 음료 등이 있었으며, 대기 공간 충분함
- 오픈된 공간에 대기실이 외부에서 보이고, 소파 음료 등이 구비되어 있으나 공간은 분리 안됨
- 파울볼이 대기실로 갔을 때 선수들의 안전 보장되지 않음
- 선수들이 락커가 없어 개인물품이나 운동 도구, 가방 등을 관중석 주변 길바닥에 놔두었는데, 락커 비치 필요해 보임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경주베이스볼파크'에는 대기실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상주했으며, 화장실에는 비상벨 있음
- '포항생활체육야구장'에는 관리 인력이나 선수 안전을 위해 발생했을 시 도움 요청 수단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화장실에 비상벨이 있고 관리 인력 상주 중임
 - 관리소 연락처가 있고, 경기장 인근에 관리 인력이 상주함
 - 장애인 화장실 내 비상벨 있었음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폭력·성폭력 등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선수 대기실 안쪽에는 인권침해 대응체계 관련 내용은 없고 선수 규칙만 게시되어 있음

6) 연습 공간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경주베이스볼파크’ 내에는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포항생활체육야구장’ 내에는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연습공간만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경기장 내 연습 장소 별도로 없으며, 일부 선수들은 주차장에서 연습했음
- 연습공간 없이 주차장에서 몸풀기 함
- 외부 주차장이나 이동통로에서 스트레칭하고 있음. 차량 진입 시 또는 야구공이 날아올 경우 다칠 위험이 있음
- 연습공간 부족, 경기장의 펜스가 낮아 야구공을 맞거나 다칠 위험이 있음
- 몸푸는 장소가 별도로 없어 주차장 뒷 편이나 이동통로에서 스트레칭 함. 차량 이동통로는 아니나 사고의 위험이 있어 보임. 야구장 펜스가 낮아 야구공이 날아가서 차량이 손상을 입기도 함
- 경기장에 몸을 풀 수 있는 연습장이 없어서 스파이크 신발을 신고 아스팔트 위에서 땀박질이나 러닝을 하여 선수들 몸에 무리가 갈 것 같음

■ [포항생활체육야구장]

- 연습공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아 일부 선수들은 연습공간 주변에서 연습했음
- 공터에서 몸풀기 연습함

연습공간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경주베이스볼파크’와 ‘포항생활체육야구장’ 2개 경기장 내 모두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경주베이스볼파크]

- 의료진 상시 대기 중
- 구급차가 대기 중이나, 침상이나 들것이 하나뿐이라 다수가 다치는 경우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 보임

의료진



구급차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 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경기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소요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하고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경주베이스볼파크]

- 진행요원이 외부인 출입통제와 위험물 등을 수시로 확인함
- 경기장 주차장 진입 시 주차요원이 신원확인 했으며, 경기장 내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음
- 소방요원 대기하고 있었음

9) 과도한 일정

-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경주베이스볼파크'에서 진행된 12시~17시 경기는 대회 당일 35도가 넘는 상황에서 경기를 뛰어야 하는 중학생 선수들에게 무리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짐

주요 모니터링 내용

[경주베이스볼파크]

- 12시에서 17시까지 경기가 열렸고, 대회 당일 35도가 넘었는데, 어린 학생 선수들에게는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됨. 일정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오전이나 저녁 경기를 추천함
- 대회 중간 쉬는 시간 있음. 4회 시작 전에는 경기장 정리 겸 휴식 진행함
- 진행 중 과도한 응원으로 목이 살짝 쉰 선수 한 명 발견. 팀 관계없이 응원 많음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10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사례 없음 5건, 의료조치 시행 3건, 의료조치 미 시행 2건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경기 중 선수가 볼에 맞아 쓰러지자 의료진이 급히 뛰어가 조치 취함
- 선수가 경기 도중 볼에 맞아 쓰러지자 의료요원이 신속하게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응급조치함
- 슬라이딩으로 인한 충돌 시 의료진이 즉시 투입되었으나, 별도 조치 없이 확인 후 경기 진행함
- 데드볼을 맞는 선수는 있었으나, 의료행위는 없었음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언어 폭력 사례 없음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신체 폭력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음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선수들이 직접 도구와 연습 물품, 경기에 필요한 물품을 옮김
- 왜소한 체구의 학생이 자신 몸의 반 이상에 해당하는 가방(3개)을 짊어지고 이동함
- 대기실 뒤 선수들이 지나가는 계단 쪽에서 감독이나 관람객이 담배, 전자담배를 피움

3. 기타 확인사항

1) 숙박 장소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 참여한 모든 중학생 선수들이 숙박하기 적절한 콘도와 유스호스텔, 호텔에 숙박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주베이스볼파크]
 - 한화리조트 등 숙박하기 적절한 곳을 이용함
 - 신라유스호스텔, 성호리조트 등 적절한 곳에서 숙박함
- [포항생활체육야구장]
 - 호텔 또는 콘도 등 적절한 곳에서 숙박함

숙박 장소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본 대회는 남자 중학생 선수만 참여하는 경기로, 숙박 장소에서 남녀 분리는 필요하지 않음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동성의 보호자인 감독관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함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주전 선수로 뛰지 않고 응원하는 선수는 있었으나, 자발적 참석으로 확인함

2

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6월 22일 ~ 6월 25일 4일간
- 대회 장소 :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 대회 종목 : 육상
- 모니터링 횟수 : 6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함을 확인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00고 육상부, 000시청 육상선수단, 00시청 육상선수 이용하는 버스 모두 양호함
- 버스를 이용하여 숙소에서 경기장으로 이동, 차량 상태 양호하며 인원 과적 없었음

차량 상태



2) 탈의실

-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본 대회가 개최된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내에는 탈의실 운영하지 않았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텐트를 치고 탈의실로 사용함
- 경기 후 선수 대기실에서 옷 갈아입음. 탈의실 별도로 없었음
- 소속마다 일반 텐트를 치고 탈의실로 사용함
- 별도로 탈의실 건물이 없으며, 텐트를 쳐서 옷을 갈아입음
- 대기실이라고 적혀 있으나 선수들이 야외에서 옷을 교환해서 입고 있는 상황임

3) 대기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경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 있었으며, 대기실 공간은 충분했으며 선수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었음. 남녀 대기실 분리되지 않았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운동장 연습공간에 대기석이 배치되어 있음
- 야외, 천막형 대기실임. 별다른 편의시설 없이 의자에 쉴 수 있게 되어있음. 남녀 분리되어 있지 않은 혼성 대기실임. 무료로 음료 제공하고 있음
- 천막 구조이며 소화기가 없었고, 남녀 구분 없음. 상의는 대기실에서 갈아입음
- 대기실은 천막, 의자만 있음. 선수들은 경기장 주변으로 천막 및 텐트, 돛자리를 대기시설,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
- 캐노피나 돛자리를 쳐 놓고 앉아서 쉬고 있었음. 짐 보관 등 대기실에 사람 없는 경우 있어 분실 위험 있음
- 선수 대기실이 야외에 있고 대기실 근처에서 흡연 하는 사람들 있었음 (소방관, 학부형 등). 대기실 남녀 분리 안 되어 있는 곳 있었음

대기실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에는 대기실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상주했으며, 화장실에는 선수 안전을 위해 발생했을 시 도움 요청 수단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여자 화장실 내 비상벨 없음. 화장실이나 대기실 주변에 담당자 있었음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폭력·성폭력 등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신고 안내물은 비치하고 있었으며, 상담실 운영은 하지 않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책자에 신고안내문 있음
- 소방시설 및 지진 대비 안내, 비상구 등 표지판은 있지만 폭력, 성폭력 대응할 수 있는 상담실은 없었음

6) 연습 공간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내에는 안전하고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는 연습 공간 마련되어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운동장 하나를 연습용 겸 대기실로 마련해 둬. 실내 공간이 있으면 체력 관리에 더 좋았을 것 같음
- 경기장 밖 트랙에서 선수들이 연습할 공간 있음
- 연습할 수 있는 인조잔디 경기장 있음
- 2층 복도(사람의 왕래가 적음)에서 연습하고 있는 선수들 있었음
- 경기장은 넓었고, 별도로 연습이 가능한 대운동장이 있어서 선수들의 분리가 잘 되었음
- 경기 중 우천으로 실외 연습공간을 사용하지 못함. 실내 공간이 없었음

연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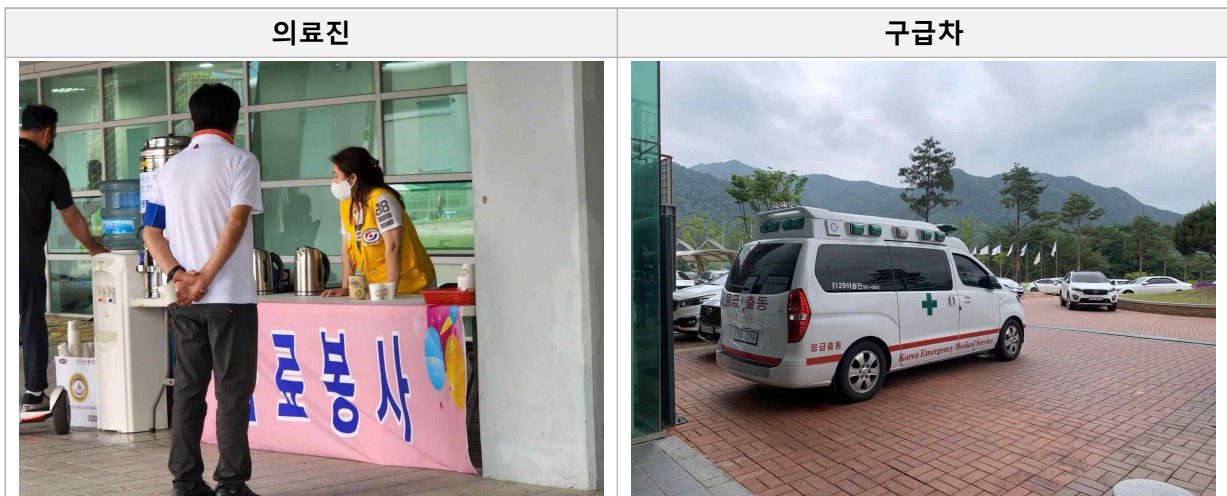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정선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내에는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의료진 대기하고 있음
- 구급차 상시 대기 중, 의료진 차 안에서 대기함
- 의료진은 경기장 시설 안쪽에 대기하고 있으며, 구급차는 경기장 바깥쪽과 경기장 복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음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경기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소요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하고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기장 곳곳에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음
- 안전요원을 출입구마다 배치하고 있었음
- 소방관 상시 대기 중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9) 과도한 일정

-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과도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 없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선수들이 휴식공간에서 휴식 취하고 있음
- 선수들이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있음. 심판에게도 확인해보니 휴식시간 충분하다고 함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6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사례 없음 2건, 의료조치 시행 4건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부상당 한 선수에게 바로 찜질과 스포츠 마사지 등으로 부상 치료함
- 부상 시, 구급차로 이동함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언어 폭력 사례 없음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신체 폭력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음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실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 상당히 더워 보였음. (냉풍기라도 비치하면 개선될 듯함)

3. 기타 확인사항

1) 숙박 장소

-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이 숙박하기 적절한 콘도와 유스호스텔, 호텔에 숙박함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메이힐스 리조트, 2층, 4층 숙박 중
- 일반 콘도형 숙박시설
- 사북 스마트호텔에서 숙박함

숙박 장소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숙박 장소는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여자는 2층, 남자는 3층으로 분리
- 여자 2층, 남자는 3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음
- 남자는 4층, 여자는 2층 사용
- 3층 남자선수, 5층 여자선수 사용함. 객실도 분리되어 있었음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동성의 보호자인 감독관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함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주전 선수로 뛰지 않고 응원하는 선수는 있었으나, 자발적 참석으로 확인함

3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7월 16일 ~ 7월 24일 9일간
- 대회 장소 :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 대회 종목 : 핸드볼
- 모니터링 횟수 : 8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함을 확인함

차량 상태



2) 탈의실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본 대회가 개최된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세 개 장소 모두 탈의실 있음
- 탈의실은 있으나 탈의실 부족으로 선수들이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관중석 중간에 탈의실 위치해 있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 경기장 내 탈의실 있음. 하지만 레슬링장 내에 있는 탈의실로 선수들이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임. 간이 탈의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지는 의문이 들 정도로 경기장 구석에 위치함
- 간이 탈의실 칸막이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음. 화장실에서 탈의하는 것으로 확인함
- 경기장 관중석 위에 간이 탈의실 2곳 있음
- 별도로 마련된 탈의실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화장실을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었음
- 탈의실은 간이 이동식이었으며 휴게실에서 탈의하거나, 선수복을 숙소에서 입고 오기도 함
- 탈의실 관중석 뒤편에 1개 마련되어 있었고, 천막으로 된 간이 탈의실이라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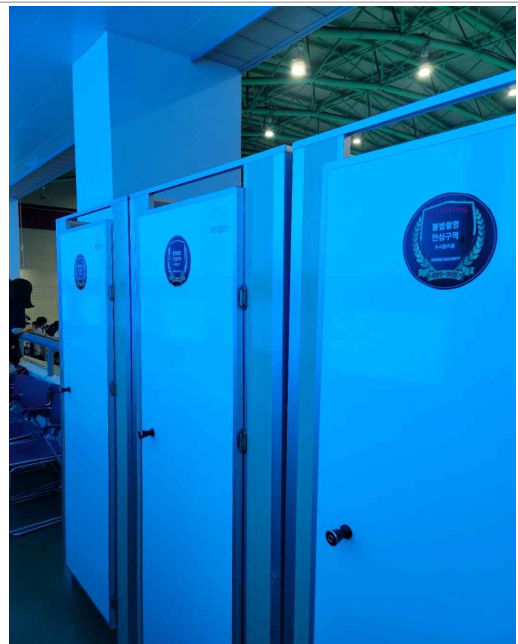
■ [황지정산고]

- 경기장 내 탈의실 있으나 3개만 있어 많은 선수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족해 보임
- 탈의실 있음. 관중석 중간에 있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체육관 외부 한켠에 천막을 쳐두어 대기실 겸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었음. 체육관 내부 2층 중앙에 세 칸으로 구분된 탈의실 있었음

■ [세연중학교]

- 탈의실 없었음

탈의실



3) 대기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본 대회가 개최된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세 개 장소 모두 대기실 있음
- ‘고원체육관’ 선수 대기실 두 곳 중 한 곳은 심판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한 곳 또한 잠금 장치로 시정되어 있어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았음
- ‘황지정산고’와 ‘세연중학교’는 천막으로 만들어진 대기실을 사용함. 외부 오픈된 공간에 있어 선수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남녀 대기실 또한 분리되지 않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 선수 대기실이 두 곳 있었음. 하지만 선수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두 곳 중 한 곳은 심판실로 사용함
- 대기 공간이 있었으나, 사용하는 선수는 없고 경기장 외부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여 연습 중이었음
- 실내복도 1층에 대기실과 연습공간 있음
- 선수 대기실 개 중 1개는 심판실로 사용함. 다른 한 곳은 잠겨 있어 열리지 않음

■ [황지정산고]

- 선수들이 실외 천막에서 대기함
- 대기 공간이 외부 오픈 공간에 있어 안전하지 않았고, 편의시설이 없었고, 남녀 분리되지 않았음
- 체육관 외부 한켠에 천막을 펼쳐 놓아 대기실 겸 탈의실로 사용하고 있었음

■ [세연중학교]

- 선수들이 천막에서 대기함
- 외부에 천막으로 지어진 대기 공간 있었음. 오픈 공간으로 안전하지 않았고, 편의시설은 없었고, 남녀 대기실 분리되지 않았음
- 야외 간이천막 사용함

대기실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고원체육관'에는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관리 인력이 상주했으며, 화장실에는 비상벨 있음
- '황지정산고'와 '세연중학교'에는 관리 인력이나 선수 안전을 위해 발생했을 시 도움 요청 수단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 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있음
- [황지정산고] 없음
- [세연중학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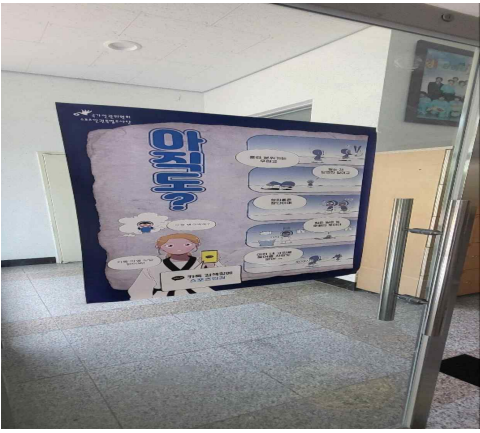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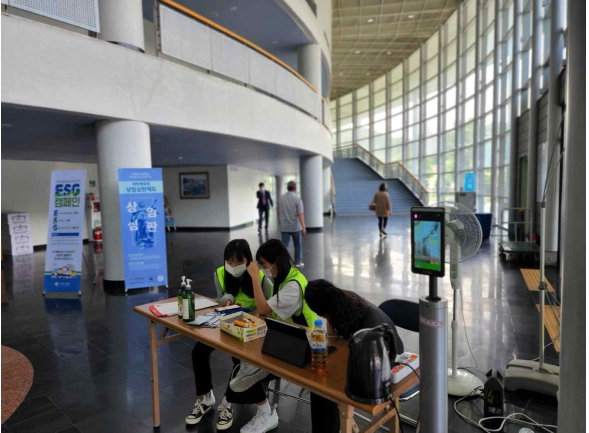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비치·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폭력·성폭력 등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신고 안내물 비치 부착 없음. 상담실 운영 및 안내도 없음
- [황지정산고] 신고 안내물 비치 부착 없음. 상담실 운영 및 안내도 없음
- [세연중학교] 문 앞에 신고 안내물 부착되어 있었음

신고 안내물 비치·부착	상담실 운영 및 안내
	

6) 연습 공간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모두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 경기장 내 별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음. 선수들이 실내 복도나 경기장 밖 야외에서 연습하고 있었음
- 경기장 내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었으며, 경기장 주변 복도와 주차장이 아닌 테두리 공간에서 몸을 풀거나 연습하고 있어 관람객들이 지나가거나 할 때 불편함이 보였음
- 연습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내와 실외 공간에서 연습함
- 체육관 내부 공간(경기장X)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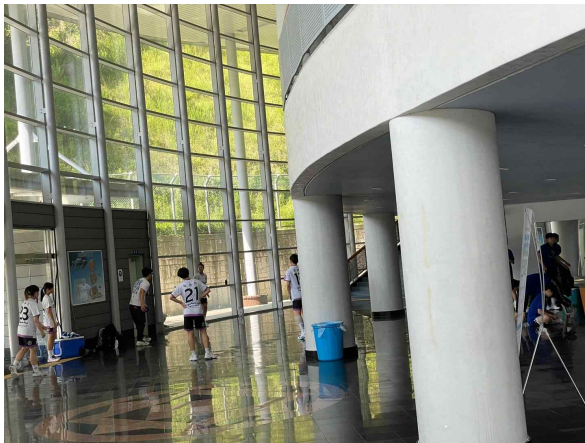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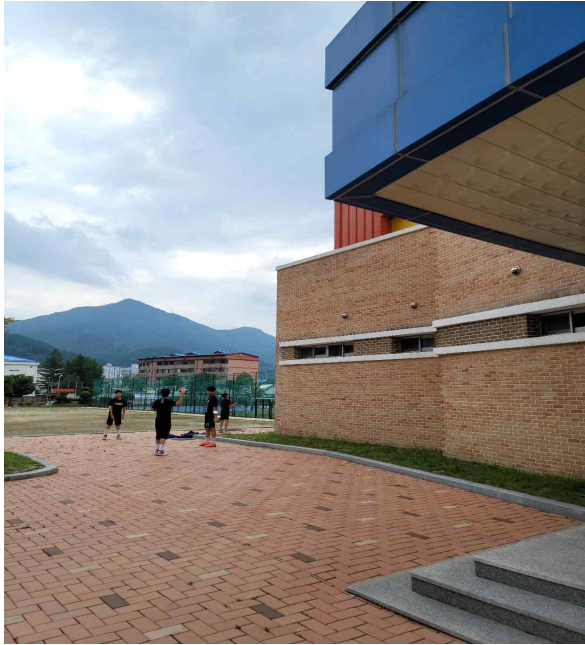
■ [황지정산고]

- 연습공간은 별도로 없고, 야외에서 연습함
- 외부에 천막으로 지어진 연습공간 있음
- 외부천막 사용,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1층 로비를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함

■ [세연중학교]

- 연습공간은 별도로 없고, 야외에서 연습함
- 연습공간은 별도로 없었고, 건물 외부 빈 공간에서 연습함
- 야외 운동장 옆 공간, 천막 옆 공간에서 개인 연습

연습 공간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3개 경기장 모두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모두 의료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음
- 구급차 대기하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경기장 내에서 대기 중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경기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소요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하고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고원체육관, 황지정산고, 세연중학교 모두 초록색 옷을 입은 안전요원이 경기장 관리하고 있었음
- 세 곳 모두 비상탈출구와 안전요원 배치되어 있었음

9) 과도한 일정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과도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연습하는 모습을 보임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사례 없었음

2) 언어 폭력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8회 모니터링 중, 언어 폭력 사례 2회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여 → 여
내용 : 욕은 하지 않았지만, 선수를 불러 지시하는데 언성이 높았음
-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남
내용 : 감독이 선수에게 소리 지름 (야! 똑바로 해)

3) 신체 폭력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신체 폭력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음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기장에서 선수들에게 큰 소리 치는 경우는 있었으나, 모욕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아니었음
- 감독, 코치가 선수들에게 큰 소리 치거나 하는 행위는 하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언성과 행동은 아님
- 감독 및 코치의 언성이 높긴 했으나 언어적 폭력, 성희롱 및 성폭력, 신체 폭력은 보이지 않았음
- 언성은 높였으나, 폭력이나 언어, 수치심을 느낄만한 사례는 없었음

3. 기타 확인사항

1) 숙박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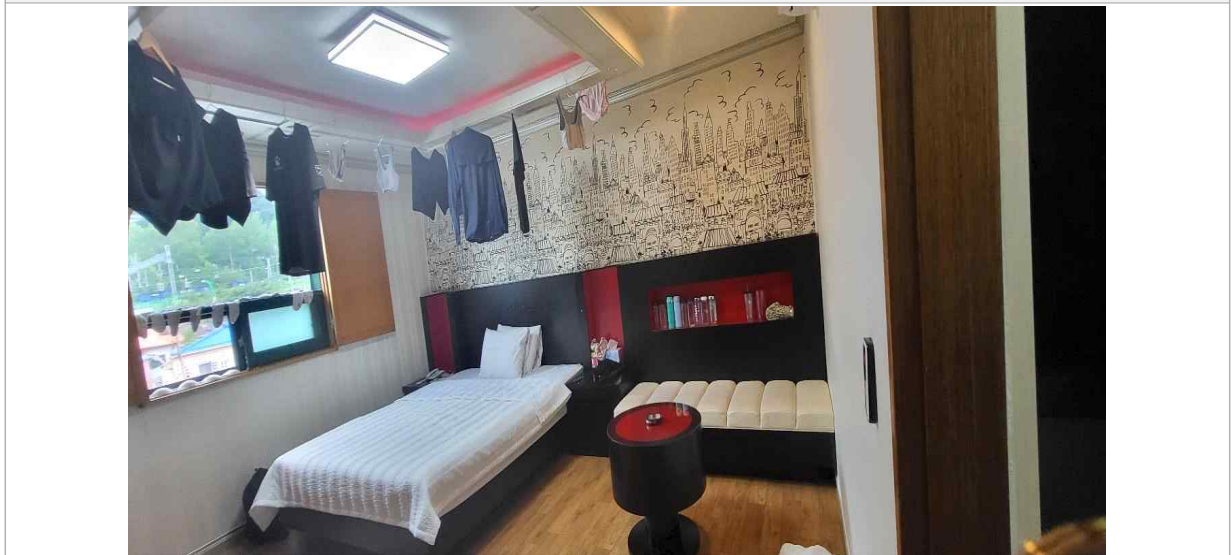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숙박하기 적절한 장소에서 숙박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8회 모니터링 중 확인 어려움 2건, 호텔 등 적절한 곳에서 숙박 3건, 모텔 등 부적절한 곳에서 숙박 3건 확인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택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숙박하고 있음 (청소년 수련원 2층)
- 모텔이었으나, 모텔이 2개동이었으며 작은 한 동에 선수들이 묵고 있어 외부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고원체육관(00중학교) 알프스 모텔에서 숙박함. 여자 선수들만 사용(방 3개) + 코치 1분(남성). 1개 방에 3명씩 사용하고 있었음
- 모텔에서 숙박함. 한 동을 모두 선수와 감독, 코치, 부모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음
-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박하는 학교도 있었으나 대부분 모텔에서 숙박 이루어짐
- 핸드볼 중고등부 최종 결승전이었고, 오전에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온 상태라 경기 끝나고 식사 후 목적지로 출발하는 관계로 숙소 확인하기 어려움

숙박 장소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숙박 장소가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여자선수, 남자선수 단체별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숙소에 혼성숙박을 하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음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동성의 보호자인 감독관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함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주전 선수로 뛰지 않고 응원하는 선수는 있었으나, 자발적 참석으로 확인함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단체로 행동하고 움직이며, 운동연습이나 관람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고 보긴 어려웠음

4

제77회 전국남녀종별농구선수권대회



|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7월 22일 ~ 8월 1일 11일간
- 대회 장소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영광홍농초등학교 체육관
- 대회 종목 : 농구
- 모니터링 횟수 : 10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10회 모니터링 중 9회는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했으나, 1회는 인원 과다 탑승하여 이동함을 확인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카니발, 45인승 버스, 25인승 버스, 15인승 버스, 적정인원 승차함
- 대형버스나 SUV 차량으로 이동하며 노후 된 차량 없음
- 학교제공 교통수단 7인승에 5명 탑승함. 나머지 선수들은 부모님과 함께 경기장으로 이동. OO중학교의 경우 40인승 버스에 탑승해서 이동함. OO중의 경우 12인승 승합차에 9명 탑승함
- 신형 카니발 1대에 선수 8명 탑승함. 스타렉스 1대 선수 6명 탑승함
- 깨끗한 차량을 이용해서 경기장으로 이동함. 복잡해 보이지 않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탑승하고 이동함
- 검은색 벤에 초등학생 선수들과 코치 포함하여 14명 탑승. 차량이 크고 편안해 보임
- 검은색 9인승 차에 13명 탑승함. 초등학생이지만 좁을듯함. 15인승 미니버스에 14명 탑승함

차량 상태



2) 탈의실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본 대회가 개최된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관’,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은 탈의실 있으나, ‘영광법성고등학교 체육관’, ‘영광홍농초등학교 체육관’은 탈의실 운영하지 않았음
- 탈의실이 있는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관’과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은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는 안전한 공간이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관, 보조체육관]

- 탈의실 내 개인 락카, 샤워실 갖춰져 있었음
- 청소는 미흡하나 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임. 샤워 공간도 넓고 깨끗했음
- 유니폼 입은 채로 경기장 관중석에서 대기 중인 선수도 있고, 탈의실 이용하는 선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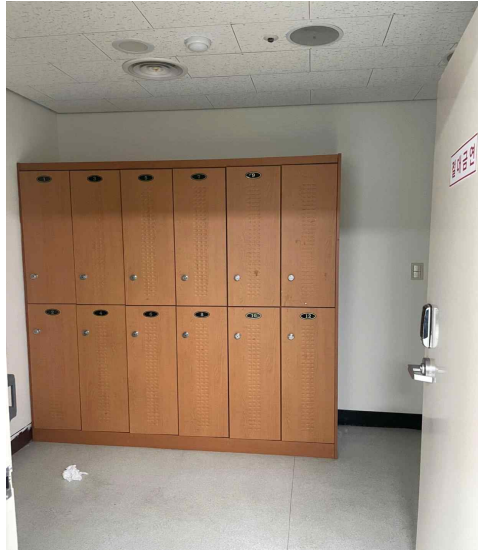
■ [영광법성고등학교]

- 숙소나 개인 집에서 유니폼을 입은 후 경기장에서는 관중석에서 신발만 선수경기용으로 갈아 신고 경기 출전함
-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다고 함

■ [영광홍농초등학교]

- 운동복 차림으로 경기장으로 이동함. 관중석에서 대기 후 출전함

탈의실



3) 대기실

-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4개 장소 모두 선수 대기실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 관중석 또는 실내 복도에서 대기함. 소화기, 비상구 표시 등 완비. 대기실은 공간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음
- 보조경기장 이어서인지, 경기장과 관람석, 화장실 시설만 있음. 선수 대기실은 별도로 없고 관람석을 이용하고 있었음
- 실내 보조경기장 입구에 선수들이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나 가방 등을 두고 있었음. 물품 보관실이 별도로 없었음. 관람석에 개인물품을 두기도 함

■ [영광법성고등학교]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없어 2층 응원석이나 출입구 앞, 건물 밖 야외텐트 임시 의자 등에서 대기하고 있음

■ [영광홍농초등학교]

- 경기장 밖에서 대기 또는 관중석에서 대기함
- 경기장 내 대기실 없고, 관중석에서 경기 관람하여 대기함

대기실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4개 장소 모두 관리 인력이나 선수 안전을 위해 발생했을 시 도움 요청 수단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비상벨 또는 도움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음
- 탈의실이나 대기실은 도움 요청 수단 여부 확인할 수 없음. 화장실은 도움 요청 수단 없음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 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와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은 신고 안내물은 비치하지 않았으나, 상담실은 운영하고 있었음

○ ‘영광홍농초등학교’는 신고 안내물은 비치했으나, 상담실은 운영하지 않음

- ‘영광법성고등학교’는 폭력·성폭력 등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모든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보조체육관]
 - 민원실 공간 있지만, 상담원은 없었음
- [영광홍농초등학교]
 - 신고안내문과 상담실 없었고, 대응을 위한 체계는 있음
 - 경기장 입구에 스포츠인권센터,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 번호 부착되어 있음
- [영광법성고등학교]
 - 신고안내문과 상담실 없었고, 대응을 위한 체계는 있음

6) 연습 공간

-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4개 경기장 모두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보조체육관]
 - 경기출전 전 연습한 후 경기장에서 경기 시작함
 - 비가 내리고 있어 복도에서 런닝 연습하는 경우 있음
- [영광홍농초등학교]
 - 학교 운동장에 농구 코드가 있었지만 더운 날씨 때문에 이용하지 않고 내부에서 몸풀기 운동 하고있는 것으로 보임
- [영광법성고등학교]
 - 경기장 외에서 런닝 등 스트레칭만 할 수 있었음
 - 대부분 야외 빈 공간에서 공으로 연습하거나 실내 빈 공간(출입구 현관) 2층 응원실 등에서 연습하고, 전팀 경기 종료 후 잠시 실내체육관 이용하여 연습함

연습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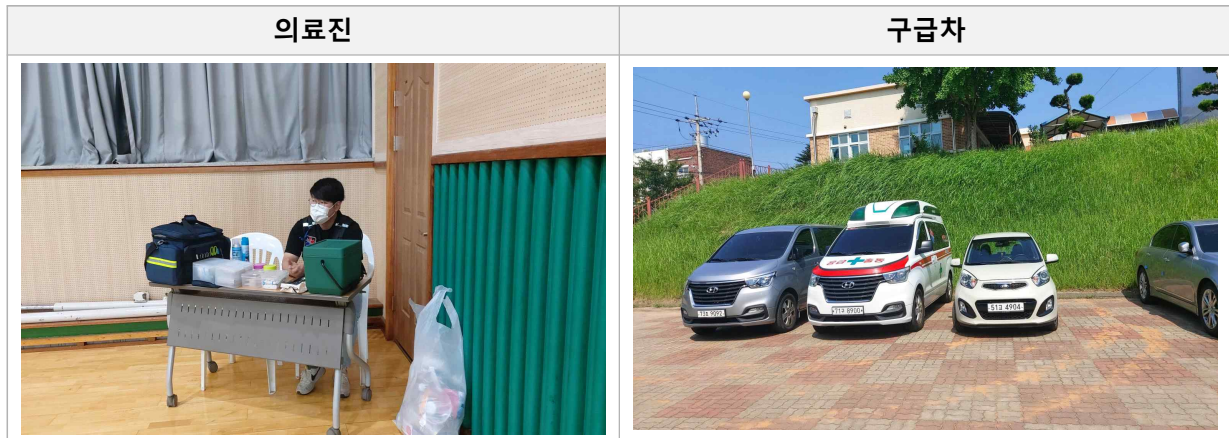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4개 경기장 모두 의료진은 대기하고 있었으나, '영광법성고등학교'를 제외한 3개 대회 장소에서는 구급차 확인할 수 없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 보조체육관]
 - 의료진은 상시 대기하고 있으나 구급차는 없음
 - 의료진처럼 보이지 않았으나 (사복착용) 선수(출전 선수는 아님) 다쳐서 의료진이 치료해 주었음
- [영광법성고등학교]
 - 구급차, 의료진 모두 대기함
 - 의료진이 계속 대기하고 있었고, 구급차는 출입구 정면에 대기하고 있었음
- [영광홍농초등학교]
 - 경기장 내에 구급상자를 구비해 놓고 의료진 1명 대기하고 있음. 구급차는 보이지 않음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경기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소요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모니터링 10회 중 안전대책 없음 7건, 안전대책 시행 3건으로 나타남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기장 내외곽 순찰 요원 없음
- 안내위원(남,녀) 2명이 출입문 앞에 있었고 다른 2명이 경기장 내외를 점검하고 다녔음

9) 과도한 일정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과도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 없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무더위에 충분한 에어컨 시설 있음. 경기시간 준수함
- 쉬는 시간에 타이머 맞춰서 진행함
- 경기 종료 후 바로 휴식하러 이동함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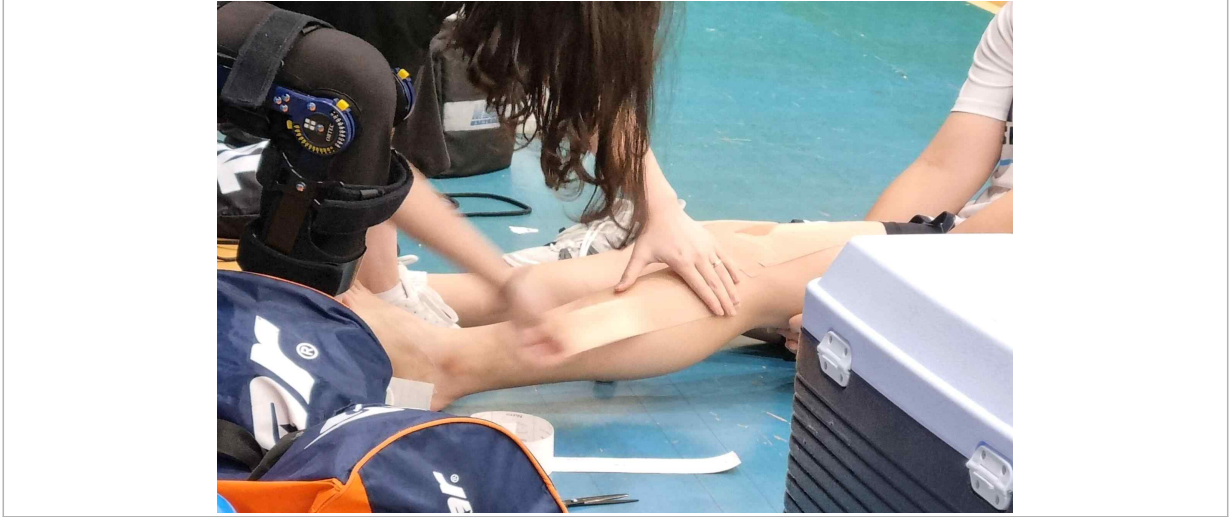
-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10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 사례 없음 4건, 의료조치 시행 6건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의사 상시 대기 하고 부상 없었음
- 대기 중인 의료진이 즉시 스프레이 분사 및 이상 유무 확인함 (찰과상 부위 테이핑 실시)
- 출전 선수는 아니나 다른 선수가 다쳐서 왔을 때 치료해 주었음
- 경기장 내 부상 부위 테이핑 해주는 경우 있었음
- 크게 다친 상황은 없었으나 가볍게 넘어진 선수에게 파스 뿌려줌

의료조치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10회 모니터링 중, 언어 폭력 사례 4회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남
내용 : 감독님이 지시하면서 선수들에게 "아씨" 등 짜증 섞인 말투 사용함
-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여 → 여
내용 : 작전 타임에 감독이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냄.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나 선수들이 고개 숙이고 들음
-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남
내용 : 코치가 경기 중에 지고 있는 팀 선수에게 큰 소리로 고함쳐서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코치를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코치, 감독보다 한 분이 초등학생들에게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음
-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남
내용 : 감독이 선수에게 작전시간과 쉬는 시간에 "XX끼, 3학년이나 되서 정신 못차려? 그렇게 해서 대졸 후 갈도 하겠다" 등 다소 거친 표현 사용함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신체 폭력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음

3. 기타 확인사항

1) 숙박 장소

-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10회 모니터링 중, 숙박시설 확인 어려움 5건, 모텔 등 부적절한 장소 숙박 5건 확인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영광군 주변 모텔, 펜션, 한옥펜션 등 다양하게 숙박시설 이용함 (군 지역이라 호텔 등 시설은 없었음)
- 영광 주변에 유스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이 없어 모텔이나 펜션, 한옥펜션 등 다양하게 숙박함
- 부모님들과 함께 모텔에 숙박함. 중학생이란 특성상 학부모의 관심과 보호의식 때문에 단체 숙박은 하지 않는다고 함(학부모 의견). OO중학교는 대형방 9명, 소형방 3명 숙박함. 같은 숙박업소 내 학부모 함께 투숙함
- 영광지역에 유스호스텔이 부족하여 모텔에서 숙박하고 있었지만, 준 호텔급이라 만족한다고 학부모에게 확인함
- 영광군에는 유스호스텔이나 호텔이 없어 모텔이나 펜션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음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숙박 장소가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음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동성의 보호자인 감독관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함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주전 선수로 뛰지 않고 응원하는 선수는 있었으나, 자발적 참석으로 확인함

5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10,12세부)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8월 23일 ~ 8월 28일 6일간
- 대회 장소 : 양구테니스파크, 양구중·고등학교
- 대회 종목 : 테니스
- 모니터링 횟수 : 6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함을 확인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학교 차량과 학부모 차량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함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함
- 단체전 경기가 아닌 개인전으로 선수 차량은 별도로 없고 개인 승용차로 움직임

차량 상태



2) 탈의실

-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본 대회가 개최된 '양구테니스파크'와 '양구중·고등학교 2곳 모두 탈의실 운영하지 않았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탈의실은 없으나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음
- 선수들이 숙소에서부터 운동경기를 위한 옷을 갈아입고 참여하고 있었음
- 선수복 환복을 하는 선수는 없었으며, 탈의실이 구비 되어 있지 않음. 선수 모두가 숙소에서 유니폼 갈아입고 옴
- 숙소에서 갈아입고 이동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임

3) 대기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본 대회가 개최된 ‘양구테니스파크’와 ‘양구중·고등학교 2곳 모두 대기실 있었음
- 대기실은 안전하고 공간이 충분했으나, 잠금장치 된 대기실이 있어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관계자 공간으로 사용됨
- 남녀 대기실은 분리되지 않았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주변 캐노피 8동 운영. 탁자 5개 의자 40개 정도 비치함. (대형선풍기 1대) 비치. 학교별 캐노피 1개동 사용 중. 그늘진 곳에서 학부모 캠핑용품 활용 대기하는 곳도 많음. 실내 테니스장 1곳 운영 (실내 대기실)
- 문이 걸려 있었고, 유리문 사이로 관찰했을 때는 선수들이 아닌 경기 관련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였음
- 대기실은 테니스 실내장에 있으나 문이 걸려 있고, 확인할 수 없었음. 관계자에게 물어 보았으나 선수들이 라켓 장비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함. 선수들은 대부분 근처 숙소에 있다 주차장 주변 간이 시설 천막, 그늘 등에서 돛자리에 테이블 펴놓고 부모님과 함께 휴식 취함
- 실내체육관에 선수 대기실이 있었으나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하기 어려움

대기실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2개 장소 모두 화장실 내 비상벨은 있었으며, 비상벨 이외 관리 인력이나 선수 안전을 위해 발생했을 시 도움 요청 수단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비상벨, 담당자, 인력대기 없음
- 화장실에만 비치되어 있음. 대기실은 문이 잠겨 있어 확인하기 어려움
- 비상벨 없음. 인력대기 하지 않음
- 탈의실, 대기실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화장실은 실내장에 있는 곳은 비상벨은 없으나 실외 코트장에 있는 화장실에는 비상벨 안내 문구가 있고 설치되어 있었음
- 화장실 밖 입구 쪽에 비상벨 안내문이 있었고 내부에 비상벨 있었음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폭력·성폭력 등 경기장 내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신고 안내물,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모두 없음
- 인권침해 관련 대응체계인 신고 안내물이나 상담실 별도로 없음

6) 연습 공간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2개 장소 모두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주차장을 이용하여 연습하고 있어서, 연습 당시 차량은 없었지만 선수들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기 어려움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시합 전, 후 남은 코트 활용하여 선수간 몸풀기로 연습함
- 주차장 이용하여 개인 연습하고 있었음. 시합장 내 산책로 (차는 없음) 활용하여 기초훈련 연습하고 있었음
- 경기출전 전 연습할 공간이 없어 경기장 앞 주차공간에서 간단히 몸을 풀거나 연습하고 있었음
- 경기하고 있지 않은 실내외 공간을 연습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 안전해 보였음

연습 공간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의료진 대기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구급차는 상시 대기하고 있었음
- 경기 마지막 날에는 구급차와 의료진 모두 대기하고 있지 않았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구급차는 있으나 의료진 확인 어려움
- 경기장 내 구급차는 대기하고 있었으나, 경기장 안에 안전요원이 대기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경기 마지막 전날이라 주변에 선수들도 4개팀 8명 정도 있었으며, 구급대나 의료진은 없었음
- 구급차와 의료진 대기하고 있지 않았음

구급차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경기장 내 일어날 수 있는 소요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시행하지 않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안전요원 확인할 수 없었음
- 학부모, 코치, 심판 외에는 안전요원 볼 수 없었음

9) 과도한 일정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과도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1세트 이후 2-3분 휴식 후 경기 진행 (매 세트 종료 후 음료, 물 섭취) 가능, 선수들 개인적인 휴식으로 별 무리 없이 경기함
- 경기 진행 상황이나 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선수들이 중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과도하지 않게 경기 진행하였고 경기장 한 켠에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스박스가 비치되어 있었음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6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사례 없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부상자 발생 없음. 가벼운 근육 통증은 학교 자체에서 조치 (파스스프레이, 얼음찜질 등)
- 부상 당한 선수가 없어 확인하기 어려우나 의료진 없었음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언어 폭력 사례 없음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신체 폭력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음

3. 기타 확인사항

1) 숙박 장소

-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본 대회 모니터링 중 호텔 등 적절한 숙박시설 이용이 4건, 모텔 등 부적절한 숙박시설 이용은 2건으로 확인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펜션 숙박
- 모텔에 숙박했으나 10~12살 아동으로 부모와 함께 숙박함

숙박 장소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숙박 장소에서 남녀 분리됨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학부모가 동행한 것으로 확인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단체 경기가 없고 개인전이 있는 대회는 코치나 감독이 많이 없었고, 가족 단위로 부모가 선수를 케어하고 있었음. 당일 승패를 보고 숙소 체크인 후 저녁에 다시 숙소를 잡는 경우가 많았음
- 전체적으로 선수와 부모님들이 동행하고 있어 숙박도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숙박함
- 부모님들이 함께 가시고, 선생님들은 없다고 함. 펜션에 숙박하고 있었는데 경기 승패에 따라 그날그날 숙박 잡고 계시다고 함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주전 선수로 뛰지 않고 응원하는 선수는 있었으나, 자발적 참석으로 확인함

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10월 7일 ~ 10월 13일 7일간
- 대회 장소 : 문수테니스장, 울산문수야구장, 중구야구장,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울주군민체육관, 문수축구경기장, 온양체육공원, 농소운동장, 동구야구장, 동천체육관, 문수롤러경기장, 양양벨로드롬, 문수체육관
- 대회 종목 : 테니스, 야구, 농구, 소프트볼, 체조, 롤러, 자전거, 태권도
- 모니터링 횟수 : 36회

1.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인원 과다 탑승 없이 안전하고 노후화되지 않은 차량으로 이동함을 확인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테니스장이 주차장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 선수단 버스를 확인했고 오는 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선수들은 소수로 모여서 걸어오기도 하였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스타렉스나 가족 차량으로도 온다는 것을 확인함
- 경기 전 오전에는 경기장 앞 주차장에는 개인차량만 있어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음. 경기 종료 후 선수들과 관리자가 같이 버스에 탑승. 개인차량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있었음
- 출근길에 입구 쪽에 단체 버스로 보이는 버스가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고 테니스장이 주차장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선수단 버스로 확인되는 차량을 발견함. 관계자분과 인터뷰를 해본 결과 각 팀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팀들은 단체로 버스를 타고 오는 것이 확인함
- 이동차량 -스타렉스같은 승합차가 많이 보였음
- 대형버스를 대여하여 사용 중이었음. 여유 공간이 충분한 상태로 사용 중이었고, 버스 상태도 좋아 보였음
- 팀별로 대형 관광버스 1대씩 이용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 000선수단 분들은 45인승 버스를 빌려 30명의 인원들이 타고 온 것을 확인함. 00시의 선수분들은 단체 버스는 없었고 일반 차량으로 많이 왔음. 단체 버스를 포함한 차량에 인원 과다 탑승, 차량의 노후상태에는 문제가 없었음
- 선수들의 이동수단은 각 팀이 운영하는 대형버스(40인승)로 노후화 되어 보이지 않았고 최대인승보다 적은 인원이 탑승하는 것을 보임
- 28인승 vip 우등리무진에 0000고 선수들이 탑승했는데 탑승 못 하거나 서서 가는 인원 없었음
- 선수단 버스가 직접 다니기도 하고 선수들이 선수 전용으로 바뀐 카카오 택시를 타고 다니고 있음. 택시의 차량에서는 3-4명의 선수들만 차를 타서 이동함
- 감독, 코치님 개인 차량으로 경기장과 숙소로 이동함
- 21인승 버스 외부는 상태가 양호했으며 버스 내부 역시 의자를 비롯 양호했음
- 15인승 버스에 12명의 인원이 타고 왔으며 감독님 카니발에 감독 포함 4명의 인원이 타고 온 것을 알 수 있었음. 선수들 단체 버스가 가장 많았으며 스타렉스, 카니발 등으로 많이 왔는데 인원 과다 탑승, 차량의 노후상태에는 문제가 없었음

차량 노후상태 및 탑승 인원



2) 탈의실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9개 종목이 개최된 13개 장소 중 탈의실이 있는 경기장은 ‘울산문수야구장’ 등 7개(53.8%)였으며, ‘문수테니스장’ 등 6개(46.2%) 경기장은 탈의실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48]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 탈의실 여부

연번	종목	경기장	탈의실 여부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X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O
3	야구	중구야구장	X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X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X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O
7	축구	온양체육공원	O
8	축구	농소운동장	O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X
10	체조	동천체육관	O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O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X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O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문수야구장]

- 경기장 내 탈의실은 충분히 존재하나 문이 잠겨 내부 확인이 불가하였음. 직접 선수들에게 물어보면서 확인해보니, 해당 선수들은 원정팀이라 탈의실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날이 너무 더우면 잠시 땀을 식히려 들어가거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사용한다고는 하였으나 그날 선수들이 탈의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음
- 탈의실 쪽이 선수들이랑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서 출입하기 어려웠고 그래도 확인을 위해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관계자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서 내부는 확인 못함

■ [문수축구경기장]

- 탈의실의 외부인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 선수들의 경기 때 선수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온양체육공원]

- 탈의실이라고 적힌 '천막'이 있으나, 사방이 모두 풀려있음. 옷을 갈아입는 장소라고 말할 수는 없음

■ [농소운동장]

- 탈의실이 있긴 하나 사방이 풀려있는 부스 형태여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또한 분리형태의 공간이 없고 탈의 공간도 한 곳 뿐이라 탈의실이 부족해 보였음

■ [동천체육관]

- 탈의실과 샤워실이 하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고 탈의실+샤워실 공간이 남자 선수들 전용은 두 곳이 있음. 아침에 선수들이 안에서 씻는 선수들이 있었음. 그 숫자는 많지 않았고 따로 앞에 지키는 관리자는 없어 안전하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됨. 한 곳의 샤워장에는 샤워용품이 있었고 다른 한 곳은 용품은 없었음. 탈의실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음.
- 탈의실 공간이 협소한 편. 선수들의 탈의실 이용이 저조함

■ [문수롤러경기장]

- 해당 종목(롤러)의 특성상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 종목으로 탈의실을 조성하였으나 야외에 천막을 쳐서 간이 탈의실로 조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문이 고정되거나 막혀있지 않고 바람에 펄럭거림. 선수들이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안전하다고 보이지 않음
- 탈의실이 있기는 하나 천막이라 탈의 시 안에서 탈의하는 선수들이 보일 우려 있음. 외부인 출입통제는 되지 않았음. 탈의실 내에 가림막이라도 따로 배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함
- 남녀 탈의실 따로 있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있음 개인 락커도 있음 외부도 탈의실 있지만 선수들은 건물내부 탈의실을 모두 이용함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체육관]

- 계체실과 탈의실, 샤워실까지 같이 있는 공간이었으며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하는 사람은 따로 없었음. 탈의실 사물함은 새것처럼 보였고 선수들이 쓰는데 시설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었음
- 문을 열면 탈의 공간이 바로 눈에 띄. 공간이 넓고, 청결함. 체육관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 수에 비해 샤워실이 다소 좁았음

3) 대기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9개 종목이 개최된 13개 장소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은 ‘문수테니스장’ 등 10개(76.9%)였으며,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등 3개(23.1%) 경기장은 대기실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49]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 대기실 여부

연번	종목	경기장	대기실 여부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
3	야구	중구야구장	○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X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X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
7	축구	온양체육공원	○
8	축구	농소운동장	○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
10	체조	동천체육관	X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깨끗하고 넓었지만 경기장 뒤쪽에 있어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음. 점심 먹을 때 간간히 사용하고 휴게소에서 경기 관계자들이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함
- 관리실 쪽 건물들에 관계자들이 앉아서 쉬만한 곳은 있었으나 선수들의 대기실로 사용하지 않음
- 경기장 뒤편에 지역별로 앉을 수 있는 대기공간이 있었지만 경기 내내 거의 비어있었고 경기장 주변에 다 같이 경기 관람하고 있었음. 대기실 같은 컨테이너 박스 3개 정도 있었는데 이곳도 머물고 있는 사람이 몇몇 있긴 했으나 정확히 선수인지 코치인지는 잘 모르겠음

■ [울산문수야구장]

- 대기실이 있다는 것만 사진으로 찍고 내부는 확인 못함. 그래도 출입을 막는 관계자분이 계셔서 일반인이 함부로 출입은 못할 것 같음

■ [문수축구경기장]

- 야외에서 천막 형태의 간이 대기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벤치에 앉아 있거나 훈련을 함. 소수의 인원만 대기실 이용함

■ [문수축구경기장]

- 선수 대기실에 짐을 두는 공간이 따로 없어 좁았음. 인원에 비해 의자가 개수가 적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음

■ [온양체육공원]

- 큰 천막이 관중석과 충분히 떨어져서 대기실이 설치되어 있긴 하나 사방이 모두 뚫려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님. 플라스틱 의자만 있음.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모래주머니가 달려있음

■ [농소운동장]

- 경기장에는 심판 대기실/운영본부를 비롯한 각각의 선수 대기실과 다음 경기 선수 대기실이 비치되어 있었음. 야외 경기장이라 소화기는 없었지만 의료 대기팀이 상시 대기중이며, 야외 대기실에는 간이의자가 비치되어있었으며, 부서지거나 날아가지 않게 모래포대로 단단히 고정 시켜둔 것을 확인함

■ [동구야구장]

- 컨테이너 형태의 대기실이 홈/어웨이 팀으로 구분하여 마련되어 있었음
- 홈팀과 어웨이 팀 이라고 이름 붙여진 컨테이너 부스가 있었음
- 대기실이 두군 데 있음. 현재 경기 중인 팀 대기실과 다음 경기를 치를 팀 대기실이 천막으로 만들어져 있음. 경기 중인 팀 대기실은 소화전이 갖춰있으나 선수들 짐이 꽉 차서 선수들이 앉아서 쉴 공간이 부족함. 대부분 의자를 대기실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대기함. 천막대기실은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음. 천막대기실은 흡연실과 바로 붙어있어 적합하지 않음

< 계속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roller경기장]

- 해당 종목(롤러)의 특성상 야외에서 진행이 되는 종목으로 간이 천막을 이용하여 대기실을 조성하였고, 경기장 외부에 각 시도로 나눠 대기실을 조성한 것과 경기장 앞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경기장 외부 각 시도별로 조성해놓은 대기실은 소파나 음료 등 편의시설은 확인할 수 없었고 의자만 놓아 진 것을 확인. 각자 가지고 온 음료나 간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였음. 해당 환경에 선수들이나 코치, 감독들은 불편함보다는 익숙한 듯해 보였음. 경기장 앞에 조성되어있는 대기실 또한 편의시설은 없었고, 해당 장소는 자리가 부족하여 다 앉아있지 못해서 있는 것을 확인함
- 천막이 쳐져 있으나 대기실이 좁아 밖에 앉은 선수가 많았음. 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없었으며 소화기는 비치되지 않았음

■ [양양별로드룸]

- 각 선수단 마다 대기하거나 트레이닝이 가능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남녀가 분리되어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구분하기 힘들. 여성 대기실은 가림막을 사용하여 사생활 보장함. 공간이 충분치 않은 건물 내 돛자리 깔고 사용하고 있는 팀도 있었음
- 경기장 외부 각 학교 등의 천막이 있고, 가림막을 칠 수 있어 안전하게 분리되어 있음. 선수들 의자에 앉아 쉬거나 사이클 연습을 하는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음

■ [문수체육관]

- 내부가 굉장히 넓었음. 대기실을 이용하는 선수들은 경기장 내 방송으로 곧 다음 경기가 있는 인원들은 선수대기실로 와주시길 바란다라고 방송을 하면 선수들이 와서 대기하는 말 그대로 경기 대기실이었던 때문에 사람들도 많았고 문이 열려있어 안전하지는 않아 보임
- 실내와 실외 모두 대기실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임. 실내 대기실에서는 경기 직전의 선수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음. 실외대기실에는 소화기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경기 시작된 직후에는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나 뒤로 갈수록 지저분한 모습이 보임. 또한, 선수들이 전부 사용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였지만 나름대로 선수들끼리는 적절히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짐. 선수 워밍업은 따로 훈련하는 공간으로 보여졌고, 사진촬영은 불가했음
- 생각보다도 더 넓으며 시합을 앞둔 선수들은 앉아 있었으며 다른 선수들은 서서 연습을 하고 있었음. 남녀가 분리가 되어있지는 않았으며 모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한 번씩은 거쳐야 하는 장소였음
- 전국체전 특성상 외부에 각 지역 선수별 개별 공간(천막) 있으며 실내에 워밍업, 대기실공간이 있어 경기 전 그 공간에서 스트레칭 및 몸 풀수 있었음

■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 대학 내 농구시설이라 선수들을 위한 별도의 전문적인 공간이 없음

■ [울주군민체육관]

- 대기실이 없어 관중석에 개인의 짐을 두고 사용하고 있음
- 대기실이 따로 없어서 2층 왼쪽 관중석에 개인 소지품을 놔두고 휴식을 취함. 경기시에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분실이 우려됨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동천체육관]

- 선수들께 인터뷰로 대기실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도 모른다고 함. 관리자분께 따로 여쭙보아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남녀 경기가 다른 날에 있어 따로 분리는 안 한 것 같음. 근처에 시설 관리자 사무실이 있어 안전한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지키는 사람은 없음. 선수들 대부분 관중석에서 쉬고 경기장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도 사용하는 선수도 없었음
- 경기장 내 대기실을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도 잘 모름. 선수들에게 물어보니 대기실이 따로 없고 관중석 2층 좌석에서 대기하고 경기 시작 전 입장하고 경기장 대기실이 있음
- 체조선수들의 대기실이 없어서 관중석에서 대기 하는 모습이 보였음
- 선수 대기실은 따로 없으며 경기장 내 의자에서 대기하고, 경기가 끝난 선수들은 관중석에 있음.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보임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탈의실이 있는 ‘울산문수야구장’ 외 6개 경기장의 탈의실 내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확인 어려운 경기장 1개 제외한 6개 경기장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0]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 탈의실_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연번	종목	경기장	탈의실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확인하기 어려움
2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X
3	축구	온양체육공원	X
4	축구	농소운동장	X
5	체조	동천체육관	X
6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X
7	태권도	문수체육관	X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체육관] 탈의실에는 인권침해 및 안전에 대한 포스터나 안내사항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음

- 대기실이 있는 ‘문수테니스장’ 등 10개 경기장의 대기실 내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는 경기장은 ‘중구야구장’ 등 4개(40.0%), 도움 요청 수단 없는 경기장은 ‘문수테니스장’ 등 5개(50.0%), 확인 어려운 경기장 1개(10.0%)로 나타남

[표 51]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 대기실_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연번	종목	경기장	대기실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X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확인하기 어려움
3	야구	중구야구장	O
4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X
5	축구	온양체육공원	O
6	축구	농소운동장	O
7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X
8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X
9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X
10	태권도	문수체육관	O

- 화장실 내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13개 경기장 중 도움 요청 수단이 있는 경기장은 ‘문수테니스장’ 등 6개(46.2%), 도움 요청 수단 없는 경기장은 ‘중구야구장’ 등 7개(53.8%)로 나타남

[표 52]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 화장실_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연번	종목	경기장	화장실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O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O
3	야구	중구야구장	X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X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X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O
7	축구	온양체육공원	X
8	축구	농소운동장	O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X
10	체조	동천체육관	X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O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X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O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화장실에만 긴급상황 비상벨 보임 탈의실은 샤워 공간까지 있어서 안쪽까지 다 볼 수 없었음
- [울산문수야구장]
 - 화장실의 경우는 경기장밖에도 있고 경기장 각 층마다 있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기 힘들다 생각하여 비상벨을 확인했으나 비상벨이 없어서 위험 발생 시 대처는 힘들어 보였음
-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 화장실에 신고 안내 문구만 적혀 있으며, 별도의 비상벨이나 인력은 없음
 - 비상벨은 없었으나 여자 화장실 안 세면대 아래쪽 인권센터 전화번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음
- [울주군민체육관]
 - 장애인 화장실도 비상벨이 없음
- [문수축구경기장]
 - 화장실 안에 장애인 칸에만 비상벨이 있었음
- [문수체육관]
 - 화장실 입구 및 화장실 내 안쪽 벽면 통로에 비상벨(위급시 호출벨) 설치되어 있었음

5) 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9개 종목이 개최된 13개 장소 중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물이 비치된 경기장은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1개(7.7%)로 나타남
- 상담실은 운영하는 경기장은 ‘문수테니스장’ 등 5개(38.5%)로 확인됨

[표 53]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_인권침해 신고·상담 대응체계

연번	종목	경기장	신고 안내물	상담실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X	O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X	O
3	야구	중구야구장	X	X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O	X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X	X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X	X
7	축구	온양체육공원	X	X
8	축구	농소운동장	X	X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X	X
10	체조	동천체육관	X	O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X	O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X	X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X	O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상담실은 본부 쪽 건물 옆쪽에 상담실 텐트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그 밖에도 입구 쪽에 한군데 더 있는 것을 확인함. 신고 안내물은 곳곳에 확인했는데 보이지 않았음
- 상담실은 본부쪽 건물 옆쪽에 상담실 텐트천막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있었음. 그 밖에도 외곽 쪽 화장실쪽에 한군데 더 있는 것을 확인했음. 신고 안내물은 부착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음

■ [울산문수야구장]

- 경기장 내부 및 외부를 전부 둘러보았으나 관련 부착물은 보이지 않았고 상담실 또한 보이지 않았음
- 상담실은 건물 내부에 있고 밖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시는 경기안내에 대해 물어볼 수 있게 천막텐트로 만들어 놓으셔서 저도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관람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는데 친절하게 오늘의 경기일정과 경기를 볼 수 있는 곳을 말씀해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었음. 다만 신고안내문은 비치되어 있지 않았음

■ [중구야구장]

- 야외경기 특성상 불일 공간이 없어 신고 안내물은 따로 부착되어있지 않았음. 비치가 되어있는 곳 또한 없었음 상담실도 물론 따로 존재하지 않았음

■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 인권센터 전화번호가 쓰여진 스티커는 화장실 안 세면대 아래에 부착되어 있었음

■ [문수축구경기장]

- 경기장이나 운영실, 휴게실 내 안내문 미비치 안내, 상담실 없었음

■ [온양체육공원]

- 폭력, 성폭력, 인권침해 신고안내문이나 상담실 존재하지 않음

■ [농소운동장]

- 신고 안내물이 따로 비치·부착되어있지 않았고, 상담실 또한 있지 않았음. 하지만 안내소와 자원봉사자대기실이 있었고, 경찰관 또한 상시 대기함 확인하였음

■ [동천체육관]

- 경기장 곳곳을 둘러보아도 따로 신고 안내물 부착 비치에 관해서는 따로 부착이 되어있지 않음. 종합운동장에서 따로 시설에 관하여 설문하는 인원이 있어 인터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에 신고 안내물이 비치, 부착되어있지 않다고 대답함. 기존에 성인 남성 농구팀의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라 그런지 대회를 위한 상담실, 및 전국체전 선수들을 위한 새로운 대응체계 공간은 전혀 없었음
- 신고안내물은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고, 장내 <스포츠 불공정 신고센터> 라는 곳을 운영중. (6~7명 상주.) 경기와 관련된 모든 불공정 사안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 중이라고 함

<계속>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roller경기장]

- 경기장 주변을 둘러보고 확인해본 결과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 안내물은 찾을 수 없었으나 경기장 내부에 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양양벨로드롬]

- 상담실이나 기타 홍보물 일체 없으며 OO시청 관계자에게 질의 하였으나 소극적인 반응과 더불어 위의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함

■ [문수체육관]

- 신고 안내물은 따로 부착되어있지 않았음. 비치되어있는 곳도 전혀 없었음. 대신 상담실 관련 문의가 들어오는 일이 있으면 행정 담당하시는 분께서 빈 휴게실에서 따로 선수들에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확인함
- 관리실 직원분에게 인터뷰해보니 체육관 내에 신고 안내물 부착은 되어있지 않고, 상담실 운영의 경우 공간은 제공이 되어있지 않지만, 휴게실에는 선수 인권 피해 관련 상담사가 배치 되어있다고 함
- 경기장은 1층에 있고 3층 관람석에서는 이야기를 듣기가 힘들었고 물건을 던져도 맞출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음

6) 연습 공간

▶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9개 종목이 개최된 13개 장소 중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기장은 '문수테니스장' 등 10개(76.9%)로 나타남

[표 54]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_연습 공간

연번	종목	경기장	연습 공간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
3	야구	중구야구장	X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X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X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
7	축구	은양체육공원	○
8	축구	농소운동장	○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
10	체조	동천체육관	○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선수들의 연습공간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2시쯤 경기를 보던 중 한 곳이 끝나서 다른 선수들이 들어오더니 서로 몸을 풀었음. 선수들이 쉬는 곳은 심판 옆에 벤치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감독으로 보이는 분도 앉아 있었음
- 선수들은 경기를 하지 않는 빈 경기장이나 선수들만 이용하는 통로에서 몸을 풀고 연습하고 있었음

<계속>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문수야구장]

- 내부연습장도 있는 것을 파악했지만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시합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주변을 뛰면서 배팅볼도 치고 공을 던지면서 몸을 풀고 있던 것은 확인함
- 경기장 내에 실내 연습장이 존재하였으나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도착 즉시 본 경기장에서 간단한 연습을 한 후에 곧바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음
- 내부연습장도 있는 것을 파악했지만 들어가서 확인하기는 어려웠고 시합 전에 선수들이 몸을 풀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스트레칭도 하고 주변을 뛰면서 배팅볼도 치고 공을 던지면서 몸을 풀고 있던 것은 확인했음

■ [온양체육관]

- 경기장 바로 옆 펜스가 설치된 족구장에서 몸풀기나 연습을 진행함. 인원 통제도 이루어져 안전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음

■ [농소운동장]

- 경기 시작 전후로 경기장에서 연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주 경기장 옆 보조경기장인 풋살장에서 선수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하지만 두팀의 선수들이 풋살장에서 연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인원수에 비해 경기장이 좁아 보였음

■ [동구야구장]

-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내에서 충분히 연습할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였고 자원봉사 요원이 있는 옆쪽에서 간단하게 캐치볼을 하거나 각 지역에서 가지고 온 그물망으로 타자 연습을 하기도 함

■ [동천체육관]

- 경기장이 1층인데 경기장 들어가는 입구 마다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요원이 전혀 없었으며 안내요원도 보이지 않음. 경기장이 관중석과 가까워 보기는 참 좋는데 흑시라도 물병을 던지면 선수들이 위험해 보이긴 했음. 경기 시작 전 몸푸는 선수들이 운동 기구들 체크 하시는 분들도 계심

■ [문수롤러경기장]

- 경기장 주변 차량이 통제된 도로에서 뛰며 워밍업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기 전 일정으로 일정 간에 워밍업 시간을 넣어, 경기장 내부에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워밍업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선수들은 경기장에 경기가 없을 때 연습을 하고 있었음. 선수들이 건물 주변을 몸풀기 달리기를 하는데 건물입구에서 차들이 수시로 지나가서 자칫 위험해 보일 때가 있었음

■ [양양벨로드롬]

- 공간이 협소하지는 않으나 외부인 출입통제나 제재 장치 등은 없으며 경기장 외부 천막이나 그늘진 곳에 장비 설치하여 연습하는 모습 보임
- 공간이 매우 협소함. 복도에서 연습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임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체육관]

- 외부인이 출입할 수는 있지만, 선수들과 관계가 있는 외부인은 출입하는 것으로 보임. 출전 직전인 선수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실내 대기실은 직전의 선수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였음. 또한 사람들이 많이 지나 다니는 공간에 위치하고 있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느낌
- 많은 선수들이 건물 내외 여러 장소에서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건물 주변 어디를 가도 볼 수 있었음. 워밍업실이 경기장 내부에 한 곳, 외부에 한 곳이 있었고 경기장 외부의 워밍업실은 오늘은 사진과 같이 연습을 하는 공간으로 볼 수가 있었음. 선수들이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없었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었음
- 경기장 내 워밍업실 및 시합 대기 전 대기실이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 시합 전 안전하게 연습하고 대기하는 것을 확인함

■ [중구야구장]

- 경기장 좌/우측 가장자리에서 경기 시작 전까지 각 팀별로 연습함. 본 경기장 좌/우측 바깥에 투구 연습장이 있으나 타자 연습장은 없음
- 경기장 내 사이드에 투수들이 공을 던지고 포수들이 공을 받고 하였음. 선수들 대부분이 야구 경기장 안에 있어도 경기에 피해가 가지 않는 라인 바깥에서 연습을 하였음. 경기장 외부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서 배팅 연습을 하는 타자 분들도 있었으며 따로 연습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음

■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 이전 경기가 끝난 이후 시점부터 본 경기장에서 경기 시작 전 연습. (농구 코트 절반씩 양 팀이 번갈아 가며 연습)

■ [울주군민체육관]

- 바로 경기가 있는 팀은 경기장에서 몸을 풀지만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팀들은 복도, 관중석 의자에서 몸을 풀고 있었음
- 경기장을 연습공간으로 이용하고 몸풀기를 함. 다음 경기를 위해 대기하는 선수들이 몸풀기 할 곳이 없어서 1층 현관 입구복도와 2층 입구 복도에서 몸풀기 함.

7)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9개 종목이 개최된 13개 장소 모두 의료진은 대기하고 있었으나,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경기장은 7개(53.8%), 대기하지 않은 경기장은 3개(23.1%),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경기장은 3개(23.1%)로 나타남

[표 55]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_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연번	종목	경기장	의료진 대기	구급차 대기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	×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	×
3	야구	중구야구장	○	×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	○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	○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	○
7	축구	온양체육공원	○	○
8	축구	농소운동장	○	○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	△
10	체조	동천체육관	○	△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	△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	○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오전 9시 30분쯤 구급차가 경기장 근처에 잠깐 주차했다가 경기장 근처에서 보이지 않음. 의료진은 단체별로도 다 오셔서 대기하고 의무실에도 의료진이 보였음 한 번씩 경기장 근처에도 의료진 조끼 입고 서 있었음
- 상담실 텐트쪽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는데 그곳에 의료진들이 있었고 구급차가 보이지 않아서 인터뷰해보니 위험한 상황이 거의 없어서 구급차는 없고 혹시 위험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119에 연락을 직접 해야 된다고 답변해줬음. 의료진분들은 정확한 수는 측정이 되지 않았으나 10~15명 정도로 추정되었음

■ [울산문수야구장]

- 내부 외부를 전부 둘러본 결과 경기장 내에 구급차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의료실에서 의료진분들이 상시 대기 중에 있었고, 선수들도 이를 인지함

■ [중구야구장]

- 야외 경기장이었지만 관계자, 스태프 외 출입금지 공간이 따로 있었음. 이 공간에서 간호사 한 분께서 혼자 경기를 지켜보시며 상시 대기를 하고 있었음

■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 경기 시작 후 10~20분 경과후 응급 의료진 구급상자를 비치하였으며 구급대 (이동식)침대 가져다 놓았음

■ [동구야구장]

- 구급상자를 구비하고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음. 따로 구급차는 없었음.
- 의료진 1명 상시 대기, 구급차는 13:30에 도착해서 이후에도 계속 대기했고 그전에는 119 연락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음

■ [동천체육관]

- 구급차가 있는데 체조선수가 부상 당했을 때 대기하는 구급차가 없다고 119에 연락해서 119요원이 올때까지 기다리고 병원으로 이동함
- 경기장 내 의료진 2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구급차는 없으나 경기장 밖에 의무실/약국은 설치되어 있었음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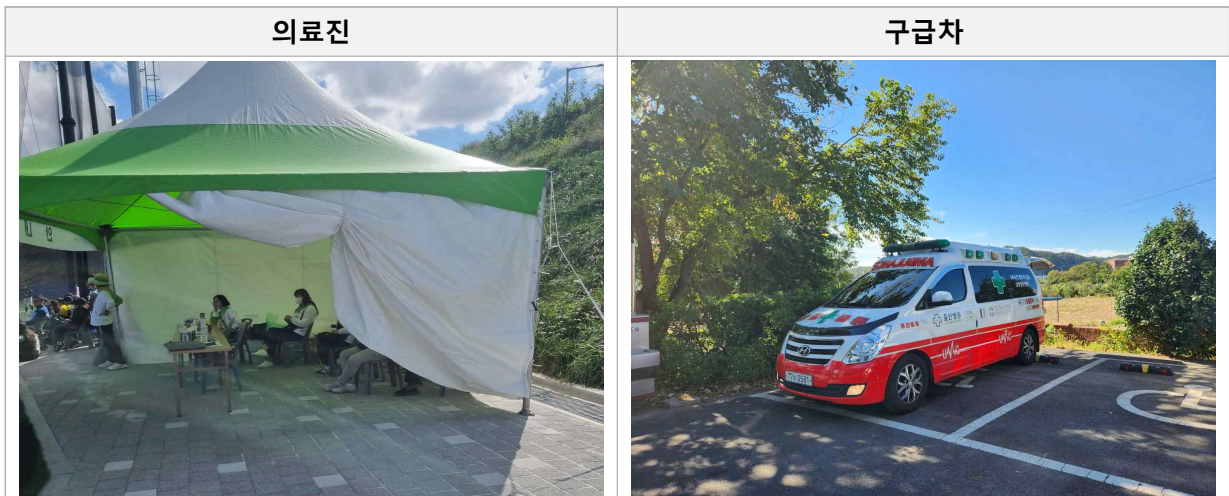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롤러경기장]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었고, 경기 중 사고의 위험이 있는 10,000m제외 경기 각 경기의 준결승, 결승전의 경우 즉각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기장 내부에 의료진들을 배치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았음

■ [문수체육관]

- 시설에서 배치된 응급구조사 1명, 응급기사 1명, 환자이송 및 차량 대기 1명으로 구성되어 배치가 되어있음. 이외 의료진(의사, 간호사)들이 경기장 안에 배치되어 있음.
- 건물 외부에 사설 구급차 안에 대기 인원이 있었으며 건물 내부에는 응급구조사 한 분, 기사 한 분 총 두 분이 건물 내 운영진 근처에 위치해 있었음. 선수가 다치면 간호사, 의사분께서 조치를 하시고 다른 곳에서 파견을 나온 구급차 대기 인원분이 선수를 태워 병원으로 간다고 함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9개 종목이 개최된 13개 장소에서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장은 6개(46.2%), 시행하지 않은 경기장 4개(30.8%), 일정에 따라 유동적인 경기장은 3개(23.1%)로 나타남

[표 56]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장소별_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연번	종목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	테니스	문수테니스장	△
2	야구	울산문수야구장	△
3	야구	중구야구장	△
4	농구	울산과학기술원체육관	X
5	농구	울주군민체육관	X
6	축구	문수축구경기장	O
7	축구	은양체육공원	O
8	축구	농소운동장	O
9	소프트볼	동구야구장	O
10	체조	동천체육관	X
11	롤러	문수롤러경기장	△
12	자전거	양양벨로드롬	△
13	태권도	문수체육관	X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별다른 안전요원들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관분들이 계속 테니스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security라는 차량은 확인했으나 안전요원은 보이지 않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보였음

■ [울산문수야구장]

- 유리병 등 위험물건을 들고 오지 말라는 포스터가 각 화장실에 전부 부착되어 있었고, 로비에 대기 중인 관계자분들이 확인하는 듯했음
- 별다른 안전요원은 없었는데 선수단 버스 옆에 경찰분들이 타고 오신 대형버스가 있었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근에 경찰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문제 해결은 가능해 보였음

■ [중구야구장]

- 소지품 확인은 하지 않으나 여러 진행요원들이 차량 통제, 시설 점검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경기장 주변에 주차를 포함한 여기 저기 곳곳에 과할 정도로 자원봉사자 분들이 많이 투입해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하지만 출입 시 위험물건 확인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었음. 선수 대기실이 사방에 뚫려있어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진짜 선수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정도의 야외구장이었으나 출입 시 통제하는 인원이 없어 이상했음

■ [울주군민체육관]

- 경찰관은 있었으나 가방을 메고 출입한 본인에게는 짐 검사를 하지 않음.
- 출입 시 안내요원은 그냥 앉아 있음. 위험물 확인을 하지 않고 방문객들을 눈여겨 보지 않음. 대부분의 시간은 개인 휴대폰을 하는데 열중함.

■ [문수축구경기장]

- 출입 시 위험물건 확인은 없었으나 경기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에 대응하고 있었음
- 경기장 출입구 및 경기장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함

■ [온양체육공원]

-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인력으로 경기장을 통제하며 원활히 모든 경기가 이루어짐. 일몰 시간이 가까우어지자, 축구장 가로등도 4곳에서 켜져 경기에 지장이 없었음

■ [농소운동장]

- 경기장 내 경찰관 한 분과 여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진행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음. 출입 시 위험물건은 없어 보였으며, 야외 경기장이라 낙하물 등의 위험요소도 확인되지 않았음.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동구야구장]

- 경기장 출입구 및 경기장 주변 및 선수대기실 입구에 자원봉사자 분들을 배치하였고 경기장 내에 경찰 한 분이 배치되어 있었음. 출입 시 물건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음
- 입구에 봉사자 1명, 경찰 1명 배치되어 있었고 야구협회 관계자가 경기장 근처로 가는 사람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았음. 경기장 바로 옆 그물에 너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모습도 봄.
- 야구협회관계자가 선수 대기실 입구 통제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일반인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수시로 확인함. 경기장 출입구 쪽에 경찰관 2명 배치되어서 경기 끝날 때까지 있음.

■ [동천체육관]

- 경기장 출입 시 안전요원이 전혀 없었음. 선수들을 보기 위하여 2층의 관람석으로 이동하는 길에도 2층 관람석에도 안전요원은 따로 없었음. 자원봉사자 분들, 경기관리자들, 심판들의 인원은 매우 많았으나 따로 관중을 관리를 하는 인원은 한 명도 없었음
- 관객 출입 시 유리병 같은 위험물건 확인이 전혀 없고, 출입구도 여러 곳으로 관리가 소홀함

■ [문수롤러경기장]

- 경기장 출입하는 입구에 안내소와 자원봉사센터를 배치하여 간단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었고, 각 장소마다 안전요원들이 위험한 행동이나 물건을 소지하는 것에 제지 및 조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경기 내내 롤러장 밖을 둘러싸고 구경하려는 친구들이 다칠까봐 감독관으로 보이는 분이 너무 붙어서 보면 위험하니 뒤로 조금만 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 안전요원은 따로 보이지 않았으며 출입 시 위험물건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음

■ [양양벨로드롬]

- 외부인 출입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전요원도 찾기 어려움
- 안전요원 대기 중이었음

■ [문수체육관]

- 경기장 내부에 많은 인원들과 운영진, 지키시는 분들, 대한태권도협회 분들이 있었지만, 출입 시 위험 물건을 확인하는 인원은 전혀 없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전요원 배치도 전혀 없었음. 안내문 등에는 음식 반입 금지만 적혀 있었으며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장 내부 어디를 보아도 막는 인원 없었음
- 출입 시 위험 물건 확인은 전혀 하지 않았고, 코로나 19 안내센터는 1층에 위치하고 있었음. 안전요원 또한 크게 배치 되어있지 않았고, 경기장 안에 대부분 배치 되어있는 것으로 보여졌음. 배치되어져 있는 요원들도 많은 수가 아니었음
- 경기장 내부에 운영진, 자원봉사자, 대한태권도협회 분들이 계셨지만 출입 시 위험 물건을 확인하는 인원은 없었음. 이와 관련한 안전요원 배치 인원도 없었음.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는 경기장 내,외부에 출입을 통제하는 인원이 따로 없었음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9) 과도한 일정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2022년 10월 8일(토) '양양벨로드롬'에서 진행된 경기에서 하루에 두 세번씩 경기가 있으며, 휴식시간이 2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선수들이 고통을 호소함
- 이외 경기에서는 선수에게 무리 가는 일정은 확인할 수 없음

2.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36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사례 없음 15건, 의료조치 시행 17건, 의료조치 미시행 4건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문수테니스장]

- 선수 한명이 허벅지에 햄스트링이 올라왔는데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의료조치는 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 지었는데 아무리 경기가 끝나기 직전이라도 경기를 중단하고 선수 몸을 체크를 해야 하는데 심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기를 속행해서 아쉬웠음
- 단체전 경기에서 선수 한 명이 경미한 허리통증을 일으켰는데 심판분이 괜찮냐고 물었고 선수분도 괜찮다고 하는 장면을 목격했음. 경기가 끝난 후 크게 다친 것이 아니어서 의료진은 부르지 않았음

■ [동천체육관]

- 00고 선수분이 11시25분 철봉에서 떨어지셔서 목을 다쳤음. 경기장 내 간호사가 선수에게 30초 만에 접근 하였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경기장 관련 사람들 또한 지켜보기만 하였음. 선수가 다친 순간 대기 하던 119가 경기장 안에 따로 없다고 하였고 119를 불러 11시 35분에 119에서 도착하였음. 3분 안에 선수를 들것에 실어 나갔음. 현장에 있던 인원들은 10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었음. 119를 부른 것이 전부이며 전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생각됨.
- 처음에는 발목 부상 선수가 나왔는데 의료진이 확인하고 선수는 앉아서 있었음. 발목에 충격이 가서 그랬는지 발에 힘 안주고 걸어다님. 두 번째 철봉에서 00고 선수 떨어지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음. 대기 엠블런스가 없어서 119에 신고해서 시간이 제법 지체됨. 119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 세 번째 선수는 철봉에서 5시 3분 대학생 오른쪽 발목부상 의료진이 와서 발목에 붕대 감아줌 경기장을 코치와 함께 나감

의료조치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 36회 모니터링 중, 언어 폭력 사례 4회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기장 : 울주군민체육관
 행위자 : 관중/학부모
 성별 : 여 → 여
 내용 : 경기 도중 OO팀의 학생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이 계속해서 점수를 내주자 학생들에게 똑바로 하라며 한숨을 쉬며 소리를 지름

- 경기장 : 울주군민체육관
 행위자 : 관중/학부모
 성별 : 여 → 여
 내용 : 000여고와 0000여고의 경기중에 000고등학교 관중석의 학부모(여)가 '야! 이 새끼야! 야! 야! 야!' 이 렇게 욕을 하면서 계속 소리를 크게 지름

- 경기장 : 온양체육공원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남
 내용 :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새끼들이.." 남코치>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선수에게 폭언과 고성 10분간 지속. "심판새끼들 왜 이따구야!" 남 관중>남 심판에게 판정에 대한 불만.
 "오프사이드잖아, 심판 뭐해 라인을 그따구로 보면 어떡해" 000고 감독(남)>심판(남)에게 3~4분간 판정에 불복하며 고향

- 경기장 : 문수체육관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여
 내용 :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코치들 뒤에 서서 이야기를 듣는 도중 OO소속의 코치분이 선수에게 얘기를 하시다가 '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들었고 이는 아마 관중석에서도 다 들렸을 소리라고 생각함.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으나 욕을 하거나 그런 상스러운 단어는 들리지 않았음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 36회 모니터링 중, 신체 폭력 사례 1회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기장 : 문수테니스장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남

내용 : 경기 종료 후 코치/감독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수에게 작은소리로 얘기해서 듣진 못했는데, 얘기 후에 머리에 조금 세다 싶은 꿀밤 때림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사례 없음

○ 선수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는 36회 모니터링 중 2회 있었음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경기장 : 동천체육관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여

내용 : OO고 여자체조선수가 2번의 도마 체조를 마치고 같은 팀이 있는 곳으로 가는 도중 격려차원에 2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음. 첫 번째 선수의 등을 치듯이 했고, 두 번째 선수의 엉덩이 윗부분을 치듯이 만졌음

■ 경기장 : 동천체육관

행위자 : 코치/감독

성별 : 남 → 여

내용 : 000고등학교 선수 격려 차원으로 남자 코치가 여고생 선수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모습은 보기 불편했음.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보임.

5) 기타 선수 인권침해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문수야구장]

- 선수들을 비하하거나 욕설을 사용하는 모습은 없었으나, 종종 관객분들 및 같은 선수끼리 언성을 높이면서 꾸짖는 듯한 모습을 자주 보였음
- 딱히 욕설 혹은 비하는 아니었음. 선수와 심판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선수가 심판에서 욕설을 사용하고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상황이 발생함..목소리가 섞여 제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못 들었으나 '아니 시x~~~'라고 함

3. 기타 확인사항

1) 숙박 장소

▶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 본 대회 36회 모니터링 중, 모텔 등 학생 선수들이 숙박하기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숙박하는 사례는 8회(22.2%)로 나타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커플모텔(무거동), 뉴서부장(안양읍), 모텔베네(울주 상북면), 모텔베네(울주 상북면)
- 땡큐모텔에서 숙박
- 선샤인 모텔. 000고 여자팀
- 00지역 선수들이 울산 삼산동 코이 모텔에서 숙박함

숙박 장소



2) 숙박 장소 남녀 분리

▶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 숙박 장소가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음

3) 숙박 장소 동성보호자 동행

▶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 선수가 머무는 숙박 장소에 동성의 보호자인 감독관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함

4) 비자발적 동원

▶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주전 선수로 뛰지 않고 응원하는 선수는 있었으나, 자발적 참석으로 확인함

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 대회개요

- 대회 일정 : 2022년 10월 19일 ~ 10월 24일 6일간
- 대회 장소 : 울산대체육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울주군민체육관, 양양벨로드롬, 서부시민운동장, 미포구장, 문수풋살장
- 대회 종목 : 휠체어농구, 유도, 배구, 태권도, 싸이클, 축구
- 모니터링 횟수 : 24회

1.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이동·정보 접근 등에 관련한 사항

1) 보행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 ▶ 보행자가 차량 등의 방해받지 않고 경기장 입구(경기장이 속한 공원 또는 부지의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지
- ▶ 접근로의 폭이 1.2m 이상으로 적절한지?
- ▶ 접근로에 단차가 없거나, 2cm이하인지?

- 보행자가 차량 등의 방해받지 않고 경기장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가능한지 모니터링 한 결과 24회 중 '울주군민체육관', '서부시민운동장', '미포구장'에서 이동 불편함을 확인함

[표 5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보행로 점검

연번	종목	경기장	보행자 안전 이동	접근로와 차도 경계	접근로 폭	접근로 단차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이동 불편	구분 안됨	부적절	적절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3	배구	오트밸리복지센터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이동 가능	구분	적절	적절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이동 불편	구분 안됨	부적절	부적절
7	축구 - 지적,청각	마포구장	이동 불편	구분 안됨	부적절	부적절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이동 가능	구분 안됨	적절	적절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주군민체육센터]

- 주차장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는데 입구주차장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음. 그래서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어렵고 접근로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올라가는 길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게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전혀 도움이 될 거 같지가 않았음.

■ [울주군민체육센터]

-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에서 나와서 입구까지 걸어가는 동안 보행자 통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부시민운동장]

- 접근로가 1m로 적절하지 않았으며 단차가 있었고 15cm로 적절하지 않았음. 바뀌고 되어있는 출입구는 바뀌가 녹슬어 움직이지 않았으며 옆에 좁은 철문으로만 입장이 가능했음. 그리고 접근로 중의 한 부분이 돌도 많고 오래된 느낌이 있어서 발목을 접지른 사람도 있었음

■ [마포구장]

- 경기장이 산 위에 있는데, 진입로에는 보행로가 없으며 내부 시설에는 대부분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로 없이 19cm의 단차가 있는 구간이 곳곳에 있음

보행하여 경기장 진입



2)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 점검

- ▶ 주차장 입구에서 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에 적절한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경기장 출입구 또는 경기장과 연결되는 승강기까지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적절한지?

-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 되어 있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에 적절한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4회 모니터링 중 '오토밸리복지센터', '서부시민운동장', '문수풋살장'에서 주차구역 찾기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함
- '미포구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울주군국민체육센터'는 승강기까지 장애인이 통행하기 적절하지 않았음

[표 58]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자동차 이용 경기장 진입 점검

연번	종목	경기장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확인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시행규칙 적용	승강기까지 장애인 통행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적절	적절	적절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적절	적절	부적절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부적절	적절	적절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적절	적절	적절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적절	적절	적절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부적절	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적절	부적절	적절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부적절	적절	적절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이동하면서 관찰한 결과 장애인 주차구역의 위치는 적합하나 경기장 승강기까지 휠체어로 이동하기는 단차가 있어 무리가 있음
- 주차장 입구에 바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었고 표지판이 있어 찾기 쉬웠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재어 본 결과 적절히 설치.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경기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까지 경사로가 없고 단차가 2cm이상으로 높아 휠체어 이용하기 불편

■ [오토밸리복지센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경기장까지 통행하기 적절하고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으나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연속적으로 안내가 되어있는 정도는 아니었음

■ [서부시민운동장]

- 주차구역을 따로 표시한 곳은 없었고 주차공간의 폭은 3.3m, 길이는 5.1m로 적절했음

■ [미포구장]

- 장애인주차구역은 주 진입로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 공간 일부의 가로 폭이 2m 83cm 내외임

■ [문수풋살장]

-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경기장 가장 안쪽에 인접하여 승하차에 편리하게 위치한 것을 확인함.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출자로 측정한 결과 규격에 적절한 정도임. 해당 문수풋살경기장은 아니었지만, 문수월드컵경기장과 연결되어있는 승강기까지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적절함을 확인함.

자동차를 이용한 경기장 진입



3) 경기장 내부 진입에 대한 점검

▶ 경기장 내부 경사로의 폭과 기울기가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지?

○ 8개 경기장 모두 경기장 내부 경사로 폭과 기울기가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경기장 내부 진입



4)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

- ▶ 승강기 전면에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
- ▶ 장애인이 승강기에 출입하고 내부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 ▶ 승강기 외부, 내부에 승강기 안내, 층수 등에 대한 점자 안내가 되어 있는지?
- ▶ 승강기 외부, 내부에 도착여부·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나 음성신호장치가 있는지?
- ▶ 승강기 층수 조작 버튼에 휠체어용 조작버튼이 있는지 여부(가로식 조작 버튼)?

-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한 결과, 8개 경기장 중 승강기가 없거나 작동하지 않는 5개 경기장은 모니터링 점검에서 제외함
- 승강기가 있는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울주군민체육관’ 3개 장소 모두 장애인이 승강기를 이용하기에 충분하고, 점자 안내 및 음성신호장치, 휠체어용 조작버튼도 확인됨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체육관 1층에서 경기했음. 따로 승강기는 체육관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경기장 입구의 양쪽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는 구조였음. 계단은 일반 계단과 다름없었으며 경기장 2층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일반 계단을 통해 올라가야 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1.5m 이상으로 활동공간 적절. 승강기 통과 폭 0.85m, 내부 폭 1.6m 이상으로 적절. 승강기 외부와 내부에 점자 안내, 음성신호장치 있음. 휠체어용 조작버튼 있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 아주 넓음. 대략 승강기 통과 폭 1m, 내부 깊이 1.7m, 내부 폭 1.85m 이상으로 장애인이 승강기에 출입하고 내부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음. 점자 안내 있음. 점멸등과 음성신호 장치 있음. 휠체어용 조작버튼 있음

■ [울주군민체육관]

- 승강기 전면은 90cm 정도로 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웠고 내부는 폭이 1.6m정도 되어서 적절했고 승강기안내, 층수 안내에 대한 점자 안내는 없었으며 도착여부에 대한 음성신호장치는 잘 작동했고 층수 조작 버튼 점자식은 있었음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양양벨로드롬]
 - 장애인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음 (전원꺼짐)
- [서부시민운동장]
 - 경기장 내부에 따로 경사로는 없었고 승강기도 없었음. 축구 경기장 특성상 야외의 경기장이라 없었음
- [미포구장]
 - 모든 시설이 같은 층에 위치하여 승강기가 없음
- [문수풋살장]
 - 야외 경기장이라 승강기가 없었고, 문수월드컵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승강기 또한 해당 경기장을 이용하는 경기일정이 없기에 운행하지 않았음.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 점검



5)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

- ▶ 내부 관람석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관람석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지?

- 경기장 내부 관람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충분한지, 휠체어 이용 시에도 관람석 시야확보가 되는지 모니터링 함
- 8개 경기장 중 ‘양양벨로드롬’과 ‘미포구장’ 제외한 6개 경기장은 휠체어 이용한 장애인이 관람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됨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관람석 시야 확보는 ‘울주군민체육관’과 ‘문수풋살장’에서 일부 방해되는 것으로 확인됨

[표 59]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경기장 내부 관람석 점검

연번	종목	경기장	휠체어 이용 장애인 내부 관람석 이용 적절	휠체어 이용 장애인 관람석 시야 확보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부적절	시야 방해 없음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부적절	시야 방해 없음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부적절	일부 방해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적절	시야 방해 없음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부적절	시야 방해 없음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적절	시야 방해 없음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부적절	일부 방해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내부 관람석의 깊이는 1.3m 폭은 0.4m로 폭은 적절에 한참 못 미쳤음. 시야 방해는 관중석이 넓고 2층에 있어 따로 없었음
- [울주군군민체육센터]
 - 내부 관람석은 휠체어석이 없었음. 장애인 화장실은 공간과 장치가 모두 적합하며 잘 작동됨
- [오토밸리복지센터]
 - 내부 관람석의 폭은 0.5m 깊이는 0.3m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였으며 경기장 관중석 밑에서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보셨음. 시야 확보는 충분하였음
- [울주군민체육관]
 - 관람석은 1층에 있었으나 올라갈 수단은 계단밖에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올라가는데 불편함이 있어 보였으며, 관람 시 기둥으로 인해 시야에 방해가 되어 보였음
- [양양벨로드롬]
 - 관람석에 장애인 전용석이 별도로 없고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장 첫째줄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장애인 편의를 봐주는 시설은 없었음
- [서부시민운동장]
 - 외부 관람석의 깊이는 80cm 폭은 37cm로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관중석에서 경기를 볼 수 없을 정도였음. 시야 방해는 따로 없었음
- [문수풋살장]
 - 풋살경기장은 야외 경기장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공간에 문제없는 것으로 보임. 관람석의 시야는 경기 진행 중 공이 경기장 밖을 나갈 위험이 있어 세워놓은 펜스와 기둥으로 인해 안전상의 이유로 시야 방해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음

경기장 내부 관람석에 대한 점검



6) 경기장 내부 화장실

-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 ▶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설치 공간이 충분히 넓은지?
- ▶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 손잡이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 ▶ 야외에서 이뤄지는 경기(론볼 등)에서 이동식 화장실이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 경기장 내부 화장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절한지를 모니터링 함
- 8개 경기장 중 '서부시민운동장'을 제외한 7개 경기장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이 자동문 이거나, 밖으로 열리는 문, 접이문, 미닫이 등 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 6개 종목 중 야외에서 이뤄지는 경기는 축구만 있었으며, '서부시민운동장'을 제외한 '미포구장', '문수풋살장'은 장애인 이동식 화장실 설치됨을 확인함

[표 60]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경기장 내부 화장실

연번	종목	경기장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설치	사용여부 확인장치	대변기 공간	손잡이	이동식 화장실설치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적절	있음	넓음	적절	실내경기
3	배구	오도밸리복지센터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적절	있음	넓음	적절	실내경기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적절	있음	넓음	적절	실내경기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움	설치되지 않음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적절	있음	넓음	적절	되어 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내부 화장실에는 색상 및 문자로 사용 여부를 알 수 있는 장치가 있었고 외부 화장실에는 없었음.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설치 공간은 폭1.8m 이상 깊이1.8m 이상으로 충분히 넓었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와 소변기 손잡이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음. 야외의 이동식 화장실은 경사로가 있는 등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나 경사로 앞에 놓여진 키보드가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관리가 조금 아쉬웠음

■ [울주군민체육센터]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사용여부 알 수 있는 장치, 넓은 공간, 대소변기 손잡이 등 잘 되어 있었음

■ [오도밸리복지센터]

- 장애인 화장실에 출입문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용여부도 알 수가 있었고 손잡이도 있었으며 실내 배구 경기여서 야외에서 이뤄지는 경기 없었지만 화장실은 있었음 대변기 설치 공간은 1.8m, 2m로 충분한 공간이었음

■ [울주군민체육관]

- 2층 경기장 쪽 화장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있지만, 3층 관람실 쪽 화장실은 장애인 화장실 표시만 있고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없음

< 계속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양양밸로드롬]
- 장애인 화장실 3곳 중 가장 안쪽에 위치한 화장실 제외하고는 문이 열리지 않아 사용 불가함
- [서부시민운동장]
- 장애인용 화장실 없음
- [문수풋살장]
-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구비되어있었고 경사로로 진입하게 되어있었으며 버튼식 자동문으로 되어있었음. 야외 경기장이지만 경기장마다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었음

경기장 내부 화장실



7) 장애인 정보 접근권

- ▶ 장애인이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두 선택)
- ▶ 청각장애인선수대회 경기 현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 장애인이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되어 있는지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해 점검함
- 점자자료와 확대경, 영상전화기 및 문자지원 장치는 8개 경기장 모두 확인되지 않음
- 장애인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이 있는 경기장은 ‘울산대체육관’ 등 6개, ‘활동보조인 외 안내인’ 있는 경기장은 7개로 확인됨
-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경기장은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등 3개 장소로 확인됨

[표 61]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장애인 정보 접근권

연번	종목	경기장	장애인 정보 접근권						
			활동 보조인	활동 보조인 외 안내인	수어 통역	점자 자료	바코드 기재 유인물	확대경	영상 전화기 문자지원 장치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	○	×	×	×	×	×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	○	×	×	×	×
3	배구	오도밸리복지센터	○	○	×	×	×	×	×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	○	○	×	×	×	×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	×	×	×	×	×	×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	○	×	×	×	×	×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	○	○	×	○	×	×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	○	×	×	×	×	×

- 청각장애인선수대회 경기 현장 수어통역사 배치여부는 8개 종목 중 청각장애인이 참여하지 않은 ‘휠체어농구’, ‘배구’ 종목은 제외 한 6개 종목에 한해 모니터링 함
- ‘유도’와 ‘태권도’, ‘축구’는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싸이클’은 수어통역사 배치되어 있지 않았음

[표 62]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수어통역사 배치

연번	종목	경기장	수어통역사 배치
1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배치
2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배치
3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미배치
4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배치
5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배치
6	축구 - 뇌병변,진맹,약시	문수풋살장	배치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자원봉사자 분들이 여섯명 이상 있으셨으며 도움을 요청하기에 적절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듣지를 못하는 선수들의 유도경기여서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음. 다른 것들은 따로 제공되지 않았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자원봉사자 분들이 있으셨고 운영위원회 분들도 있었지만, 인터뷰 결과 수어통역, 점자자료, 유인물, 확대경, 영상전화기 등은 없다고 말 하였고 경기장 내부 어디를 보아도 따로 없었음
- [울주군민체육관]
 -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곳에서 같이 수화로 바로바로 선수들에게 전달함. 수어통역사는 배치되어 있었지만 다른 별도의 안내 수단은 없었음
- [양양벨로드롬]
 - 장애인을 위한 대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정도로 안내사항이 보이지 않음
- [서부시민운동장]
 - 안내를 해주시는 자원봉사자 분들은 많았음. 하지만 다른 준비들은 따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음
- [문수풋살장]
 - 경기장 입구에 안내소 및 자원봉사센터가 있어, 안내해주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하였고, 경기 관람을 하는 동안 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가 활동 보조를 돕는 것을 확인함.

2.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탈의실

▶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6개 종목이 개최된 8개 장소 중 탈의실이 있는 경기장은 ‘울산군국민체육센터’ 등 3개였으며, ‘울산대체육관’ 등 5개 경기장은 탈의실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탈의실이 있는 경기장 중, ‘양양벨로드롬’ 경기장은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이외 경기장은 안정하고,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성의 활동지원인이 출입 가능한 별도의 탈의실을 운영하는 경기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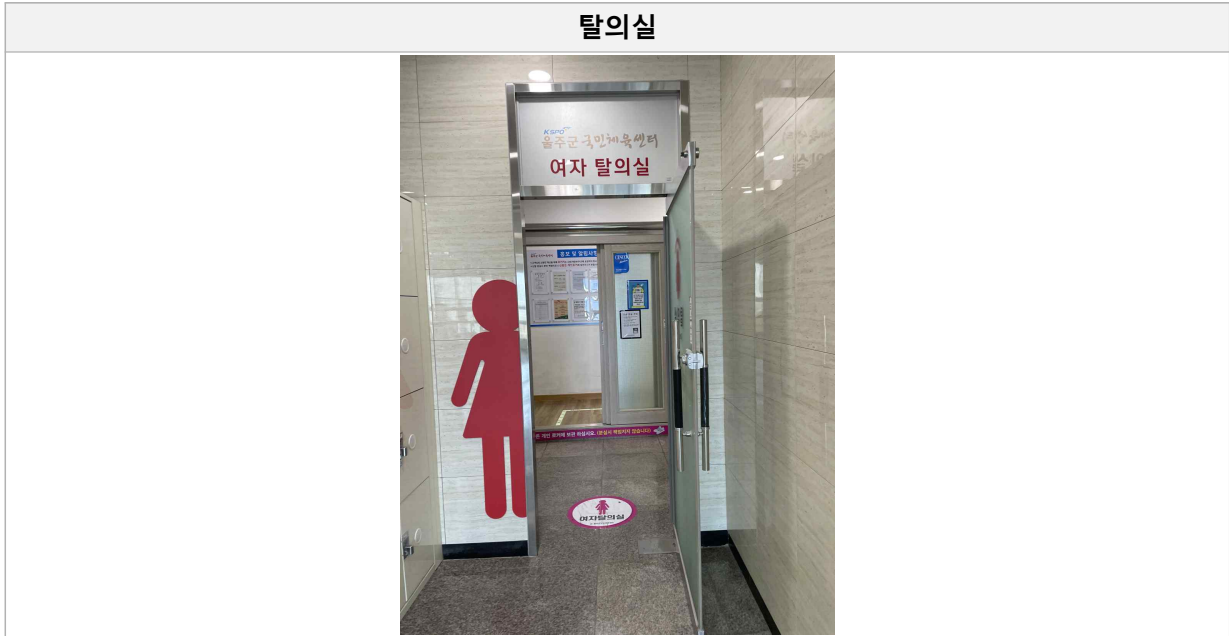
[표 63]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탈의실 여부

연번	종목	경기장	탈의실 여부	안전한 공간	적절한 이용	이성 활동지원인 출입 가능 탈의실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X	-	-	-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O	안전	O	X
3	배구	오도밸리복지센터	X	-	-	-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X	-	-	-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O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O	X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X	-	-	-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X	-	-	-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O	안전	O	X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대학교 체육관을 그대로 써서 그런지 문이 열린 탈의실을 포함한 공간이 아예 없었음. 모든 선수들이 옷을 다 입고 왔으며 창고 공간 외에 공간이 없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남여가 구분된 탈의실은 쾌적한 상태로 이용이 가능했고 안전한 공간이었음. 그러나 이성의 활동지원이 가능한 별도의 탈의실은 존재하지 않았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경기장 내부에 따로 탈의실은 존재하지 않았음
- [울주군민체육관]
 - 경기장 내에 탈의실이 없어 선수 대기실을 탈의실로 사용 중
- [양양벨로드롬]
 - 콘크리트 바닥 위에 쳐뒹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천막 탈의실 있었지만 별도 장치 없이 들어갈 수 있어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천막을 쳐놓은 곳이었으며 별도 탈의실은 없으며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 [서부시민운동장]
 - 외부의 경기장에 있는 것이라고는 일반 화장실 하나 외에 어떠한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음
- [미포구장]
 - 외부의 경기장에 있는 것이라고는 일반 화장실 하나 외에 어떠한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음
- [문수풋살장]
 - 야외 경기장 바로 앞에 풋살경기장 탈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안전함. 이성의 활동 지원인이 출입 가능 한 별도의 탈의실은 없었고, 해당 탈의실을 다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임.

탈의실



2) 재난상황 대비책

▶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안내도, 대비방법 등의 안내표시가 있는지?

-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대피안내도, 대비방법 등에 대한 안내표시가 없는 경기장은 8개 경기장 중 축구경기가 개최된 '서부시민운동장'과 '미포구장' 2개로 확인함

3) 대기실

▶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6개 종목이 개최된 8개 장소 중 대기실이 있는 경기장은 '울주군민체육관' 등 5개(62.5%)였으며, '울산대체육관' 등 3개(37.5%) 경기장은 대기실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64]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대기실 여부

연번	종목	경기장	대기실 여부	안전한 공간	편의 시설	공간 충분	남녀 분리	선수 이용	이동성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X	-	-	-	-	-	-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X	-	-	-	-	-	-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X	-	-	-	-	-	-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O	O	O	O	O	O	O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O	O	O	O	O	O	O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O	X	X	X	-	O	O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O	X	X	O	-	O	O
13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O	O	O	O	-	O	O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선수분들을 위한 대기실은 아예 없었음. 경기장 내부에 문이 열리는 실내 공간조차 없었으며 선수들을 위한 공간 자체가 없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대기실이 따로 있지 않고 경기장 뒤쪽 관중석 앞에 대기석이 몇 개 있었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경기장은 3층이었는데 1층 야외에 천막으로 선수 대기실이 있었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었음. 실질적으로는 경기장 내부 한쪽 구석에 선수들 짐이 놓여져 있고 그곳을 이용하는 듯 보임

■ [울주군민체육관]

- 대기실에서 경기장이 바로 앞이라 편하게 이동 가능함. 그리고 대기실보다 경기장 입구에서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음

<계속>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양양벨로드롬]

- 경기인원이 적어 모든 인원이 경기장 내에 있지만 그늘막과 같은 휴식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트레이닝 장비 또한 경기장 내부에 위치함

■ [서부시민운동장]

- 선수 대기실이 야외에 천막 안에 의자들이 있는 것이 다였음. 다 뚫려있어 안전하지 않았고 공간은 좁았음. 선수들이 이용은 하고 있었으며 경기장 코앞의 천막이라 이동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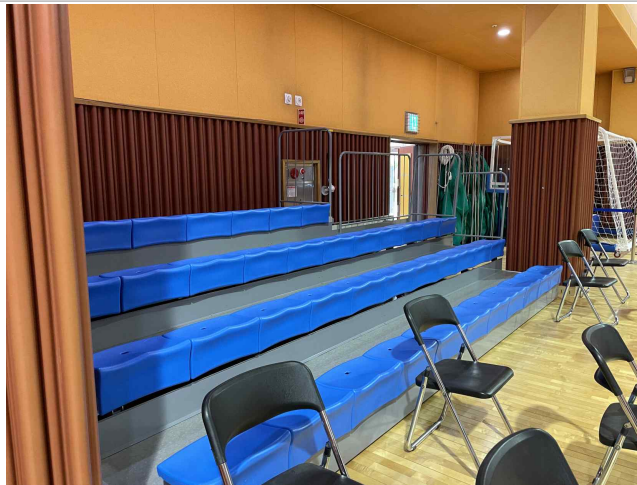
■ [미포구장]

- 외부의 경기장에 있는 것이라고는 일반 화장실 하나 외에 어떠한 시설도 존재하지 않았음

■ [문수풋살장]

- 경기장내 대기실이 충분하게 있고, 간이 대기실이 넘어지지않게 사대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지지되어 있었음. 음료수, 소화기, 응급구조 용품등이 있었고 이용하기에 제한되어 보이는 사항은 보이지 않음

대기실



4)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탈의실이 있는 ‘울산군국민체육센터’ 등 3개 경기장의 탈의실 내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는 경기장은 2개인 것으로 나타남

[표 65]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탈의실_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연번	종목	경기장	탈의실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O
2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X
3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O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양양벨로드롬] 비상벨이나 담당 인력을 찾아보기 어려움

○ 대기실이 있는 ‘울주군민체육관’ 등 5개 경기장의 대기실 내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도움 요청 수단이 있는 경기장은 ‘울주군민체육관’ 등 2개(40.0%), 도움 요청 수단 없는 경기장은 ‘싸이클’ 등 3개(60.0%)로 나타남

[표 66]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 대기실_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연번	종목	경기장	대기실 인권침해 및 안전위해 발생 시 도움 요청 수단
1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O
2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X
3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X
4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X
5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O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양양벨로드롬]
 - 비상벨이나 담당인력을 찾아보기 어려움
- [서부시민운동장]
 -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없어서 그런지 인권침해 및 안전 도움 요청 수단 없음
- [미포구장]
 - 비상벨 및 시설 문의처가 없음

5) 신고안내물 비치 및 상담실 운영

▶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 장애인 체육경기대회가 개최된 8개 장소 모두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물 비치되지 않았고, 상담실 또한 운영하지 않았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선수분들이 비슷한 내용의 모든 것들을 잘모른다고 하셨으며 신고, 상담실 등은 전혀 없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안내물도 따로 없었으며 상담실도 없었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신고 안내물이 따로 비치되거나 부착된 장소는 없었음. 상담실도 따로 운영되지 않았음. 대응체계 지원센터등을 아는 선수들은 보지 못했음
- [울주군민체육관]
 - 신고안내물은 없었고 상담실도 따로 없었음
- [서부시민운동장]
 - 실외 축구장 특성상 비치, 부착 장소가 없었고 상담실 조차 없었음. 선수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분들도 대응체계 등에 관해서 잘 모름
- [문수풋살장]
 - 선수들과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 인터뷰한 결과 선수들이 특별히 대응체계나, 선수지원에 관한 정보가 많이 없었음

6) 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6개 종목이 개최된 8개 장소 모두 의료진과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67]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_의료진 및 구급차 대기

연번	종목	경기장	의료진 대기	구급차 대기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	○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	○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	○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	○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	○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	○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	○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경기장 내부에 의료 지원분들이 두 분이 있으셨고 구급차 한 대가 경기장 바로 밖에 있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경기장 외부에 의료진 및 구급차 있었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경기장 외부에 따로 구급차가 있었고 경기장 내부에 의료지원 분께서 두명 있었음. 구급차에도 한 분이 대기 하고 있었음
- [울주군민체육관]
 - 구급차가 경문에서 상시 대기 중이었으며, 의료진분들이 경기 내내 내부에서 대기 중이었음
- [양양밸로드룸]
 - 경기장 내에 위치함
- [서부시민운동장]
 - 구급차를 운전 가능한 분이 두 분이 계셨고 따로 의료진 두 분께서 경기장 안에 있었음
 - 실외 축구장 특성상 비치, 부착 장소가 없었고 상담실 없었음. 선수들뿐 아니라 자원봉사자 분들도 대응체계 등에 관해서 잘 모름



7)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 6개 종목이 개최된 8개 장소에서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장은 3개 (37.5%), 시행하지 않은 경기장 5개(62.5%)로 나타남

[표 68]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장소별_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연번	종목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
1	휠체어농구	울산대 체육관	X
2	유도	울주군국민체육센터	X
3	배구	오토밸리복지센터	X
4	태권도	울주군민체육관	O
5	싸이클	양양벨로드롬	X
6	축구 - 지적,청각	서부시민운동장	X
7	축구 - 지적,청각	미포구장	O
8	축구 - 뇌병변,전맹,약시	문수풋살장	O

▶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출입과 관련된 것들을 따로 검사하는 인원은 아무도 없었으며 어떤 사람이 들어가던지 따로 제제가 없었음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항상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분들의 수는 많지만 출입 시 제제, 위험물건을 확인하는 사람은 없었음
- [오토밸리복지센터]
 - 경기장 내외에 자원봉사자, 운영위원회 분들이 많았지만 따로 안전대책에 관련해서 확인을 하는 분은 없었음
- [울주군민체육관]
 - 특이사항 없이 입구에서 상시 대기 중이었으며, 확인 후 들여보냄
- [양양밸로드롬]
 - 안내요원 없으며 출입 통제 없음
- [서부시민운동장]
 - 자원 봉사자 분들은 많아서도 따로 출입에 대해 통제를 하는 인력 없었음
입구를 지키시긴 했으나 물건을 확인하지 않았음
- [미포구장]
 - 경찰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며 경기장을 전반적으로 순찰함
- [문수풋살장]
 - 9시 15분 경 경기 시작 전 경기장 정비와 낙엽, 위험 물건 정리를 수행하는 모습을 확인. 경기 간 운영본부에 서 수시로 안전관리 함

8) 과도한 일정

- ▶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과도한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 없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경기를 하고 나서 최소 4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선수들에게 전혀 무리가 없는 일정이라고 생각함
- [울주군국민체육센터]
 - 경기 진행 상황이나 일정은 과도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시간 있는 경기 진행
- [오토밸리복지센터]
 - 경기는 각 팀 당 하루에 한 경기로 적절했고 충분한 휴식시간 있는 경기 진행이었음
- [울주군민체육관]
 - 경기 진행에는 무리가 가는 것은 보이지 않았음
- [양양밸로드롬]
 - 경기인원이 적은 곳인지 2시간 내외로 경기 종료함
- [서부시민운동장]
 - 대진표를 보면 선수들에게 무리 가지 않게 적절하게 경기 일정을 잡았다고 생각함
- [문수풋살장]
 - 일정에 맞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였고, 무리가 가게 과도하게 보이진 않았음.

3.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 의료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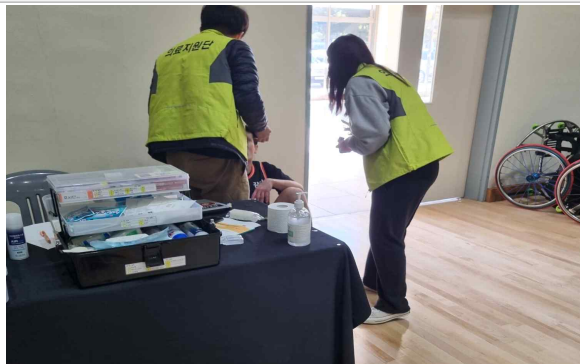
▶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선수 부상 시 적절한 의료조치 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4회 모니터링 중 선수 부상 사례 없음 12건, 의료조치 시행 12건 있었음

주요 모니터링 내용

- [울산대체육관]
 - 경기 중에 선수 분들끼리 농구를 하다 부딪쳐서 눈 주위가 찢어지는 일이 생김. 의료 지원을 나오신 두 분께서 바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을 확인함
- [울주군민체육관]
 - 선수 몇몇이 경기를 마치고 다리에 상처가 나서 붓대를 감는 장면을 목격함
- [양양밸로드롬]
 - 경기 인원이 적은 곳인지 2시간 내외로 경기 종료함
- [서부시민운동장]
 - 경기에서 선수분이 몸싸움 후 넘어짐. 넘어지자마자 의료진 분께서 뛰어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음. 곧바로 선수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찰음을 확인하자 자리로 돌아감
- [문수풋살장]
 -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경기중에 공에 맞아 고통을 호소할 때 바로 응급처치사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확인함

의료조치



2) 언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 본 대회에서 언어 폭력 사례 없음

3) 신체 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신체 폭력 사례 없음

4) 성희롱·성폭력

- ▶ 누군가 선수에게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희롱 발언 등을 하는지 여부
- ▶ 누군가 선수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계체, 몸풀기 때, 선수 교체 등에 주목)
- ▶ 관중 등이 선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특정 신체 촬영(불법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지 여부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종목에 주목)

○ 본 대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례 없음

제 4장

심층인터뷰 결과

1.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
2. 언어·신체·성 폭력
3. 학습권 침해 등
4. 시설 및 환경
5. 장애인 선수 대상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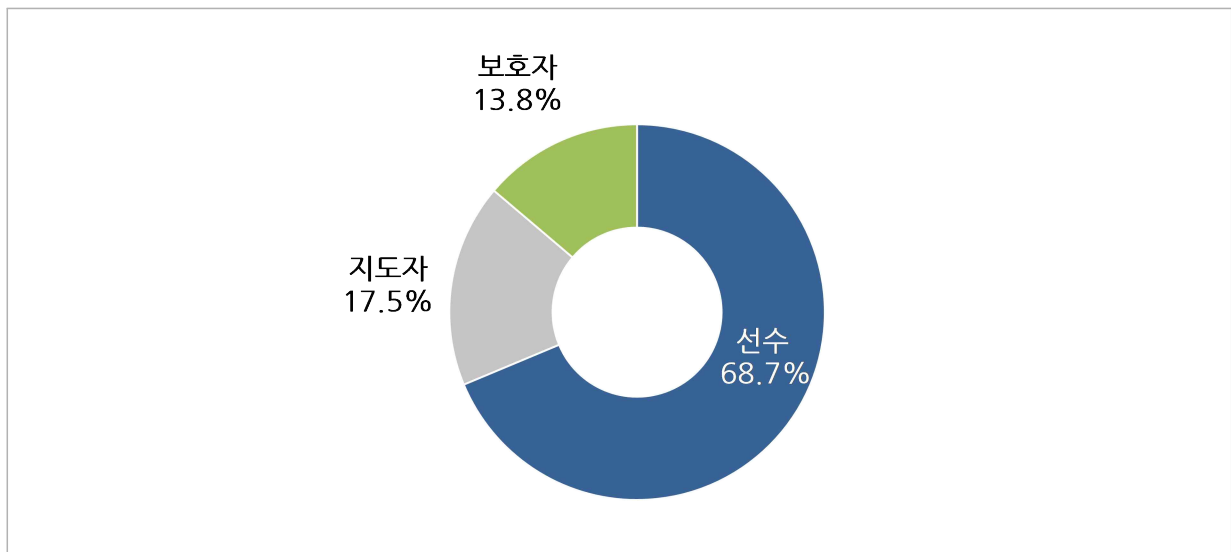
1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

1. 응답자 구분

-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80명임
- 이 중 선수가 55명(6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지도자 14명(17.5%), 보호자 11명(13.8%)으로 나타남

[그림 46]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_응답자 구분

(Base: 심층인터뷰 대상자 8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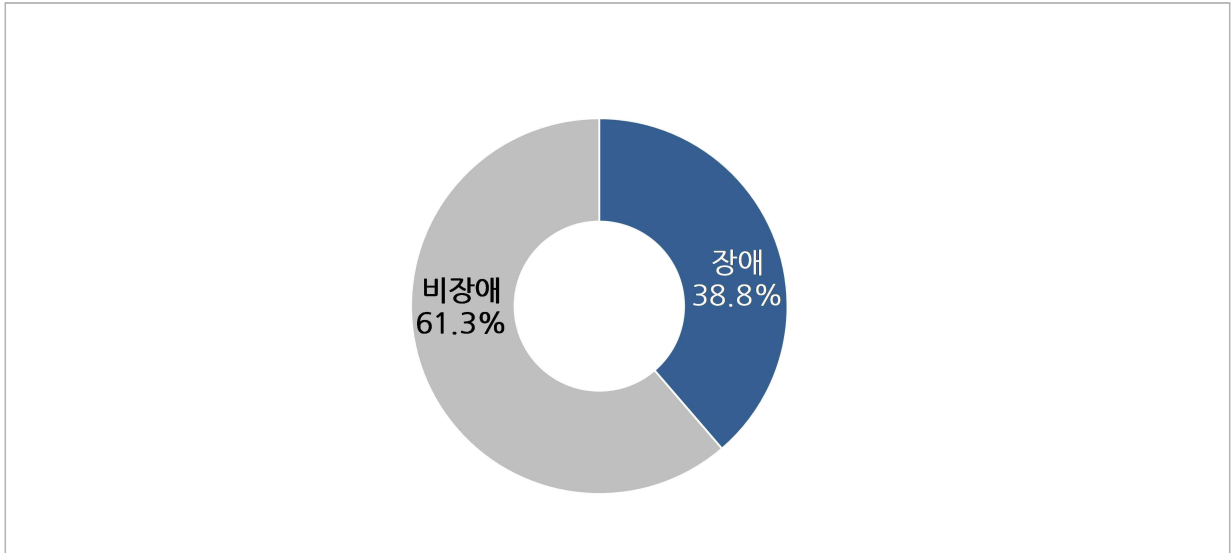


2. 장애여부

- 인터뷰 대상자 중 장애인선수이거나, 장애인선수 학부모, 감독이 장애인인 비율은 38.8%임

[그림 47]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_장애 여부

(Base: 심층인터뷰 대상자 8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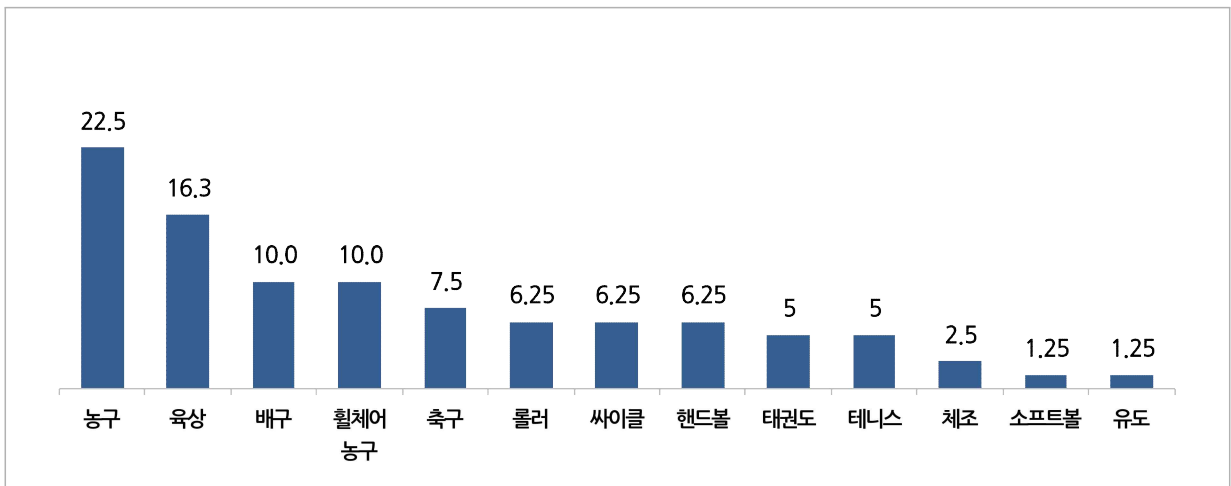


3. 종목

- 인터뷰 대상자의 종목은 '농구'(22.5%), '육상'(16.3%), '배구', '휠체어농구'(각 10.0%) 등의 순으로 많았음

[그림 48]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_종목

(Base: 심층인터뷰 대상자 80명,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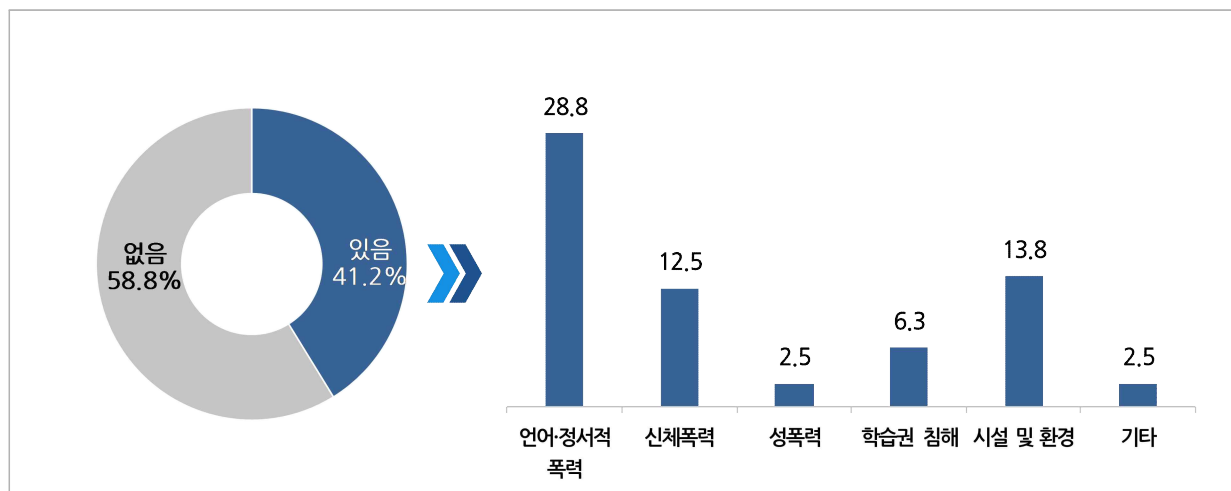


4. 인권침해 경험

- 본 인터뷰에 앞서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목격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 직·간접적 경험이 있는 비율은 33명(41.2%)임
- 이들 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항목을 중복으로 질문한 결과, ‘언어·정서적 폭력’이 28.8%, ‘시설 및 환경’ 13.8%, ‘신체폭력’ 1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9] 심층인터뷰 응답자 특성_인권침해 경험

(Base: 심층인터뷰 대상자 80명, 단위 : %)



2 인권침해 현황 및 홍보활동

1. 대회 안내 책자 및 리플릿 배포

-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 주최단체가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내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및 신고·상담 방법 등을 기재된 ‘대회 안내 책자’를 배포하거나 안내 리플릿을 경기장 내부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 심층인터뷰 대상자 80명 중 안내 리플릿을 경기장 내부에서 본적이 있는 응답자는 33명(41.3%)이었으며, 경기장에서 보지는 않았으나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12명(15.0%)으로 나타남
- 반면, 안내 책자 및 리플릿을 보지 못한 응답자도 절반에 가까운 35명(43.8%)로 높게 나타남. 모르고 있었던 응답자 중 대부분은 관심이 없거나 대회에 집중하고 있어 모르고 있었다고 언급함

주요 인터뷰 내용

- 관심이 없어서 몰랐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대회에만 집중해서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없었음 (소프트볼,선수,비장애)
- 배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관심도 없어서 몰랐던 것 같다. 추가로 따로 안내가 없어서 몰랐던 것 같음 (육상,선수,비장애)
- 접해 본적이 없고, 인권위원회 광고는 봐서 알고는 있었으나 책자 여부는 몰랐음 (롤러,보호자,비장애)
- 배부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경기장 세팅 시 샤워실, 대기실 등에 매뉴얼을 부착하는 업무를 진행하지만 확인한 적이 없음 (태권도,지도자,비장애)
- 선수 책자는 있었으나 인권에 관련된 책자는 준비되어있지 않았음 (농구,선수,비장애)

2. 경기대회 인권침해

1) 인권침해 경험

- 경기대회 중 감독 등 지도자나 선수에게 욕설,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 경험과 침해 대상에 대해 각각 질문함
- 인터뷰 대상자 80명 중 68명(85.0%)은 인권침해 경험이 없었으나, 12명(15.0%)은 지도자, 운동부 선배, 소속팀 선수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언급함
- 인권침해 대상은 중복 응답으로 질문했고, 감독, 코치 등 '지도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동부 선배' 3명, '소속팀 선수' 5명으로 확인됨

2) 인권침해 대처 방안

- 경기대회 중 지도자, 운동부 선배, 소속팀 선수에게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대처 방안에 대해 질문함
- 인권침해 경험 있는 응답자 12명 중 8명(66.7%)은 신경 쓰지 않고 참거나, 인권침해 대상자가 지도자나 선배이다 보니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었다고 응답함
- 직접 말로 제지하거나, 대회가 끝나고 대화로 풀었다는 응답자는 4명(33.3%)으로 확인됨

주요 인터뷰 내용

- 당시에는 그냥 맞고 욕 듣고 무방비 했음 (사이클,선수,비장애)
- 인권침해를 한 대상이 지도자이다 보니 대들 수 없어서 그냥 참고 넘어감 (육상,선수,비장애)
-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대처하기 어려움 (육상,선수,장애)
- 앞으로 경기를 생각해서 참았음 (축구,선수,장애)
- 높은 분들이시거나 선배면 그냥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넘어감. 동갑인 친구나 후배면 똑같은 행동을 해줌 (농구,선수,비장애)
- 지도자가 했을 때는 그분에 직접 말을 함으로써 제지함 (사이클,지도자,비장애)
- 대회가 끝나고 나중에 대화를 통해 서로 사과하고 화해함 (육상,선수,비장애)

3) 타인 및 기관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

- 욕설,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했음에도 타인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참았다는 응답자 8명에게 타인과 기관에 도움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함
- 인권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응답자는 독려 차원의 꾸짖음과 인권침해의 기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별도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5명임
- 도움 요청 시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일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을 염려해 요청하지 않은 응답자는 3명으로 확인됨

주요 인터뷰 내용

- 인권침해 행위 자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정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넘어감 (농구,선수,비장애)
- 불편한 관계가 되고 싶지 않고 선수에 대한 관심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농구,선수,비장애)
- 폭행까지 안가기도 했고 나는 나이가 있고 하니까 그냥 참는 것이 나은 것 같음 (축구,선수,장애)
- 신고하게 되면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가 갈까봐 걱정됨 (농구,선수,비장애)
- 도움을 청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일이 더 커질까봐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육상,선수,비장애)
- 신고 후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후환(재계약 불발)이 걱정됨 (육상,선수,장애)

4) 폭력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 언어, 신체,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함
- 상명하복 관례 및 악습이 남아 있어 근절 어렵다는 의견과 성과 우선주의, 교육 및 홍보부족 등의 의견이 있었음

구분	내용
관례 및 악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위주로 가고, 지도자들도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이러한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 같음. 현장도 모르면서 정부에서 너무 탁상공론만 하는 것도 문제 (사이클,지도자,비장애) ▪ 지도자들도 당해왔기 때문에 이어지는 악습 (유도,지도자,비장애) ▪ 운동 특성상 선수 독려와 훈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임 (태권도,지도자,비장애) ▪ 체육계의 악습이 남아있다고 생각함. 프로팀 같은 경우, 모든 종목이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습이 남아 있음. 피해가 갈까봐 자신의 목소리를 잘 못 내기 때문에 악습이 남아 있다고 생각함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보기에 선수들에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말로 해서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음 (농구,선수,비장애) ▪ 스포츠 구조에 상하관계가 존재해서 (배구,선수,장애) ▪ 감독 코치분들 세대가 폭력이 익숙한 세대가 보니 습관이 되어서 바로 근절되지 못한 것 같음. 특히 운동쪽 이다보니 안전이나 성과에 예민해서 압박감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음 (사이클,선수,장애)
성과 우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승리지상주의, 금메달 만능주의, 지나친 성과주의, 체육계의 고질적인 폐쇄성,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시대와 맞지 않는 특기생 제도가 문제라고 생각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성적을 위한 압박 때문 (배구,선수,장애) ▪ 선수들이 경험을 통해 배워가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혹독하게 관리 감독하다 보니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체육계를 둘러싼 성과위주 때문이라고 생각함.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 감독이나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테니스,보호자,비장애)

<계속>

구분	내용
교육 및 홍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부족함. 다른 종목들보다 구기 종목이 심각한 편인데 종목별 특성은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인 교육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지도자 인권교육이 부족해서 (농구,선수,비장애) ▪ 지도자와 선수들에게 인권침해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구,선수,장애) ▪ 관련된 홍보나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음 (축구,선수,장애)
지도자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자질이 없는 지도자가 존재하며 지도자 욕심으로 종종 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함 (태권도,지도자,비장애) ▪ 폭언이나 폭력을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 때문 (농구,선수,비장애)
처벌 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을 저지른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함. 또한 다른 곳에서도 계속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농구,선수,비장애) ▪ 신고를 해도 나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 (소프트볼,선수,비장애)
익명성 미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신고 어려움 (농구,선수,장애) ▪ 진로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소문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암암리에 폭력 이뤄지고, 근절되지 못한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보복성으로 인해 선수생활에 지장 우려 (핸드볼,선수,비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는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전체기합을 받거나 따로 불러서 폭력을 했었음. 요즘은 폭력이 근절되었다고 생각함. 술을 마시고 선수끼리 또는 어린 스텝한테 뺨 정도 때리는 걸 본적은 있는데, 거의 근절되었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5) 인권침해 시 정부의 노력

- 욕설,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에게 바라는 노력에 대해 질문함
- 지도자나 선수 모두에게 인성교육 등 소양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속적인 설문조사나 현장실태 파악 또한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교육하고, 관련 지도자들은 교육 하고, 법 제도를 심어줘야 함. 시대 흐름에 따라 맞춰 변화 해야하고, 사람이다 보니 순간 감정에 의해 욕할 수 있으나 노력 필요함 (농구,지도자,비장애) ▪ 더 많은 연수를 통해서 학생선수들에게 인권침해 영역을 알려 주어야 함 (유도,지도자,비장애) ▪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관련 법에 의거해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해야 함 (축구,지도자,비장애) ▪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 뿐 아니라 인성교육 등 소양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 교육이 필요함 (태권도,지도자,비장애) ▪ 인터넷상의 동영상 교육은 반대함. 각 팀이나 협회에서 시간을 내서 다 모아놓고 강제적인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음. 강사에게 당시 교육을 받을 때 다양한 사례별로 안내를 해줬는데 당시 지도자들한테 경각심을 주면서 도움 되었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지도자의 경우,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증가해야한다고 생각함. 또한 선수의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교육해주었으면 함 (배구,지도자,비장애) ▪ 인권침해 예방에 대한 캠페인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지도자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함 (농구,선수,비장애) ▪ 코치님들을 모아서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농구,선수,비장애) ▪ 교육이 가장 중요함. 다치기 전에도 운동했었는데, 그때는 폭력이 기본이었음. 요즘은 교육으로 인해 많이 바뀐것 같음. 교육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강화하고 주입하면 많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함 (배구,선수,장애) ▪ 지도자에 의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 연수가 많아졌으면 좋겠음. 또한 인권침해 인지를 위한 학생들의 교육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더불어 교육 시 기관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기관이 신뢰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계속>

구분	내용
지도자 처우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체육대회 경우 무료봉사가 많아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 같음. 처우 개선이 되면 선수들도 책임감이 생기고 인권침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함 (배구, 지도자, 비장애) ▪ 지도자의 환경이 열악 하다보니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것 같음. 계약직이다 보니 성과를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하는 것 같음. 이러한 환경을 개선해야 인권침해가 감소할 것 같음 (농구, 선수, 비장애)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 수위를 올리는 등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력 해져야 한다고 생각함 (핸드볼, 지도자, 비장애) ▪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처벌이 제대로 확실히 이루어져야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음 (휠체어농구, 지도자, 장애) ▪ 옛 세대는 습관이기 때문에 나올수 밖에 없는 것 같음. 처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음. 말이 교육이지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처벌을 강화하면 좋을 것 같음 (사이클, 선수, 비장애)
현장 실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너무 탁상공론만 하는 것 같아 문제. 현장을 너무 모름. 좀 더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대처를 해줘야 함. 식비도 7-8천원인데, 요즘 물가로는 먹을 수도 없음 (사이클, 지도자, 비장애) ▪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또한 인권침해 행동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농구, 선수, 비장애) ▪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함 (배구, 선수, 장애) ▪ 현장에서 와서 직접 경험해보고 알아 보는게 좋을 것 같음. 말만 듣거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보다 대회 때 직접 상황을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음 (배구, 선수, 장애) ▪ 구두로 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니 경기나 대회가 있으면 직접 참관하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할 듯함 (농구, 보호자, 비장애)
구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들을 원인 분석해서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교정 해야함. 그런데 정부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처방한다고 생각함. 구조상 학교 체육은 문체부, 교육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운동하는 학생 선수들의 인원이 적다 보니 관심이 없고, 주로 문체부가 장악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 선수들은 교육부 소속이다 보니 그 중간에서 허점이 있음. 교육부에서는 지역 교육감들에게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더 관리해 주어야 함 (육상, 지도자, 비장애) ▪ 교육을 강화하는 것보다 우선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메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물론 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많은 도움은 되지 않음.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함. 지침, 윤리강령 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핸드볼, 지도자, 비장애) ▪ 시스템이 변화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생각함 (육상, 선수, 비장애) ▪ 선수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결과에 치중하는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육상, 선수, 비장애)

<계속>

구분	내용
정부 개입 비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오히려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음. 전체적인 부분에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음. 일단 데스크부터가 문제다. 필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 데스크부터 필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며, 그런 사람들이 정책과정 같은 것을 논해야 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선수와 감독간의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필요 없다고 생각함 (태권도,지도자,비장애) ▪ 정부가 관리하기는 어렵고 개개인이 인권침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농구,선수,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운동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자가 제제를 많이 하고 있음. 그런데 너무 표면화하면 선수들이 지도자를 역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인권을 위한 방안도 생각해주시었으면 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CCTV설치를 늘리면 좋을 것 같음 (태권도,선수,장애) ▪ 인권위원회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워서 잘 유지하면 될 것 같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노력 자체는 잘 하고 있음. 조사기관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함. 다만 홍보가 조금 미약하다. 폭언 등 인권관련 홍보활동 등이 많아져야 할 것 같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3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1. 대회 출전·시합 준비로 인한 수업 미참여

1) 수업 미참여 여부 및 시간

- 학생선수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회출전이나 시합준비, 훈련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과 시간에 대해 질문함
- 응답자 27명 중 22명(81.5%)이 학교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대부분이 대회나 시합이 있는 날에만 하루 전체를 결석한다고 응답했으며, 주기적으로 미참여 하는 학생은 하루 평균 약 1~2시간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인터뷰 내용

- 대회전에 경기장 트랙 적응이 필요해서 길면 일주일 정도 짧으면 4일 정도 통으로 학교를 빠지는 편임 (롤러,선수,비장애)
- 대회가 있는 날만 수업을 빠지고 거의 빠지지 않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대회출전 시에는 수업을 통째로 빠지게 되고, 연습 게임 시에는 3시간(3교시)정도 빠지게 됨. 훈련 때문에 수업을 빠진 적은 없음 (농구,선수,비장애)

2) 학교수업 배제 시 수업 보충 방법

- 대회출전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선수와 학부모 22명에게 학교 수업 보완 방법에 대해 추가 질문함
- 응답자 중 16명(72.7%)이 인터넷 강의인 'e스쿨'을 통해 수업을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명(27.3%)은 수업을 보충하지 않거나 학원이나 학교에서 별도로 수업 듣는다고 언급함

주요 인터뷰 내용

- e스쿨 인터넷 강의를 통해 보완
- e스를 들으면서 공부함. 완벽하게 보완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보완된다고 생각함 (농구,선수,비장애)
- 학생선수 'e스쿨'을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학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는 괜찮지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이 아니다 보니 성적평가를 받을 때 불리한 점 있음 (농구,선수,비장애)

2.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1) 찬·반 의견

- 2020년부터 교육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라 수업 결손 방지 등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로 인한 결석을 일부만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있음

<참고>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

- 2022년 대회·훈련 결석 허용일수 : 초등학생 5일, 중학생 12일, 고등학생 25일
 -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문체부)과 연계하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지속 감축 추진
- 위와 같은 기본계획에 대해 응답자 24명 중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1명(48.5%),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3명(54.2%)으로 나타남
 - 찬성과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충수업이나 외부학습을 통해 수업을 인정해준다고 하면 공부와 운동을 겸비할 수 있어 긍정적임 (농구,선수,비장애) ▪ 선수들 대회를 위해 결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농구,보호자,비장애)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운동과 학업을 병행 해야하는 시스템임. 그런 점에서 운동이나 학업 둘 중 하나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함. 방학이나 주말에만 경기를 치루게 하여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업에 대한 비율을 낮추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농구,선수,비장애) ▪ 출석 인정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는 대회가 있음. 어린 선수들에게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석 인정을 좀 더 늘려줘 경기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해야 함 (농구,선수,비장애) ▪ 결석 허용일 수 짧다고 생각함 (롤러,선수,비장애 / 싸이클,선수,비장애 / 육상,보호자,장애) ▪ 출석일수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허용일수를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학교팀 이름으로 출전해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함. 또한 빠진 수업에 대한 보강이 또 이루어져 학생선수들만 힘들어짐 (태권도,선수,비장애) ▪ 공부하는 아이가 아니라 운동하는 아이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수업일수보다 운동량을 더 늘려주면 좋겠음.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지키는 지역은 다 지키는데 운동시간이 너무 적고 그렇게 되면 성적에서 확실히 차이가 느껴짐 (롤러,보호자,비장애)

2) 개선 방안

-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안)에 반대한 응답자 13명 대상으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추가 질문함
- 기본계획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학생들의 학습권보다 대회출전을 더욱 중요 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회 참여시 결석 허용을 요청하는 응답자도 있었음

주요 인터뷰 내용

- 출석 인정 횟수를 더 늘려줘야 함 (농구,선수,비장애)
-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시험이 곧 시험이기 때문에 대회 참가로 인한 결석은 모두 출석인정 해주어야 함 (농구,선수,비장애)
- 대회 때마다 결석이 허용되었으면 좋겠음 (롤러,선수,비장애)
- 수업 결석 일수를 넘어서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없게 제도를 개선해야 함 (사이클,선수,비장애)
- 고등학생 기준 30일 정도로 조금 더 늘려주었으면 함. 주말에 대회가 있고, 평일에 학교수업을 나가야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음. 출석일수를 허용해주면 평일에 여유를 가질 수 있음 (육상,선수,비장애)
- 출석인정 횟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선수들은 시험일수 때문에 시험을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김. 이는 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학교 이름으로 출전하는 것은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인정되어야하며 보충 수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함 (태권도,선수,비장애)
- 일수를 좀 더 늘리고 현실적으로 운동하는 애들한테 시험보기 전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루 3시간 운동을 법으로 정해봤는데 이러한 점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학생들이 결석일 인정보다 대회가 더 많아서 참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운동부는 내신(성적)이 대학진학 때문에 중요하다 보니 결석할 수가 없어서 25일은 좀 타이트한 것 같음. 결석 인정을 좀 더 유통성 있게 늘려줬으면 좋겠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목표가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전반적으로 공부와 운동이 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시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고등학생은 25일만으로 시험이 다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야 하는데, 실외 종목의 경우 날씨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말만 이용하면 이것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음 (육상,보호자,장애)

3.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 찬·반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주중 대회를 주말 또는 방학 중에 대회로 전환하도록 권고하였고, 문체부에서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권고안에 대해 응답자 24명 중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13명(54.2%),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1명(48.5%)로 나타남
- 반대하는 응답자 11명의 세부 반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인터뷰 내용

- 대회 참여를 위해 지방을 가게 되는데 주말에만 경기가 있으면 서울과 지방을 왔다갔다 해야하는 번거로움 있음 (농구,선수,비장애)
- 대회를 주말로 전환하면 주말마다 대회가 몰리게 됨. 그러면 흐름이나 리듬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음 (농구,선수,비장애)
- 주말과 방학에만 대회가 개최되면 경기공백기가 생겨 운동선수로서의 역량이나 집중력이 떨어져 역량이 떨어질 수 있음 (농구,선수,비장애)
- 평일에는 공부와 훈련을 하고 주말에 경기를 진행하면 선수들이 실 시간이 매우 부족해짐 (농구,선수,비장애)
- 종목 특성상 날씨 영향을 받아 주말만 할 경우 경기가 미뤄지면 경기 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임 (롤러,선수,비장애)
- 주말에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일 수업을 함께 해야한다는 의미임. 훈련에 치중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과 훈련이 함께 가기가 힘들 (육상,선수,비장애)
- 학생들이 주말에 시합을 하게 된다면 주말 경기가 끝난 후 바로 학교로 수업을 하러 가게 됨. 그러면 휴식시간이 선수에게는 주워질 수 없게 됨. 회복이 가장 필요한 선수들에게 학업을 강요하게 된다면 이것은 부상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게 됨 (육상,선수,비장애)
- 주말 경기로 진행된다면 한 달 내내 주말 경기를 위해 이동해야 하며 체급 관리를 해야 하는 선수는 일 년 내내 체중관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 있음 (태권도,선수,비장애)
- 주말에 휴식시간을 갖는데 대회가 주말에 개최되면 휴식시간이 없어서 힘들 (핸드볼,선수,비장애)
- 운동하는 애들은 주말에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이 있는데, 오히려 주말로 미루면서 평일, 주말 모두 운동에만 매달려 있어서 10대의 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시합을 매번 나간다고 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하지 않음. 의지가 없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데 이것을 일반화 시켜서 학습을 강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함 (육상,보호자,장애)

4. 학교체육진흥법

1) 학교체육진흥법 규정의 학습권 회복 도움 정도

-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 있게 취할 수 있도록 주중에 개최되는 경기를 최소화 하는 등 대회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학교체육진흥법」에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들이 실제로 선수들의 학습권 회복 도움에 대해 질문함
- 응답자 24명 중 도움 된다는 응답자는 8명(33.3%),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6명(66.7%)으로 나타남

2) 학교체육진흥법 학습권 회복 도움 되는 이유

- 도움 된다는 응답자 8명 중에서도 진흥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구분	내용
도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됨 (농구,선수,비장애) ▪ 이론적으로는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운동과 학업, 휴식을 모두 챙기기에 어려움이 있음. 그리고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재능이 있더라도 대학 진학에 실패하여 더 큰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임. 따라서 운동이나 학업 둘 중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 진학 시, 성적 비율을 낮춰주거나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 평균이하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공부와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힘듦 (농구,선수,비장애) ▪ 도움은 되지만 운동을 하다보면 시험 준비가 미흡해지기 때문에 시험 커트라인이 낮아졌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해서 경기를 나갈 수 있게 해줘서 최소한 공부량을 보장받음 (롤러,선수,비장애) ▪ 학생선수이기 때문에 최저학력은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학생들이 주로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대회 성적으로 진로를 정하기 때문에 학습권이 너무 편중되는 것 같아서 운동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3) 학교체육진흥법 규정의 학습권 회복 도움 정도

-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 16명에게 학교체육진흥법 개선 사항을 질문 했으며, 학습권 보다 운동에 전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p>도움 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만 해야 그 분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기준이 불필요하고 없어야 한다고 생각함 (농구,선수,비장애) ▪ 학습도 중요하지만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에 집중을 더 해야 함. 학습과 운동의 비율 조율이 중요할 것 같음 (농구,선수,비장애) ▪ 공부와 훈련 병행 하게되면 운동에만 집중할 체력이 부족함 (농구,선수,비장애) ▪ 공부를 잘못해도 시험에는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음 (롤러,선수,비장애) ▪ 각 시,도에 따라 혹은 각 코치에 따라 다른데, 어떤 코치님들은 오전, 오후 야간 운동을 다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음. 그 경우 공부시간이 부족해 최저학력에 제한 되기 때문에 출전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음 (롤러,선수,비장애) ▪ 선수들은 공부 보다 운동을 더 생각함. 현재 공부보다 운동에 더 집중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대회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임. 운동선수로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희망을 없애는 것임. 이에 학생들에게 학업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공부를 하는 학생이 운동을 못했을 때의 페널티는 없는데 운동을 하는 학생이 공부를 못했을 때 페널티를 가지는 것은 부당함. 운동선수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최저학습권만을 보장했으면 좋음 (태권도,선수,비장애) ▪ 엘리트 체육은 다른 학업보다는 체육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학업에 소홀할 수 밖에 없는데 학업은 온전히 개인의 노력으로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라 어려움을 느낌. 개인의 노력 외에도 학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핸드볼,선수,비장애) ▪ 운동하는 선수들이 공부를 하는 것은 맞는데 공부기준이 공부만 하는 애들 기준이라 형평성이 어긋 나는 것 같음. 그냥 운동하는 애들한테는 사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목(국영수보다 가정이나 기술 등)으로 성적을 내게 해주면 더 나을 것 같음. 할 수 있는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이 내신이 많이 안 필요했는데 요즘은 내신 성적관리가 필요해서 관리 해야할게 너무 많음. 운동을 늦게 시작한 친구들은 더 운동에 몰입해야하는데 그게 어려움. 운동하는 선수들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게 현실임 (농구,보호자,비장애) ▪ 운동하기도 바쁜데 공부까지 하기에는 무리 있음. 어릴 때부터 운동만 한 선수에게는 대회에 나가기 위해 평균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운동한다고 공부를 다 잘하거나 못하는 것도 아니라 성적이 어느 정도 안되면 대회 못나가게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음. 학습적인 부분에서 운동선수에게 좀 더 관대했으면 좋겠음 (롤러,보호자,비장애) ▪ 주중에 공부를 하고 주말에 시험을 하면 학생들은 언제 쉬는지 모르겠음. 이에 대해 고려해줬으면 좋겠음 (육상,보호자,장애)

5. 날씨 영향에 따른 훈련 방법

- 7개 대회 중 10월에 개최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제외한 5개 대회는 6월에서 8월까지 더운 날씨에 진행되었음
- 농구, 롤러, 태권도, 핸드볼 등 실내 종목은 날씨와 관계없이 훈련 진행했으며, 육상 등 실외 종목은 열사병 위험이 높아 실내훈련으로 대체하거나 날씨 영향을 덜 받는 곳으로 전지훈련을 떠난다는 응답도 있었음

주요 인터뷰 내용

- 덥고 습한 날에는 체육관의 바닥이 딱딱해짐. 그러면 발목 부상의 위험이 커서 더 조심하면서 훈련에 임하는 편임. 그렇지만 훈련에서 차이는 없음 (농구,선수,비장애)
- 너무 더우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분이 알아서 훈련량을 조절해주심 (농구,선수,비장애)
- 실내운동이라 날씨와 상관없이 훈련 진행됨
(농구,선수,비장애 / 농구,선수,비장애 / 태권도,선수,비장애 / 핸드볼,선수,비장애)
- 더운 날에는 주중과 주말 훈련 모두 휴식시간이 평소보다 충분히 이루어짐 (소프트볼,선수,비장애)
- 육상이라는 종목이 실외에서 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날이 더우면 열사병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실내에서 웨이트를 하는 등 실내체육관에서의 훈련으로 대체함 (육상,선수,비장애)
- 덜 더운 곳으로 가기 위해 전지훈련을 감 (육상,보호자,장애)
- 실내에서 하다 보니 여름에는 좀 서늘한 시간대에 에어컨을 틀고 함 (농구,보호자,비장애)
- 실내운동이어서 날씨와 상관없이 동일한 훈련 방법으로 진행함 (농구,선수,비장애)

6. 훈련 방법

1) 주중 훈련 방법

- 주중과 주말 동일하게 훈련한다는 응답자도 2명 있었음

주요 인터뷰 내용

- 시합이 남아 있어서 평소처럼 운동하고 있음 오후-야간 운동으로 4-5시간 정도 운동함 (농구,선수,비장애)
- 월-토에는 오전/오후/야간에 최소 2시간씩 훈련 함 (농구,선수,비장애)
- 오후와 야간에 운동함 (농구,선수,비장애)
- 고등부, 중등부랑 같이 운동하기 때문에 수업이 먼저 끝나는 중등부가 먼저 훈련을 시작함. 날씨에 관계없이 운동량은 똑같음. 다만, 겨울에 길이 매우 미끄러울 때 안전을 대비해 계단 운동이 제외됨 (롤러,선수,비장애)
- 하계훈련이 이루어지며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훈련을 하게 됨. 그렇지만 보통 합숙훈련이 더 많음 (육상,선수,비장애)

2) 주말 훈련 방법

- 대회가 없는 주말의 경우 토요일까지 훈련하고,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확인됨

주요 인터뷰 내용

- 토요일 오전에만 운동하고 일요일까지 쉬 (농구,선수,비장애)
- 개인 레슨 받음 (농구,선수,비장애)
- 오전, 오후 2타임 운동 함 (농구,선수,비장애)
- 휴식 또는 개인 재량 (롤러,선수,비장애)
- 토요일/일요일, 오전/오후 둘 중 한 번만 훈련하고 쉬 (육상,선수,비장애)
- 토요일에만 진행 (농구,보호자,비장애)
- 대회가 있으면 주말에 훈련하고 대회가 없다면 쉬는 편임 (농구,보호자,비장애)

3) 훈련 시간

- 방과 후 와 주말 훈련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 24명 중 정확한 훈련시간을 언급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2명의 방과 후 평균 훈련 시간은 3.29시간, 주말 훈련시간은 2.67시간으로 주말 훈련시간이 방과 후에 비해 약 30분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남

4 시설 및 환경

1. 경기대회 참가 시 숙소 환경

- 원거리 경기대회 참가 시 이용하는 숙소 환경에 대해 응답자 모두에게 질문했으며, 응답자 중 37명(46.3%)이 숙소 환경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함

구분	내용
숙소 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았음. 주로 2인 1실로 사용함 (농구,선수,비장애) ▪ 대체적으로 깔끔하고 좋음 (농구,선수,비장애) ▪ 부모님과 학교 측이 함께 알아봄. 깔끔한 편임 (농구,선수,비장애) ▪ 1인 1실로 쾌적한 편임 (싸이클,선수,비장애) ▪ 항상 깔끔하고 좋은 숙소를 이용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숙소 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응답자는 예산에 맞춰 숙소를 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 숙박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으며, 종목 대회가 아닌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숙소 컨디션 보다 근거리의 숙소를 예약하기가 어려워 불편했다는 의견 다수 있었음

구분	내용
숙소 불만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 자체가 구하기 힘든 것 자체가 문제. 숙박비가 10만원, 7만원 내다 보니 제한되어 환경이 떨어짐. 일반적인 숙소라 위생적으로 열악한 것은 아님. 예산 때문에 맞춰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아졌다는 의미함 (농구, 지도자, 비장애) ▪ 이번 장애인 체전의 경우 숙소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다. 단가도 많이 높았음. 이용한 숙소의 환경도 단가에 맞추다 보니 열악함. 배구대회만 했을 때는 주최측에서 숙소 구하기를 도왔으나 전국 체전은 모든 종목이라 그런 부분이 없었음 (배구, 지도자, 비장애) ▪ 우선 숙소 찾기도 너무 어려움. 금액 맞추기도 힘들고, 환경도 많이 떨어짐 (싸이클, 지도자, 비장애) ▪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 대체적으로 숙소 환경이 좋지 않음. 시설면에서 열악하고,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못함.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숙소를 모텔을 이용하는데 모텔이 유흥하게 위치하기 때문임. 그런 점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경우 더 위험한 것 같음. 육상 같은 경우 대회유치를 안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회 유치비를 내야하는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회유치부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그리고 추가적인 체육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열리는 데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음 (육상, 지도자, 비장애) ▪ 부득이하게 모텔을 잡는 경우 발달장애 선수에게 시각적 자극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음 (축구, 지도자, 비장애) ▪ 특히 전국체전 땀 숙소를 잡는 것이 어려움. 전국체전의 경우, 일년 전에 예약해도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숙소예약에 대해 체육회나 협회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음 (핸드볼, 지도자, 비장애) ▪ 숙소는 보통 2인 1실을 쓰는데, 화장실이 좁고, 좋은 숙소들을 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음. 숙소 경쟁이 늘 심한 편임. 2인 1실의 경우 트러블이 있는 선수들끼리도 가끔 방이 될 때도 있음 (휠체어농구, 지도자, 장애) ▪ 농구경기만 치루는 경기대회의 경우엔 숙소의 퀄리티가 좋지만 다른 종목들과 겹치게 되면 숙소의 퀄리티가 좋지 못함. 인근 숙소는 한정되어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몰리다보니 외각으로 숙소를 잡을 수 밖에 없음. 그런 경우 이동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힘이 들고, 외각에 있는 숙소일수록 오래된 경우가 많아 숙소 환경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음 (농구, 선수, 비장애) ▪ 숙소 예매가 어렵고 불친절하며 바가지 요금도 존재함 (농구, 선수, 비장애) ▪ 숙소가 모텔이라 당황스러움. 숙소 구하기가 어려워 나중에는 구하면 다행임. 어떤 경우는 숙소 구비 없이 대회 개최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숙소 구하기가 어렵고, 숙소 주인들이 운동 팀을 꺼려함. (농구, 보호자, 비장애) ▪ 현재 숙소 환경이 매우 열악함. 경기장 주변 시내에서 모텔을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옆방에서의 성관계 소리가 그대로 들림. 또한 TV에 아이들이 시청하기 부적절한 채널이 잠겨있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함. 특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이들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됨. 그리고 경기대회장과 가까운 곳의 숙소를 모두가 이용할 수 없음. 가까우면 10km 떨어지고, 멀면 20km 이상으로도 떨어짐. 이동거리가 늘어나다 보니 아이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위험에도 노출된다고 생각함 (테니스, 보호자, 비장애)

2. 숙소 이용 시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발생 사례 및 해결 방안

- 경기대회 중 숙소에 머무를 때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질문했으며, 응답자 80명 중 69명(86.3%)이 인권침해 및 안전문제 발생한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함
-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발생 사례 중 장애인 선수의 이동권 문제가 많았으며, 이외 선수 간의 작은 다툼이나, 넘어지는 등의 안전 문제도 있었음
- 인권침해 및 안전 문제 발생 있다고 응답한 11명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희망하는 사안에 대해 추가 질문함

응답자 특성	인권침해 및 안전문제 발생	해결방안
유도,지도자,비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을 이용하다 보니 어른들의 호텔 이용 모습을 보게 되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더 많아져야 함
롤러,선수,비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것은 없었음. 선수들끼리 장난치다 다치기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난이 과해질 수 있으므로 선수들끼리 서로 적당 선에서 멈추는 법을 배워야 할 것 같음
사이클,선수,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턱으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고 화장실 이용도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체전 홍보가 잘 이루어져 장애인편의시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음
사이클,선수,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가 지방이다보니 점자 보도블럭이 잘 안되어 있어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안전적으로 조금 불편함. 안내견과 숙소를 이용하는데 간혹가다가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보도블럭 설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시각장애 안내견 동반을 위해 공문을 보낸대던가 같이 정부 측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음
육상,선수,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은 지도자 관리가 필요함에도 선수는 숙소에 있는 동안 지도자들끼리 늦은 시간까지 음주문화를 즐김. 경기장까지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부기관에서 모든 관리를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실질적인 확인 필요. 음주 운전 조사도 필요함
육상,선수,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타는 선수들에 한해 안전 발생이 있었다고 들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설치 등 휠체어가 움직이기 편하도록 개선 필요.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동로 개선도 필요함
테니스,보호자,비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 계단이 가파르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부상 당한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합을 여는 지역과 체육회, 시군행정기관이 시합을 유치할 때 펜션 등 숙소 환경을 고려해주었으면 좋겠고, 지역 숙박업체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선수들이 환경적으로 개선되고 깔끔한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으면 좋겠음

3. 학생선수 이용 숙박시설 및 보호자 동행 여부

1) 주 숙박장소

- 학생선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모텔 및 유흥시설 밀집지역의 숙박시설(러브호텔 등)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음
- 대회 참여 시 주로 이용하는 숙박하는 장소에 대해 54명에게 질문함. 54명 중 유스호스텔, 호텔, 수련원, 펜션에 숙박하는 응답자는 13명(24.1%), 모텔을 이용하는 응답자는 41명(75.9%)로 높게 나타남

이용 숙박시설	내용
모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유흥시설이 있는 주변의 숙소를 사용하게 됨 (육상,지도자,비장애) ▪ 지방에서 시합을 하면 지역이 좁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있는 곳이 한정적임. 따라서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숙소 주변에 유흥시설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원거리 대회를 갈경우 거의 모텔을 이용(휠체어 때문에 트윈베드의 넓은 방을 사용). 모텔 특성상 유흥업소가 종종 있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유흥지점 밀집지역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주로 모텔 이용. 때에 따라 유흥업소가 밀집되기도 했는데, 이번 울산 체전의 경우 유흥업소는 없었음 (배구,선수,장애)
유스호스텔, 호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펜션이나 소규모 호텔을 이용 (농구,선수,비장애) ▪ 캠핑장 위주. 협회측에서 잡으면 모텔이나 좀 질이 떨어진 숙소였는데, 최근 바권 감독님이 직접 잡아주시면서 지인들이 운영하는 캠핑장 같은데로 가면서 시설 좋아짐 (축구,선수,장애) ▪ 유흥가가 아닌 곳에 위치한 호텔을 주로 이용함 (핸드볼,선수,비장애) ▪ 경기장 근처에 펜션에서 숙박하고 있고, 주변에 유흥시설은 없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 주로 펜션 위주로 숙박을 하고 있음. 부득이한 경우 유흥시설이 없고, 깨끗한 주변 환경에 위치한 모텔을 사용하기도 함 (테니스,보호자,비장애)

2) 동성 보호자 동행

- 인터뷰 대상자 중 학생선수 및 학생선수 지도자, 보호자 35명 대상으로 동성의 보호자 동행 여부를 질문함
- 응답자 중 3명(8.6%)은 동성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같은 성별의 선후배들과 같이 사용하여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언급함

주요 인터뷰 내용

- 혼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는 동성의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지 않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동성의 보호자 없음 (육상,보호자,장애)
- 동성의 보호자가 동행하진 않고, 같은 성별의 선후배들이 같이 이용해서 안전에는 이상 없다고 생각 (체조,보호자,비장애)

4. 화장실·대기실·탈의실·연습실 등 환경 및 개선사항

- 대회 경기장 내 화장실, 대기실, 탈의실, 대회 전 연습시설 등의 환경에 대해서 질문함
- 대회 경기장 등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응답자는 38명(47.5%)으로 나타남
- 경기장 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내용을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언급함

시설	내용
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구장이 없음. 비장애인 경기장이라 쉽지 않음.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구장이 마련되면 좋겠음 (싸이클,지도자,비장애) ▪ 육상의 경우, 공인을 받은 경기장에서 경기가 이루어져야 해서 경기장 자체의 환경은 나은 편이나 다른 종목은 잘 모르겠음. 다만 경기장을 보면 옛날에 지었던 경기장이 많은 만큼 시설이 노후화된 경우가 많음. 현대 시설로 바꿔줄 필요가 있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종목 특성상 보조 경기장이 있는데. 너무 좁음. 트랙에선 뛰고, 투척은 위험한 기구들을 던지고 있음. 다른 한쪽에서는 매트 깔아놓고 몸 풀고 있으며, 허들을 설치해서 연습도 하고 있음. 그런 부분에서 보조경기장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조마조마함. 종목별로 시합일정을 분리해서 보조경기장 사용을 조금 더 널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추가 보조경기장이 필요할 것 같음 (육상,지도자,비장애)

<계속>

시설	내용
연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울산 체전은 조금 실망스러움. 대기석이나 몸풀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음. 경기장을 정할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정했으면 좋겠음. 연습하고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었음 (배구,지도자,비장애) ▪ 종목 특성 상 종목 특성상 외부에서 워밍업 해야함. 그런데 몸을 풀 장소와 공간이 부족함. 또한 여름 낮시간 대에는 그늘이 부족함. 학생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고, 더 나은 곳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었으면 좋겠음. 그리고 실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늘을 좀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환경이 미약함. 특히 시합을 하기 전 몸풀 환경이 너무 안 좋음. 시멘트바닥, 비가 오는 날에는 복도에서 몸을 풀어야 함 시설적인 지원이나 자원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몸푸는 장소가 부족함. 야외에서 몸을 풀어야 하는 경우가 다수. 그늘막 같은 걸 마련 해주면 좋을 것 같음 (농구,선수,비장애) ▪ 몸푸는 장소가 부족하거나 아예 몸푸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음. 그런 경우 야외에서 몸을 풀어야 함. 더운 날에는 몸을 풀다가 지쳐버리기도 하고, 추운 날에는 제대로 몸이 풀리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올라감.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으면 함. 체육관 상황에 따라 야외밖에 없는 경우, 그늘막 같은 걸 설치해주었으면 함 (농구,선수,비장애) ▪ 농구장시설을 대회 때 경기할 때 빼고는 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몸을 풀 때 개인적으로 체크해보고 싶은 부분을 못하고 경기에 나가는 경우가 있음. 그런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 연습시설은 새벽에 한 두 시간씩 이용하는데 50-60곳의 학교가 모이다 보니 부족함. 테니스의 경우, 실내코트에 비해 실외 코트가 많은 편임. 그렇다 보니 비가 오거나 우중충할 때는 실내 체육코트가 부족함. 김천, 순창 등 테니스대회를 운영하는 곳 모두 실내 코트는 4곳뿐임. 그에 반해 실외 코트는 18-20개 정도 된다. 우천 시 실외 코트 경기가 중지되는데 그러면 실내코트로 경기가 물리면서 진행이 많이 밀리거나 일정 자체가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실내 체육코트의 보충이 필요함 (테니스,보호자,비장애)
대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실과 탈의실의 경우, 부족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많음. 가끔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경기대회가 야외에서 진행되다보니 많이 더웠고, 대기 장소가 부족함 (육상,선수,비장애) ▪ 외부에 가림막과 같은 걸 설치해주셨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 선수들이 많다보니 밖에서 대기 시간도 많다. 수가 부족하고 환경도 미약함 (휠체어농구,선수,장애)

<계속>

시설	내용
탈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의실이 별도로 없어서 현장에서 유니폼을 갈아 입어야 함(축구,지도자,비장애) ▪ 경기복도 탈의실을 따로 안내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숙소에서 미리 환복하고 겹옷을 입고가거나 하는 경우가 많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탈의실이 많지 않은 편이라 코트 구석에서 탈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필요 (배구,선수,장애) ▪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을 대체하여 사용함 (육상,선수,비장애)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의 경우, 굉장히 작음.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고, 추가 화장실이 있더라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장애인 화장실은 부족. 대회 초반에는 깨끗하나 시간이 지나면 너무 더럽고, 스케줄이 빡빡하다보니 사전연습도 어려움. 장애인 화장실 추가가 필요. 환경적으로 청결도 신경 써줘야 하고, 스케줄 조정이 필요함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화장실은 선수들이 많은데 장애인 화장실이 한 개 밖에 없음. 큰 대회의 경우 간이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줌. 그러나 그 화장실이 청결하지 못함. 그래서 보통 시합 전에 숙소에서 해결하고 대회장에 감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장애인 화장실이 좁아서 휠체어 이동이 어렵고 하나밖에 없어서 대기시간이 김. 화장실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농구,선수,장애) ▪ 경기대회의 후반부로 가면 화장실이 더러워짐. 그냥 선수들이 깨끗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장애인화장실의 수가 늘었으면 좋겠음. 연습시설은 너무 한정 되다보니 건물을 짓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장애인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선수들이 10명이면 한 명당 화장실 이용 시간이 2-30분인데 이용하기 너무 어려움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화장실이 부족했음. 장애인 화장실이 한 칸 밖에 없는데, 보통 대회에 선수들만 5-60명이고,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선수들은 3-40명이라 화장실이 부족함 (휠체어농구,선수,장애)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관리되어야하고 장애인 화장실이 추가 개설 되어야 함 (농구,선수,장애) ▪ 샤워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이 많아 아쉬움 (농구,선수,장애) ▪ 샤워실도 있으나 부족해서 아예 사용할 수가 없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간이 협소함 (농구,선수,장애) ▪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함 (농구,선수,장애) ▪ 엘리베이터가 하나만 있거나 건물 내 자체행사로 복잡하고 불편함이 있음. 코로나 방역 또한 미흡함 (배구,선수,장애) ▪ 이번 체전에서는 많이 미흡했음. 체육관 옆에 예식장도 있어서 하객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이용해서 대기시간도 길었음. 다른 대회는 전용체육관이다보니 환경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만족스러웠음 (배구,선수,장애) ▪ 개인 락커룸 같은 경우 미흡했음. 확실하게 팀 구분을 위해 칸막이라던가 의자, 책상 구비를 했으면 좋겠음 (축구,선수,비장애) ▪ 쓰레기 버릴 곳이 마땅히 안보임. 쓰레기통을 많이 배치하고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환경을 개선하면 좋겠음

5. 선수 건강권 침해 방지를 위한 경기일정

- 경기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건강권(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지 질문함
- 응답자 80명 중 64명(80.0%)은 경기 일정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한 16명(20.0%)의 건강권 침해 상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인터뷰 내용

- 체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팀당 하루 한 경기라 너무 여유로웠고, 지역경기는 이틀에 모두 치러야 해서 버거워함 (배구,지도자,비장애)
- 경기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다 갖추고 할 수 없음. 왜냐하면 시간을 지키고, 일정 안에 끝내야하기 때문임. 특히 일반부나 대학부, 실업부는 경비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기 자체를 고려하는 것보다 외적인 요인에 더 신경쓰게 됨 (육상,지도자,비장애)
- 경기대회 간의 일정 같은 경우, 학생선수들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주말을 꺾어서 경기가 있음. 3-4일 정도 연달아 시합을 뛰고, 바로 일상에 복귀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 보임 (육상,지도자,비장애)
- 경기대회 중의 일정 같은 경우, 단거리종목은 하루에 예선, 준결승, 결승을 한 번에 다 진행하는 경우가 있음. 학생부의 경우는 한 번에 진행되는 경우가 있음. 단거리이지만 한 번 뛰기 위해서 선수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전 준비를 해야함. 그런 부분에서 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봄 (육상,지도자,비장애)
- 프로그램 일정에 전문성이 떨어짐 전문가들이나 프로그램 전문가가 짜주지 않다보니 일정이 미흡함. 다른 종목의 성인 남성같은 경우, 이틀 연속경기가 없음. 근데 핸드볼 같은 경우는 5일 연속으로 경기가 이뤄지기도 함. 일주일 안에 끝내야하기 때문에 일정이 그렇게 짜여지고, 그렇다보니 선수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봄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선수들이 대부분 오후에 훈련을 많이 하는데 보통 오전에 일찍 경기를 많이 안하는데, 체전은 토너먼트라 오전 9시에 일찍 경기가 잡힐 때가 있음. 이런 경우 선수들이 매우 힘들어함. 휠체어 농구 리그 같은 경우는 늘 오후에 잡힘. 전국체전이 일정이 오전이라 그 부분이 아쉬움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이번 대회부터 참가 제한 종목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구분이 흐려져 주특기를 다지기 어렵고 훈련량이 많아졌음 (롤러,선수,비장애)
- 경우에 따라 다른데 뻑뻑할 때도 있음. 주말에 예선이 잡힐때 토요일에 다 끝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좀 뻑뻑한 것 같음 (배구,선수,장애)
- 종목 특성 상 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대비책이 없어 선수들의 건강권이 침해되기도 함 (사이클,선수,장애)
- 장애인 쪽이 훨씬 일정이 타이트하는게 느껴짐. 장애인 전국체전 때 변화가 느껴지긴 했는데, 다른 일반시합은 당일치기나 시간대가 촉박하고, 한여름에 12시 1시에 시합을 하는 등 많이 급하고 타이트한게 느껴짐 (사이클,선수,비장애)
- 9월 안에 대회가 다 끝나야 해서 경기가 몰아서 진행되는 경우 있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코로나 제한이 풀리고 어린 선수랑 고등부, 성인 선수들이 섞이고 있는데, 연령별 시간대 구분이 필요할 듯 함. 어린 선수들은 오후까지 힘들어 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대회 간 일정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함. 각종 이익단체에서 행사에 참여하다보니 한 달에 2-3번 정도 경기대회가 개최됨. 이런 경우, 대회에 연달아 참여한 선수들의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운영했으면 함 (테니스,보호자,비장애)
- 출석인정 일수가 적다보니 시합이 방학기간에 몰려있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6. 경기대회 개최 시 휴식 시간 보장

- 경기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를 질문함. 응답자 중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1명을 제외한 79명 중 73명(92.4%)은 휴식 시간을 보장 한다고 응답했으며, 6명(7.6%)은 휴식 시간 보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휴식 시간 보장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인 6명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인터뷰 내용

- 한 번에 많은 경기가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 시간에 쫓김. 앞서 말한 단거리 종목에 결승전까지 진출한 선수들은 계속 시합이 있기 때문에 밥도 못 먹음. 바나나 같은 것으로 허기를 채울 정도로만 먹음. 그런 부분에서 휴식이 부족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하루에 2경기를 하는 경우는 없지만 앞에서 말한 대로 경기 일정에 따라 때때로 휴식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예전에는 좀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는데 출석인정횟수 제한이 생기면서 수업일수를 맞춰야 하다보니 주말에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시합해서 끝내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출석허용일수가 5일 밖에 되지 않는 초등부 같은 경우엔 하루에 2경기를 뛰는 날도 있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경기는 끝나지만 그 이후 경기를 위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휴식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시합이 아침 일찍 있다보니 휴식적으로 부족함. 실 수 있는 장소도 부족함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경기를 일주일 안에 모두 치러야 하다보니 초중고 학생이 다 같이 진행하는데 종종 대진표 추첨에 따라 경기 일정이 타이트 해져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음 (농구,보호자,비장애)

7. 체육대회 및 훈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체육대회 및 훈련환경 개선을 위해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에게 바라는 노력을 질문함
- 장애인 선수의 경우 '경기장 및 시설 증축'을 바라고 있었으며, 학생선수의 경우 학습권에 대한 희망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구분	내용
경기장 및 시설 증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구 전용 경기장이 많이 없음. 인근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장이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음 (축구,지도자,비장애) ▪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함.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부족함. 수십 개의 동호회들이 나눠서 쓰고 있다 보니 비좁고 들어갈 틈이 없음. 전용으로 쓰는 체육관도 비장애인들이 대관해서 쓰는 상황이다. 제도화해서 장애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좋겠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협회에서도 체육관을 빌리는 것에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음. 휠체어 특성상 바닥이 상할 수 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장애인 체육관이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이는 생활 체육을 위한 것이고,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전국에 시도별로 1개씩정도만 되어도 좋을 것 같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더욱 많이 있었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 장애인 체육관 대관이 어렵고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없어서 훈련에 불편함이 있음 (농구,선수,장애) ▪ 다른 곳에 예산을 너무 써서 경기장 공사를 못하는 상태임. 유일한 훈련공간이라 훈련 할 곳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관심 및 개선이 필요함 (롤러,선수,비장애) ▪ 팀에 여자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성 탈의실을 만들어주면 좋겠음 (롤러,선수,비장애) ▪ 훈련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더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음 (배구,선수,장애) ▪ 탈의실, 샤워실이 잘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음. 휠체어 탄 선수들이 많다보니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 같은게 잘 되어 있는 곳에서 경기가 개최되면 좋을 것 같음 (배구,선수,장애) ▪ 이천 장애 훈련 선수촌에서 받는데, 사이클은 사이클 트랙이 없어 이 곳에 들어가지 못하고 촌외 훈련을 진행함. 그러다보니 훈련 환경이 열악하고, 지원이 부족함.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이클,선수,장애) ▪ 실내경기장이 많아졌으면 좋겠음. 육성경기 특성 상 파울이 많이 불리는데 파울에 대한 규정 강화와 심판들에 대한 교육도 증가했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 투척종목의 경우, 잔디가 상한다는 이유로 연습할 때 못 던지게 하는 경우 있음. 연습용 잔디구장을 만들어주는 등 시설을 보충해주었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계속>

구분	내용
노후 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마다 시설의 차이가 있다. 운동환경이 좋은 대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많음. 시설이 좋지 않은 대학에서도 편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충해주었으면 좋겠음. 특히 웨이트 시설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웨이트장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 점자 블록과 휠체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음. 장애인 숙소와 주위환경이 노후 된 시설이 많음. 대회 기간 중 선수에 대한 간단한 진단 필요, 훈련비 선수 개인에게 지급 필요함 (육상,선수,장애) ▪ 시설환경으로 좀 열악하다보니, 보수작업에도 비용적인 부분이 부족함 (육상,선수,장애)
학습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권 보장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봄.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지게 되는데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은 잣대로 비교를 하면 안 된다고 봄. 선수들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운동하는 학생들에게만 과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외국 사례를 보면서 본업하면서 운동하는 선수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의 경우,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그런 경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함. 외국의 경우, 실업팀이 없고, 클럽소속으로 스폰을 받으면서 운동함.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데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좋다고 도입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수업허용일수를 증가시켜줄 필요가 있음. 학업문제는 선수 자율적으로 맡겨야한다고 봄. 그리고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한 선수들도 실업계나 체육고로 진학한 선수들처럼 오전수업 후 운동할 수 있도록 통일해 주어야 함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운동을 하는 학부모다 보니 학습권이 이슈화 되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스포츠클럽처럼 하다보면 부모님입장에서는 심적으로 금전적으로 부담됨. 차라리 엘리트 학생들을 키우면서 지방에선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데 이게 더 부담이 덜함 (농구,보호자,비장애) ▪ 출석인정 일수를 증가시켜줘서 선수들이 여유를 가지고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계속>

구분	내용
지속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관심 (농구,선수,장애) ▪ 제일 먼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음. 큰 사건이 터졌을 때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나면 조용해짐 (육상,지도자,비장애) ▪ 비인기 종목이라도 관심과 신경을 써서 지원했으면 좋겠음 (핸드볼,선수,비장애)
예산 및 물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많은 예산 지원이 확보되어야 함. 선수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학업시간을 줄이고 훈련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유도,지도자,비장애) ▪ 노후 된 운동장이나 경기장 보관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었으면 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비인기 종목에서 지도자로 일하고 있다 보니 인기종목보다 지원이 부족하고, 환경적으로도 아쉬운 부분이 있음. 비인기 종목에도 좀 더 지원해주었으면 함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대회를 다녀오면 야외에서 몸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이 금방 더러워짐. 그렇기 때문에 운동 시 필요한 물품 지원 사업들을 해준다면 훈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음 (농구,선수,비장애) ▪ 훈련 및 경기 용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농구,선수,장애) ▪ 육상이나 수영 등 기록경기의 경우 기록을 깨기 어려움. 따라서 기록경신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것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올려주었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 기록경기에 대한 포상이 적다고 생각한다. 기록을 깨기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에 포상을 키워서 선수들의 사기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 학생운동선수들에게 종목마다 예산분배에 있어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핸드볼,선수,비장애) ▪ 시설 환경은 곧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을 어떻게 책정 하냐가 문제임. 지금도 예산이 적어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지가 의문임 (육상,보호자,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지역에서 시설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음. 전담팀을 꾸려주면 좋을 듯함 (배구,지도자,비장애) ▪ 대회출전일수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 육상,선수,비장애) ▪ 경기대회 개최 시 종목별로 날짜가 겹치지 않게 구성했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 대회 자체가 지방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원 정책 필요함 (배구,선수,장애) ▪ 의료지원팀 상시대기 및 의료비상체계 확충 (싸이클,선수,비장애) ▪ 비장애인 보다 장애인 체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 비장애인보다 건강이 떨어지기 때문에 날씨에 따른 체력 소모가 더욱 큼 (싸이클,선수,장애) ▪ 심판들이 조금 공평했으면 좋겠음. 도민체전에서 심판이 우리 측에게 반칙을 너무 선언했는데, 주변에서도 그에 관한 말이 많이 나왔었음 (축구,선수,장애) ▪ 구급차는 와있는데 의료진이 없는 경우가 많음. 코트마다 의료진을 배치해주었으면 좋겠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 이번 대회에 경우, 의료진을 보지 못했음. 근육통이나 타박상 등 부상에 대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의료진이 상시 대기해주었으면 좋겠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5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1. 경기장 내 이동, 시설접근 불편사항

- 인터뷰 대상자 중 선수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선수를 담당하는 지도자와 장애인 선수 학부모 등 36명을 대상으로 경기장 내 이동 편리성에 대해 질문함
- 대회 개최 중 경기장 출입구에서 경기장 건물까지 이동하면서 경사로 미설치, 차량 등의 방해 등으로 이동이나 시설 접근에 불편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28명(77.7%)이었으며, 시설 접근에 불편함을 경험한 8명(22.3%)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희망하는 사안에 대해 추가 질문함

응답자 특성	시설 접근 불편사항	개선사항
배구, 지도자, 비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전용체육관에서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게 없었는데 울산 체전 때는 좀 아쉬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설치도 잘 안이루어 졌고, 차량도 많아서 힘들었고, 엘리베이터가 한대라 힘들었음. 3층으로 올라가야해서 예식장 건물이라 주말에는 힘들.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점검 후 경기장을 잡았으면 좋겠음
사이클, 지도자, 비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경기는 많이 불편함. 일반 도로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고 해야해서 불편한데, 이 부분은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된 것을 모두 수리하기엔 한계가 있고 장애인을 위한 것을 추가로 만들기 어려우니 그냥 장애인 전용구장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음
축구, 지도자, 비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가 동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져서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었음. 협소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간이 여유있게 확보 된 곳에서 대회를 개최하길 바람
휠체어농구, 선수,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 미설치 된 곳에서 경기를 잡지 않아서 그 경험은 없으나 주차장 문제가 심하다. 공간 부족해서 휠체어가 나오기 힘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관계자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막아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면 좋겠음
배구, 선수,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혼잡으로 이동에 불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공간이 조금 더 확보되었으면 함
휠체어농구, 선수,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로는 대부분 잘 설치되어 있는데, 가끔 차량으로 막은 경우가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개선의 문제라 구체적인 개선방법은 잘 모르겠음

2. 장애인 전용 화장실·엘리베이터 시설 미설치로 인한 불편사항

- 경기장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설 편리성에 응답한 32명 중 10명(31.3%)은 불편함을 직접 경험했다고 언급함

주요 인터뷰 내용

- 엘리베이터 한대라 문제가 있었음 (배구,지도자,비장애)
- 이번 경기장은 나름 신식이라 괜찮았지만 다른 경기장들은 노후 되다보니 엘리베이터 조차 찾아볼 수 없음 (사이클,지도자,비장애)
-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정말 부족한 편. 다른 팀의 경기를 볼 때도 있는데 2층 관람석에 올라가고 싶은데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도 많음. 시야 확보가 잘 안되어서 불편함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예식장이 같은 건물에 있어서 혼잡한 경험이 있음 (배구,선수,장애)
-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는 최근 건물이 아닌 이상 찾아보기 어려웠음. 노후 된 경기장을 많이 가다보니 이 부분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 같음 (사이클,선수,장애)
- 엘리베이터가 많이 미설치 된 것 같음 (사이클,선수,비장애)
-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없고, 큰 대회 같은 경우 밖에 이동식 화장실로 해놓는데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는데 크기도 작아서 선수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있었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3.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 대회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원, 수어통역사 등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에 대해 29명에게 질문함
- 29명 중 5명(17.2%)은 이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세부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인터뷰 내용

- 자원봉사자들은 계셨으나, 찾아보기가 어려워 거의 없었다고 봄 (사이클,선수,장애)
-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해서 근로 바우처 선생님들과 함께 다님 (육상,선수,장애)

4.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절차 및 신고 상담 안내

1) 장애 유형 및 특성 고려한 안내

- 주최단체로부터 경기대회에서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절차와 방법, 신고·상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함
- 응답자 32명 중 17명(53.1%)이 안내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받은 응답자는 13명(76.5%)으로 나타남
- 장애 유형과 특성 고려한 인권침해 구제 방법 안내에 대한 개선 사항을 다음과 같음

주요 인터뷰 내용

- 장애유형에 맞춰 잘 고려해서 안내해줘야 하고, 선수들이 늘 겪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약간 무시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조심하고 노력해주면 좋겠음 (배구,지도자,비장애)
- 관련 국가기관이나 담당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낼 기반을 마련해 줘야하는데, 그 기반이 잘 마련 되어있는 것 같지 않음 (사이클,지도자,비장애)
- 발달장애 선수들도 내용을 인지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가 만화와 같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나왔으면 좋겠음 (축구,지도자,비장애)
- 교육이 같은 내용인데 여러 번 듣게 함. 시간이 아까움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인권침해 교육 관련 내용을 선수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해주면 좋겠음 (농구,선수,장애)
- 경기장 내 부스와 팸플렛이 더 많이 배치되었으면 좋겠음 (농구,선수,장애)
- 주최단체로부터 인권침해 관련 내용 안내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함 (농구,선수,장애)
- 현장에서 와서 직접 하면 좋을 것 같음. 우리는 심한 장애가 없지만 지적 장애가 심한 팀들의 경우에는 자기 표현이 좀 힘들다고 들어서 그런 경우 직접 와서 현장에서 안내해주고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음 (배구,선수,장애)
- 계속 선수들한테 정기적으로 내용을 보내줬으면 좋겠고, 시각장애 선수들에게는 메시지보단 전화를 주면 좋겠고,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수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상담같이 깊게 소통해줬으면 좋겠음 (사이클,선수,장애)
-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내 필요 (육상,선수,장애)
- 경기 운영하는 측에서 교육을 하고,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가들 배치가 필요함 (휠체어농구,선수,장애)

5. 장애인 선수 인권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질문함
- ‘교육 및 홍보’, ‘시설 증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이 지속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관심 가져주기를 희망함

구분	내용
사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역이 아니라 중앙 협회 측에서 사전 답사나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음. 시설 쪽에서 보수 같은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함. 지체 장애가 많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시설들이 많이 있음 (배구,지도자,비장애)
시설 증설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부분 보완. 지도자들 처우 개선, 보조자들 처우 개선도 필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음.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음 (싸이클,지도자,비장애) ▪ 장애인 선수들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서 체육관이 많았으면 좋겠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들 중심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지 교육이 필요함 (축구,지도자,비장애) ▪ 장애인 선수들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끔 교육과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 (농구,선수,장애) ▪ 지속적인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고, 어떤 부분이 폭력적이고 인권침해를 당한 것인지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배구,선수,장애) ▪ 관련 내용을 홍보를 잘 해줬으면 좋겠음. 홍보가 잘 안되어 나도 잘 모르고 주변에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음 (축구,선수,장애)
이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대회를 가면 특정 버스가 필요한데, 팀이 많다 보니 버스가 부족한 편임. 그런 경우 장애인 콜택시를 등록해야하는데, 지역마다 등록을 해야 하고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번거로움이 있음. 한번만 등록하면 전국에서 다 이용 가능한, 전국 통합이 되면 좋을 것 같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이동에 따른 차량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싸이클,선수,장애)
지속적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농구,선수,장애) ▪ 장애인 선수들도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소속을 위해 팀을 만들어준다던가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음 (싸이클,선수,비장애) ▪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육상,선수,장애)

<계속>

구분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 및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함 (배구,선수,장애) ▪ 별도로 해주는 것 보다 비장애인이라 차별 없이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예산은 같은데 연봉체계부터가 다름. 체육의 한 분야가 아니라 재활 취급을 하는 것 같음. 처우 개선이 필요함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장애인을 떠나서 같은 동등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대우를 해줬으면 좋겠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받겠지만, 사회적 약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반감이 생기는 것 같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농구,선수,장애) ▪ 팀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음. 힘들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팀이 많이 생기면 월급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팀이 더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장애인 선수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선수 육성과 재활, 건강권을 보장해야함 (배구,선수,장애) ▪ 비장애인 장애인 선수가 유니폼이나 단체복이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비장애인 유니폼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대한 체육협회에 장애선수 측이 돈을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음. 차별이라고 생각하니 장애선수 비장애 선수 모두 차별없이 공동되게 진행해줬으면 좋겠음 (싸이클,선수,장애)

6 기타 사항

1. 선수 인권향상 및 인권 친화적 경기대회 개최 위한 정부 추진 사항

- 선수들의 인권 향상 및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문체부, 교육부 등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질문함

구분	내용
복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측에서 선수 복지를 위한 지원을 해주면 분위기가 좋아져 선수들의 인권 친화적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함 (농구,지도자,비장애)
학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가는 기간에 경기를 나가게 되면 수업을 많이 빠지게 되고, 다른 방법으로 학업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됨. 또한 경기기간 중 수행평가가 겹치면 더욱 힘들 (농구,선수,비장애) 일반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은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음 (농구,선수,비장애) 엘리트체육이 변하지 않고, 학습권 보장을 명분으로 운동시간 제한 등 현 상태로 유지 한다면국제 대회 가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와 선수가 함께 받는 교육보다는 분리해서 지도자 교육, 선수교육을 따로 진행하고 공감할 수 있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음 (배구,지도자,비장애) 정기적인 지도자 교육으로 실제 환경에서 교육받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함 (축구,지도자,비장애) 선수 중에 인권침해에 대해 잘 모르는 선수가 많음. 선수들에 대한 교육이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함 (농구,선수,비장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배구,선수,장애)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홍보에 대한 일이 가장 큰 것 같음. 인터넷 동영상 시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권강의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게 했으면 좋겠음. 양질의 교육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좋겠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대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음 (농구,선수,장애) 대회 활성화. 대회가 더 늘었으면 좋겠음 (농구,선수,장애)
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지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의료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전문성이 떨어짐 (농구,선수,비장애) 선수들 안전을 위해 전문 의료지원팀이 항시 대기했으면 함 (사이클,선수,비장애) 코트마다 의료진을 배치해서 부상시 빠른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계속>

구분	내용
현안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의 실무자들과의 인터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음. 매년 대학교수들, 유명 프로출신 선수들끼리 이야기하니까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들이 나오는 것 같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이 이루어져야 함 (농구,선수,장애) ▪ 인권과 관련된 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음 (농구,선수,장애) ▪ 현장 검토를 하고, 선수들을 통해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음 (축구,선수,장애) ▪ 학생들이 진짜 필요 한게 뭔지 현장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음. 스포츠 윤리위원회, 인권위원회 같은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와서 좀 봐줬으면 좋겠음 (육상,보호자,장애)
법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인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함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학생선수들이 성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에서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음. 특히 단체스포츠의 경우, 선수가 코치나 감독의 눈에 벗어나면 출전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코치 및 감독의 권한 대응할 수 있는 장치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음 (핸드볼,선수,비장애) ▪ 강력한 처벌이 필요함. 비장애 같은 경우를 보면 성폭력 관련 문제 발생하면 해외로 가서 활동을 하는데 해외에서도 활동 못 하도록 막는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다른 학교에서 아직도 종종 거친 지도자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은 직접 말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직접 대회에 참관하셔서 보고 패널티를 부과하는게 좋을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폭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코치나 감독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지침이 확실히 나와야 할 것 같음 (체조,보호자,비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 (배구,선수,장애) ▪ 인권침해 신고로 인한 지도자 변화 후에도 후임 지도자가 전 지도자와 연계되어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필요 (배구,선수,장애) ▪ 경기중이다보니 다들 예민해져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지정된 분이 대회에 참석해주시면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기 중의 막말같은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음. 파견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음 (사이클,선수,장애) ▪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스포츠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스포츠를 하면서 극복을 한다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스포츠를 하는 체육인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선수들을 보조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많은 지원자들도 나오고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 같음 (사이클,지도자,비장애)

2. 인권교육 내용 및 교육시기 관련 개선사항

- 「학교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체육지도자 등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1년에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의무 교육시간 등과 관련하여 개선 점에 대해 질문함
- 인권교육이 실제 사례나 종목별 특성에 맞는 내용으로 보완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음

구분	내용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대하는 태도가 불손한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선생님들 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음. 추가적으로 학부모들도 선생님에게 태도가 불손한 경우도 몇 번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농구,보호자,비장애) ▪ 인권교육 내용에서 폭력, 침해에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인성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핸드볼,선수,비장애) ▪ 피해자들의 인터뷰나 가해자가 처벌받는 모습 등 실제사례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함 (핸드볼,선수,비장애) ▪ 교육이 1년에 2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한데, 질 향상에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음. 강의 스킬이 좋은데, 스펙이 다가 아닌데 프로필 스펙만 보고 강의를 들으면 강의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음. 감정적으로 동감도 많이 해주는 것도 필요 (농구,지도자,비장애) ▪ 실업팀이고, 시청소속이고, 국가 대표도 있기 때문에 1년에 3-4번을 진행하는데, 많이 하는 것보다 다양성 있는 내용이나, 중복이 있기 때문에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음 (배구,지도자,비장애) ▪ 맨날 똑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받다 보니 선수나 지도자들이 딴 짓하게 된다. 새로운 내용을 첨부해주었으면 한다. 맨날 같은 내용에 사례만 최근인 것으로 교체되는 게 끝임 (육상,지도자,비장애) ▪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음. 그런데 1시간 교육을 통해 인권이 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육은 없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교육을 통해 사람을 바꾸고자 한다면 종목 특성별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교육 영상이 루즈한 경우가 많음. 그렇기 때문에 시청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서 짧고 굵게 이루어졌으면 함. 예를 들면 1시간 영상을 30분으로 좀 더 압축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듣게 하는게 문제인 것 같다. 시간도 없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니 의미 없음. 선수들 인식 개선이 아니라 강사들을 위한 수업 같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단발성이다 보니 시간도 빠빠하고, 세밀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시간에 쫓겨 그냥 흘러 지나가는 내용이 많음. 내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에서 좀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배구,선수,장애)

<계속>

구분	내용
교육 시간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좀 더 횟수를 늘려도 좋은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교육을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늘리고, 시간도 많이 늘려서 감독 및 코치들이 아이들과 선진적인 인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개선되길 바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 인권교육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1년에 2회 인권교육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함 (핸드볼,선수,비장애) ▪ 시간이나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음 (축구,선수,장애) ▪ 의무교육시간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음 (핸드볼,선수,비장애) ▪ 중복으로 할 때가 되게 많음. 직장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안에서 또 받게됨. 근데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교육효과가 떨어짐. 인권 말고 다른 교육을 하는게 더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경기 대회 시즌 이후로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안내해야 함 (축구,지도자,비장애) ▪ 1년에 2회,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지루하다. 1회만 해도 충분함 (농구,선수,장애) ▪ 자주 교육을 하지 않다보니 교육할 때만 알고, 까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함. 인식에 박힐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주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개인의 일정을 고려해서 저녁 시간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뿐만 아니라 지도자, 교사도 더 많은 연수를 통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유도,지도자,비장애) ▪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 같긴 한데, 교육을 잘 받고 온 건지 모르겠음. 코치들이 특히 폭력에 대한 교육을 잘 듣기를 바라고, 잘하는 아이위주의 교육을 그만했으면 좋겠음. 코치들의 태도 변화가 매우 필요함. 나이든 사람들이 많다보니 잘 안 바뀌는 분위기 (롤러,보호자,비장애) ▪ 혼자 동영상 듣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전문 강사 초청하여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음 (농구,보호자,비장애) ▪ 정확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함 (농구,선수,비장애) ▪ 온라인 교육으로 인권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온라인 교육보다 다 같이 듣는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면 함..시합 시에 많은 선수들이 모인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기가 끝난 후 다 같이 교육을 받는 것들이 있었으면 함 (육상,선수,비장애)

3. 인권교육 관련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효과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더욱 효과적이고, 선호도하는 방식에 대해 질문함. 응답자 80명 중 온라인 교육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28명(38.0%), 집합교육 41명(51.3%),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모두 효과적 10명(12.5%), 기타 의견으로 지도자는 집합교육, 선수는 온라인교육을 희망하는 응답자도 1명(1.3%) 있었음

구분	내용
온라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필요에 따라 다시 찾아볼 수 있어서 더 좋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장애인들에게는 온라인 교육이 훨씬 좋았음. 이동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장애를 보는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자기가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아져서 온라인이 더 좋은 것 같음 (배구,지도자,비장애) ▪ 집합교육을 위해 모여봤자 제대로 안듣고, 호응이 없으면 전달자도 힘들 것 같음. 그런 점에서 온라인이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이동시간을 줄이고 편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태권도,지도자,비장애) ▪ 시기상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크고, 혼자 들어야 더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핸드볼,지도자,비장애) ▪ 교육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메모가 가능하고, 멈췄다가 다시 돌려보기가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핸드볼,지도자,비장애)
집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으로 하면 귀로 듣기만하기 때문에 감정이 안 실려 효과가 떨어짐. 집합으로 하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표정, 몸짓, 행동 때문에 훨씬 효과가 뛰어남. 조는 학생들도 관리가 가능함 (농구,지도자,비장애) ▪ 여건이 된다면 대면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 같음. 온라인은 집중력이 대면보다 좀 떨어지고 이해도도 떨어지는 것 같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온라인교육의 경우,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기 위해 듣는 경우가 많고,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도 많음 (농구,선수,비장애) ▪ 대면으로하는 집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비대면으로 하면 틀어놓고 자는 사람도 있고, 반 이상이 집중을 안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대면상황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집합교육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직접 해봤는데 온라인 교육은 그냥 켜놓기만 하고 잘 집중을 하지 않는데, 집합교육은 강사와 직접 소통해서 집중을 좀 더 하고, 궁금한 것도 직접 물어봐서 훨씬 효과적임 (농구,보호자,비장애)

4. 인권교육 강사 유형

- 인권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알고 있는 78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강사 유형에 대해 질문함
- 응답자 중 절반인 41명(51.3%)은 전문 강사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지도자’ 5명(6.3%), ‘교수’ 2명(2.5%), ‘대한체육회’ 2명(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강사를 모른다는 응답도 25명(31.3%)로 나타남

5. 경기대회 개최 관련 개선 사항

- 2021년과 비교해서 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경기장 환경, 감독 등 지도자가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 경기 규칙 등 달라진 점이 있는지를 질문 함
- 응답자 80명 중 42명(52.5%)은 2021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직전년도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코로나로 경기가 없었던 응답자 7명(8.8%)는 모른다고 언급함
- 달라진 점이 있다고 응답한 31명(38.8%)의 세부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내용
경기장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장소가 한 곳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선수들의 국제화를 위해 경기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국제화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연맹이 관계자가 되느냐에 따라 매년 같은 지역에서 대회가 이뤄지는데 육상에는 몬도, 우레탄 등 여러 가지 트랙이 있음. 그런데 한 곳에서만 경기를 하면 이상형 선수같은 국제대회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육상,지도자,비장애) ▪ 경기장에 올해부터 부상방지를 위해 테이핑 부스가 생김 (농구,선수,비장애) ▪ 시설적인 부분은 개선이 많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음 (싸이클,선수,장애) ▪ 경기장의 상태가 좋아졌음 선수들의 휴식공간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 환경은 더 안 좋았던 것 같음. 주차장도 작고, 화장실도 열악함 (휠체어농구,선수,장애)

<계속>

구분	내용
지도자가 선수를 대하는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들 대하는 말투가 많이 따뜻해짐.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음. 지도자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지도자들의 태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음 (농구, 지도자, 비장애) ▪ 많은 점들이 달라짐.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짐. 선수들 대하는 태도가 많이 조심해지고 생각하며 행동함 (휠체어농구, 지도자, 장애) ▪ 종목이 늘어나고 될 경기가 많아서 신경 쓰여지는 부분이 많아 훈련량이 늘어나고, 못하면 코치진들의 분위기가 예민해졌음 (롤러, 선수, 비장애) ▪ 지도자가 심하게 욕박지르는 모습이 생겼음 (핸드볼, 선수, 비장애) ▪ 감독도 올해 태도라던가 언행 적인 부분에서 많이 개선되었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 사람이 많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임. 여성 선수와 대화할 때도 나조차도 한 번 생각하게 되었음 (배구, 선수, 장애) ▪ 경기대회장 내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음. 서로 대화하면 분위기가 좋아졌고, 기록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음 (육상, 선수, 비장애) ▪ 감독들마다 다르긴 한데, 과거엔 많이 주먹구식이었는데, 요즘은 인권에 대해 많이 신경 쓰는게 느껴짐. 또 너무 인권만 신경쓰면 풀어지다 보니 전반적으로 조심하면서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음 (휠체어농구, 선수, 장애) ▪ 코치님들 같은 경우 요즘 워낙 조심하시는 편이라 말 한마디로 학부모가 신고하기도 해서 조심하는 편인데, 열의를 다해 가르치다 보면 액션도 커질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조심하다 보니까 적당 선에서 가르치고 뒤로 빠지는 느낌이 둠. 그걸 원망할 수도 없는 분위기라 아쉬움이 남음 (농구, 보호자, 비장애)
경기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시합마다 시합에 따라 규칙이 변경되는 등 경기 규칙이 많이 바뀌었음 (태권도, 지도자, 비장애) ▪ 경기시간이 35분이었는데 5분씩 줄여서 경기하는 경우 있었음 (핸드볼, 지도자, 비장애) ▪ 심판의 파울콜이 좀 달라진 것 같음. 작년에는 몸싸움이 과격하면 파울을 불었는데, 올해는 어느정도 몸싸움을 허용해주는 스타일이었음 (농구, 선수, 비장애) ▪ 반칙이 되는 부분이 좀 더 프리해졌음 (농구, 선수, 비장애) ▪ 경기 규칙에서는 출발 전에 준비 안됐을 시 이번에는 한 번 멈추는 것이 가능해졌음 (롤러, 선수, 비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다 보니 지도자들의 태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음 (농구, 지도자, 비장애) ▪ 관중입장이 가능해졌음 (배구, 선수, 장애) ▪ 인권이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학교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었음. 대회 주관 협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선수는 출전자격을 반려시킴.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음 (테니스, 보호자, 비장애)

6. 선수 인권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선수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정부(문체부, 교육부 등)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80명 중 53명(66.3%), 노력하지 않는다 20명(25.0%), 잘 모르거나 중립 의견은 7명(8.8%)임
-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노력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 교육 제공, 설문 조사 심층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인권현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응답함

구분	내용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처우개선이나 환경적인 보안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음.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데 결과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 같음 (사이클,지도자,비장애) ▪ 제도적으로 법제화 시켜서 꾸준히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시도별로 용역을 줘서 관리한다는 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음. 장애랑 비장애도 구분해서 좀 신경써주면 좋겠음 (휠체어농구,지도자,장애) ▪ 학교폭력과 관련한 규정 같은 부분에서 처벌이나 제제가 강화되었고, 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함.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느꼈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뀌고는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성인이나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 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공감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육상,지도자,비장애) ▪ 의무적으로 교육을 칼같이 이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함. 그리고 시대 흐름 때문이지 현장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그렇게 느낌 (육상,지도자,비장애) ▪ 교육육을 필수 이수로 선수들도 교육을 수강함. 하지만 이와 별개로 내용 숙지가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 필요함 (축구,지도자,비장애) ▪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함. 일반 체육도 그렇고 장애인 체육에서도 그렇고, 인권침해 상황이 많이 줄고 교육도 하는 것을 보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배구,선수,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인터뷰를 통해 인권 관련 현황도 조사하고 인권교육이 1년에 2회 실시되고 있다는 부분을 보았을 때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음 (농구,선수,비장애) ▪ 심층인터뷰를 통해 선수들의 인권관련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함 (소프트볼,선수,비장애) ▪ 인터뷰 진행 등 조사원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함 (테니스,보호자,비장애) ▪ 작년과 다르게 조사원이 나와서 인권관련 설명도 해주었다는 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느꼈음 (테니스,보호자,비장애)

○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체감할 수 있는 해결책이나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함

구분	내용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인 문서나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닌 실무적인 행동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함 (핸드볼,선수,비장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뿐인 인권교육만 하고 있다. 사고 발생 시의 선수인권, 선수보호 같은 것만 나오고 교육청, 연맹, 체육회에서 나오는 것들이 모두 동일함. 교육만 받으라고 지시하면 끝이고, 따로 해주는 것은 없음 (육상,지도자,비장애) ▪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수 인권향상 교육을 좀 활발히 하면 좋을 것 같음 (롤러,선수,비장애) ▪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듣지만 형식적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인권교육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람 (배구,선수,장애) ▪ 인권 교육이 좀 더 자주 이뤄졌으면 좋겠음. 듣다 보면 주입식 교육이라도 되지 않을까 함 (롤러,보호자,비장애) ▪ 1년에 한 두번 교육하고 강하게 처벌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 개선을 위해 힘써야지 교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음 (사이클,선수,비장애) ▪ 특강 같은 것을 해야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선수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음. 인권이 무엇인지, 어떤 행동이 관찮고, 어떤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 등 예시가 많은 교육으로 특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육상,선수,비장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 관계자들이 비인기종목을 둘러보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현장답사가 이루어져야 함 (사이클,선수,비장애) ▪ 전에 있던 것 마저 없애고 줄이는 분위기임. 좀 더 관심과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음 (육상,선수,장애) ▪ 체육쪽이 외면 받고 있는 것 같음.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통합해서 관리하는데, 생활 체육과 엘리트 체육은 큰 차이가 존재함. 이를 구분해서 관리 감독해야 함 (태권도,선수,비장애) ▪ 현장에 와서 직접 경험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음 (휠체어농구,선수,장애) ▪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선수들 지원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좀 부족 하게 느껴짐. 실질적으로 와닿는게 없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 개선을 하면 좋겠음. 환경이 나아져야 후배들도 양성이 되는데 환경적으로도, 혜택으로나 많이 부족한게 느껴짐 (체조,보호자,비장애) ▪ 인터뷰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많이 해서 실제 상황을 아는 노력이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실제 인권침해사례를 정리하여 사례별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육상,선수,비장애)

제 5장

결론 및 제언

1. 종합 결론
2. 체육대회 주최 등 기관 대상 정책 제언
3.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1. 종합 결론

- 과거 우리나라의 체육은 성과 위주, 입상자 중심의 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선수 인권은 성적을 우선시한다는 명목으로 무시되고 침해당했던 것이 체육계의 현실이었음. 점차 인권 인식이 높아지고, 엘리트 체육, 결과 위주의 체육을 넘어 사회 체육, 인성을 함양하는 체육으로 체육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일부 체육 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의 거친 언행, 선수에 대한 경시, 성적 지상주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또한 체육은 선수 간의 경쟁이므로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존중하고 최선의 실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제공과 운영방안이 필요함
- 대회별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 결과로 체육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일선 현장에서의 노력은 물론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어느 정도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함. 그러나 아직도 일부 체육 현장에서는 인권 침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학교체육의 열악한 상황에서 인권이 경시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엘리트 체육을 지향하는 학생선수들이 엘리트 체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보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선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함. 장애인 선수에게 체육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나가는 경험을 하도록 만드는 것임
- 심층인터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정부 개입을 원하지 않는 의견도 적지 않음. 이는 현재 정부가 폭력 근절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오히려 폭력을 내면화하고 폭력을 신고하는 선수에게 피해가 가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일선 현장의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체육부서의 문제를 넘어 체육부서가 소속한 기관을 감독하고, 체육부서를 운영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인 ‘인권을 보호하며 체육 역량을 기르는 것’임을 강조해야 현재의 문제를 개선해나갈 수 있음. 또한, 정부는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조정자로, 때로는 시설 기능보강의 주체로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체육대회 주최 등 기관 대상 정책 제언

- 대회 주최 측은 경기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선수의 인권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심각한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발생 시, 선수 스스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인권침해 대처 매뉴얼 및 신고 상담 방법을 기재한 안내 책자를 배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대회 책자 및 리플릿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내 방식이 사전적 조치라기보다 보여 주기 식 행정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함. 선수, 지도자가 알기 쉽게 통일 된 매뉴얼이 필요해 보이며, 기존의 책자 양식과 병행할 수 있는 동영상 혹은 개회식 등에서 실질적인 인권 관련 안내 행사가 포함되는 안을 제안함
- 경기장 시설 증축을 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정책적인 투자 여력이 있어야 하며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므로,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개별 교육기관 별로 모두 원하는 시설을 구비할 수는 없으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권역별로 공공 시설을 확충해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또한 학교별로 특화 시설을 확충해 인근 학교가 공유하는 방안도 제안함
- 이러한 점에서 시설의 확충은 재정투입 못지않게 시설활용 및 공유 계획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종목별, 권역별 협력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문제를 대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협력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장애인 선수 대회에서도 경기장 진입이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근본적인 수준에서 해결해야 함(사고 발생 가능). 또한, 장애인 선수가 대회에 불편하지 않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승강기 점검, 장애인 선수를 위한 탈의실 및 대기실 마련 등 더욱 세밀한 대회 준비가 요구됨
- 학생선수 건강권은 학생선수 인권의 중요한 부분이라 판단되며, 대회 주최 및 주관 단체는 학생선수의 대회기간 중 부상 등 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연령별 참여 시간을 제한하고 공식경기에서는 의료진 상주를 의무로 해야 함. 스포츠혁신위가 권고한 바와 같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학사관리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주말 대회와 방학을 이용한 대회를 늘리고, 혹서기나 혹한기 대회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회 시 선수보호 규정을 마련하여 대회 요강에 반영하고 학생선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있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함

3.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 학생선수 가운데 대부분은 학교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 전국대회 주말 전환사업, 학교체육진흥법 등 학습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이 학생들에게는 학습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체육을 통해 진학하거나 사회진출을 하려는 목적을 앞세우기 때문이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이 부수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시행하려는 학습권 확보 노력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현실적인 여건과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학업과 체육을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가 있음
- 가령 전국대회 주말 전환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휴식으로 활용해야 하는 주말에 경기함에 따라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체육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이는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학생선수들은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커리큘럼, 특히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과목과 학습방식, 그리고 방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전 학습이나 사전 학업 이수 등을 가능하게 만들어 체육에 전념하면서도 학업이 가능할 수 있는 특화된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학생선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 대책(대기실, 온도 관련 대회 개최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를 대회에 적용해야 함. 기온을 고려하여 학생선수가 혹서(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을 고려하고, 온도에 따른 위험요소 사전 제거. 학생선수 개인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대회를 운영하고, 대회 참가 전후 학생선수의 건강상태를 해당 운동부에서 확인할 필요 있음
- 대회가 개최되는 지역에 유스호스텔과 적절한 콘도가 없는 경우, 대부분 모텔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경기 개최 시, 개최지에서 숙박시설을 종목단체에 배부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개최지의 숙박시설 부족을 타하기가 어려움이 있음. 학생의 안전한 숙박을 위한 안내 필요가 필요하며, 유흥가에 있는 모텔은 학생선수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기 힘든 환경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지양하고, 학생선수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대회 개최 단체에서 검토해야 함. 숙박장소에 동성보호자(감독, 학부모) 동행이 필수적 임. 즉, 숙박시설에서 지도자와 학생선수의 불필요한 사적 접촉을 규정 또는 지침(숙박 시 지도자 행동규정 등)으로 마련해야 할 필요있음

별첨

- 붙임1. 모니터요원 명단
- 붙임2.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붙임3.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붙임4. 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붙임1

모니터요원 명단

연번	구분	대회명	모니터요원			
			이름	성별		
1	비장애인	제69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홍0민	여		
2			김0엽	남		
3			김0진	여		
4			이0동	남		
5			홍0민	여		
6			김0열	남		
7			김0아	여		
8			김0열	남		
9			최0진	여		
10			이0익	남		
11			안0담	남		
12			허0수	여		
13			이0민	남		
14			이0빈	여		
15			유0균	남		
16			유0서	여		
17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제19회 태백산기 전국종합대회	유0균	남	
18				조0해	여	
19				안0현	남	
20				한0림	여	
21				안0담	남	
22				허0수	여	
23				박0현	남	
24				유0서	여	
25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제77회 전국남녀중별농구선수권대회	곽0구
26			오0덕			여
27			임0섭			남
28			박0희			여
29			김0근			남
30			양0리			여
31			차0승			남
32			박0순			여
33			김0기			남
34			임0지	여		

<계속>

연번	구분	대회명	모니터요원	
			이름	성별
35	비장애인	제77회 전국학생선수권대회	오O진	남
36			김O영	여
37			안O현	남
38			박O선	여
39			고O연	남
40			조O해	여
41			김O우	남
42			이O림	여
43			박O준	남
44			김O정	여
45			안O욱	남
46			정O호	남
47		김O우	남	
48		박O준	남	
49		정O호	남	
50		한O애	여	
51		김O수	남	
52		김O정	여	
53		정O철	남	
54		도O애	여	
55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이O홍	남
56			정O우	남
57			도O애	여
58			이O희	여
59			엄O욱	여
60			김O정	여
61			박O준	남
62			김O미	여
63			김O태	남
64			최O애	여
65			김O범	남
66			신O채	여
67			최O성	남
68			이O림	여
69		김O원	남	
70		조O해	여	

<계속>

연번	구분	대회명	모니터요원	
			이름	성별
71	비장애인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종합)	정O석	남
72			정O	여
73			박O준	남
74			최O원	여
75			김O우	남
76			한O애	여
77	장애인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종합)	박O준	남
78			홍O림	여
79			김O우	남
80			최O애	여
81			이O홍	남
82			홍O림	여
83			박O준	남
84			최O애	여
85			박O준	남
86			홍O림	여
87			김O우	남
88			도O애	여
89			안O욱	남
90			이O림	여
91			김O우	남
92			김O정	여
93			김O원	남
94			이O선	여
95			안O현	남
96			정O나	여
97			박O준	남
98			정O호	남
99			김O범	남
100			정O우	남

붙임2

비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대회명: ○ 일시:
- 장소: ○ 모니터링단원: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1. 선수들이 적절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통해 경기장으로 이동하는지 여부(차량의 노후상태, 인원 과다 탑승 등 확인/ 경기 종료 후 선수들과 함께 이동하여 확인 등)

 예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2. 경기장 내 탈의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탈의공간 분리,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 탈의실이 있을 경우에만 체크**

- 2-1) 안전한 공간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움

- 2-2)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음 탈의실 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3.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충분하고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 대기실이 있을 경우에만 체크**

- 3-1) 공간이 충분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 3-2) 안전한 공간임 안전한 공간이 아님 확인하기 어려움

- 3-3) 적절한 편의시설(소파, 음료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적절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3-4) 남녀가 분리되어 있음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3-5) 선수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음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관계자
공간으로 사용됨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4.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4-1) 탈의실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4-2) 대기실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4-3) 화장실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5.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5-1) 신고안내물 비치·부착

있음(신고안내물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5-2) 상담실 운영 및 안내

있음(상담실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6. 경기장 내 경기출전 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 (외부인 출입통제 등)인지 여부 및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우에만 체크

- 2-1) 안전한 공간임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움 확인하기 어려움

- 2-2) 선수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없음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선수들이
이용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7.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 7-1) 예(의료진 대기) 아니오(의료진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 7-2) 예(구급차 대기) 아니오(구급차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8.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예(대응 중)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9.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
(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예(과도함)

아니오(과도하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10. 기타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1.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 예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언어적 폭력

12.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 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 여부 예 아니오
- 행위자 코치/감독 선수간 관중/학부모 기타
- 행위자 및 피해자 성별
(행위자→피해자) 남→여 남→남 여→남 여→여

상황(기타 특이사항)

- (인격 모욕적인 언사를 워딩 그대로 기술)
- (복수의 언어폭력이 있을 경우, 시간·행위자·성별 등을 기타 사항에 기술)

13.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13-1) 예(해당 발언 있음) 아니오(해당 발언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13-2) 예(주최측 조치 있음) 아니오(주최측 조치 없음)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팀 비하·지역비하, 혐오·차별 언사를 워딩 그대로 기술)
- (녹음, 녹화 등 자료 있을 경우 첨부하고, 해당 시간을 적시 (예) 붙임 영상 05:45)
- (복수의 언어폭력이 있을 경우, 시간·행위자·성별 등을 기타 사항에 기술)

*** 신체 폭력**

14.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여부 ⋮ 예 아니오

행위자 ⋮ 코치/감독 선수간 관중/학부모 기타

행위자 및 피해자 성별
(행위자→피해자) ⋮ 남→여 남→남 여→남 여→여

상황(기타 특이사항)

- (체벌 상황을 그대로 기술)
- (복수의 신체폭력이 있을 경우, 시간·행위자·성별 등을 기타 사항에 기술)

[기타 확인사항]

* 시험이 종료되어 관중석 등에 있는 선수·학부모를 개별 인터뷰하여 확인/ 개별 인터뷰가 불가능할 경우 확인하지 않음

19. 아동 선수(고교부)가 숙박하기에 적절한 곳(유스호스텔 등)에서 숙박하는지 여부

예(유스호스텔 등) 아니오(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20. 숙박장소에서 남녀 숙박 장소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층 분리 / 객실분리 등)

예(분리)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21. 선수가 머무는 숙소에 동성의 보호자(감독/코치, 학부모 등)가 동행하는지 여부

예(동행)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22. 본인의 경기가 아닌 경기에 응원 등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예(비자발적이었음)

아니오

22-1) 동원을 지시한 주체(인터뷰 가능시 확인)

지역체육화·종목협회 등

지도자(코치·감독)

선수 본인

기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
-

23. 기타 특이사항

-

** 모니터링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붙임3

장애인 경기대회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일시:
- 장소: ○ 모니터링단원: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 이동, 정보 접근 등에 관련된 사항]

★ 보행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

1. 보행자가 차량 등의 방해받지 않고 경기장 입구(경기장이 속한 공원 또는 부지의 입구)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지 여부

- 이동이 가능함 이동이 불편함 확인하기 어려움

* 이동이 불편한 경우에만 체크

1-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지?

- 구분됨 (연석, 울타리 등 있음) 구분되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1-2) 접근로의 폭이 1.2m 이상으로 적절한지?

- 적절(1.2m 이상) 부적절(일부구간 폭이 좁거나, 전체가 다 좁음) 확인하기 어려움

1-3) 접근로에 단차가 없거나, 2cm이하인지?

- 적절(2cm 이하) 부적절(2cm 이상)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

2-1) 주차장 입구에서 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연속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어 장애인이 쉽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기에 적절한지?

- 적절(연속 안내, 입구에 바로 장애인주차구역 있음)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지?

- 적절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 폭 3.3m, 길이 5m (평행주차 폭 2m, 길이 6m)

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경기장 출입구 또는 경기장과 연결되는 승강기까지 장애인이 통행하기에 적절한지?

- 적절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단차 2cm미만, 경사로 없는 등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경기장 내부 진입에 대한 점검

3) 경기장 내부 경사로의 폭과 기울기가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적절한지?

- 적절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 폭 1.2m 이상, 기울기 12분의 1이하

★ 경기장 내부 장애인 승강기에 대한 점검

4-1) 승강기 전면에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는지?

적절

* 1.4m*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4-2) 장애인이 승강기에 출입하고 내부에서 이용하기에 충분히 넓은지?

적절

* 통과 폭 0.8m 이상/ 내부: 폭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신축건물 폭 1.6m 이상)

부적절

확인하기 어려움

4-3) 승강기 외부, 내부에 승강기 안내, 층수 등에 대한 점자 안내가 되어 있는지?

되어 있음

되어 있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4-4) 승강기 외부, 내부에 도착여부·운영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이나 음성신호장치가 있는지?

되어 있음

되어 있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4-5) 승강기 층수 조작 버튼에 휠체어용 조작버튼이 있는지 여부(가로식 조작 버튼)?

되어 있음

되어 있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장애인 정보 접근권에 대한 점검

7. 장애인이 적절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두 선택)

-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 존재(활동보조인이 있어도 장애인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면 체크하지 말 것)
- 안내를 해주는 인적서비스가 제공됨 (활동보조인 外)

- 수어통역이 제공됨
- 점자자료가 제공됨
- 인쇄물접근성바코드가 기재된 유인물 등이 제공됨
- 확대경이 제공됨
- 영상전화기, 문자지원 장치 등이 비치됨

- 별도의 안내 수단 없음

7-1) 청각장애인선수대회 경기 현장에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는지?

- 배치되어 있음
- 배치되어 있지 않음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9. 경기장 내 선수 대기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안전한 공간인지 여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대기실에서 경기장까지 이동하기에 적절한지 여부 (낙하 가능성이 있는 물건·구조물의 존재, 소화기 존재 등 확인)

-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 대기실이 있는 경우에만 체크

- 9-1) 안전한 공간임 안전한 공간이 아님 확인하기 어려움

- 9-2) 적절한 편의시설(소파, 음료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적절한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

- 9-3) 대기실이 휠체어 등을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공간이 충분함
 공간이 충분함 공간이 충분하지 않음

- 9-4) 남녀가 분리되어 있음 남녀가 분리되어 있지 않음

- 9-5) 선수들이 적절히 이용하고 있음 선수들이 이용하지 않거나 관계자 공간으로 사용됨

- 9-6) 대기실에서 경기장까지 단차가 없거나 경사로 등이 낮아 이동하기에 적절함 대기실에서 경기장까지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10. 탈의실, 대기실, 화장실 등에 인권침해 및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비상벨, 담당 및 관리 인력 대기 등 확인)

-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11.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상담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는지 여부 (신고안내물 부착·비치, 상담실 운영 및 안내 등 확인)

11-1) 신고안내물 비치·부착

- 있음(신고안내물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11-2) 상담실 운영 및 안내

- 있음(상담실 있음)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o 인터뷰가 가능한 경우, 선수들이 대응체계-체육인 지원센터 등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12. 경기장 내외에 의료진 및 구급차가 상시 대기하고 있는지 여부

12-1) 예(의료진 대기) 아니오(의료진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12-2) 예(구급차 대기) 아니오(구급차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13. 경기장 소요대비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출입시 위험 물건(유리 병 등) 확인, 안전요원 배치 등)

예(대응 중)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14. 경기 진행 상황·일정이 선수들에게 무리가 가는 등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충분한 휴식시간 없는 경기 진행 등)

예(과도함) 아니오(과도하지 않음)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15. 기타 경기장 내외 시설 환경 및 안전 관련 특이사항

[선수 등에 대한 인권침해]

16.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의료조치를 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확인하기 어려움

기타 특이사항(사실 그대로를 기술해주세요)

* 언어 폭력

17. 누군가 선수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며 혼내는 등 인격 모욕적인 언어 폭력을 하는지 여부
(특히 작전시간, 경기 막바지, 경기 패배 직후 등에 주목)

여부 예 아니오

행위자 코치/감독 선수간 관중/학부모 기타(활보인등)

행위자 및 피해자 성별
(행위자→피해자) 남→여 남→남 여→남 여→여

상황(기타 특이사항)

- (인격 모욕적인 언사를 워딩 그대로 기술)
- (녹음, 녹화 등 자료 있을 경우 첨부하고, 해당 시간을 적시 (예) 붙임 영상 05:45)
- (복수의 언어폭력이 있을 경우, 시간·행위자·성별 등을 기타 사항에 기술)

18. 관중 등이 팀·지역을 비하, 혐오·차별하는 등의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 주최측이 응원 과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안내방송, 안전요원 개입 등)를 하는지 여부

18-1) 예(해당 발언 있음) 아니오(해당 발언 없음) 확인하기 어려움

18-2) 예(주최측 조치 있음) 아니오(주최측 조치 없음)

상황(기타 특이사항)

- (팀 비하·지역비하, 혐오·차별 언사를 워딩 그대로 기술)
- (녹음, 녹화 등 자료 있을 경우 첨부하고, 해당 시간을 적시 (예) 붙임 영상 05:45)
- (복수의 언어폭력이 있을 경우, 시간·행위자·성별 등을 기타 사항에 기술)

*** 신체 폭력**

19. 누군가 선수에게 체벌과 폭력 등을 하는지 여부(특히 작전시간, 패배하고 난 후 경기장 밖, 이동하는 버스 주변, 선수 대기실 등에 주목)

여부 ⋮ 예 아니오

행위자 ⋮ 코치/감독 선수간 관중/학부모 기타(활보인등)

행위자 및 피해자 성별
(행위자→피해자) ⋮ 남→여 남→남 여→남 여→여

상황(기타 특이사항)

- (체벌 상황을 그대로 기술)
- (녹음, 녹화 등 자료 있을 경우 첨부하고, 해당 시간을 적시 (예) 붙임 영상 05:45)
- (복수의 신체폭력이 있을 경우, 시간·행위자·성별 등을 기타 사항에 기술)

붙임4

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1. 조사의 목적 및 진행 방법 설명

안녕하세요. 알앤알컨설팅 연구원 000 입니다.

저희 알앤알컨설팅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체육경기대회 인권침해상황」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는 인권 침해를 경험한 체육인 및 지도자 대상으로 하며, 인터뷰 결과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인터뷰는 약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인터뷰 안내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며,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다 적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녹음이 되며, 녹음 파일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정리만 하고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향후 체육인 인권 개선을 위해 많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Part 1. 대상자 정보 확인

- 간단하게 선수(지도자) 정보를 여쭙 보겠습니다. (나이, 종목, 선수/감독 및 코치 등 지도자, 장애인선수 여부 확인)
 - 개인정보와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만 활용 됩니다.

[인권 침해 항목 확인]

- 다음 중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no.	구분	비고
1	언어·정서적폭력	
2	신체폭력	
3	성폭력	
4	학습권 침해	학생선수
5	시설 및 환경	
6	기타	상세내용 확인

Part 2. 인권침해 현황 및 홍보활동

1.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 주최단체가 대회 개최 시 경기장 내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대처 매뉴얼 및 신고·상담 방법 등을 기재된 ‘대회 안내 책자’를 배포하거나 안내 리플릿을 경기장 내부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에 대해 알고 있거나 본적이 있는지요?
2. (몰랐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예시) 대회에만 집중하느라,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해서, 주최기관에서 책자를 배포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해서, 관심이 없어서 등
3. 경기대회 중 감독 등 지도자나 선수 등에게 욕설, 폭행, 괴롭힘 등 인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인권침해 대상은 누구였나요?
 - (예시) ① 감독 ② 코치 ③ 운동부 선배 ④ 소속팀 선수 등
4. 경기대회 기간 중 지도자 등으로부터 욕설,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 (예시) 감독 등 지도자에게 바로 항의함. 동료 선수와 의논함.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음 등
5. (언어, 신체,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4번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경우)
 - (예시) 행위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서, 불만을 얘기하면 선수생활에 불리할 것 같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상대방과 꺾고러워지는 것이 싫어서 등
6. (언어, 신체, 성)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시)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간의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 운동(훈련)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등
7. 욕설,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문체부, 교육부 등)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7.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 휴식을 균형있게 취할 수 있도록 주중에 개최되는 경기를 최소화하는 등 대회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학교체육진흥법」에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예방을 위한 규정들이 실제로 선수들의 학습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움된다) 그 이유는?
- (도움 안된다)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8.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는 훈련을 어떻게 하나요? (주중과 주말을 분리하여 질문)

- 1) 주중 훈련 :
- 2) 주말 훈련 :

- (예시) 훈련시간 축소, 실내훈련으로 대체 등

9. 방과 후 및 주말 훈련시간은 하루 몇시간 정도인가요?

- 1) 방과 후 훈련 :
- 2) 주말 훈련 :

Part 4. 시설 및 환경

- (가) 원거리 경기대회 참가 시 숙소 환경은 어떠한가요?
- (나) 경기대회 중 숙소에 머무를때 인권침해 및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나요?
3. (2번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기를 원하시나요?
4. 학생선수의 경우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절한 모텔 및 유흥시설 밀접지역의 숙박시설 (러브호텔 등)은 되도록 이용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대회 시 주로 어디에서 숙박을 하고 있는지? 숙박시 동성의 보호자가 동행하고 있나요?
5. 대회 경기장 내 화장실, 대기실, 탈의실, 대회 전 연습시설 등의 환경은 어떠한가요?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경기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건강권(신체적, 정신적 소진)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기 일정이 짜여져 있나요?
7. 경기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휴식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8. 체육대회 및 훈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문체부, 교육부 등)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Part 5. 장애인 선수 인권침해

1. 대회 개최 중 경기장 출입구에서 경기장 건물까지 이동하면서 경사로 미설치, 차량 등의 방해 등으로 이동이나 시설 접근에 불편한 적이 있었나요?
2. (불편한 적이 있었다는 응답자) 어떠한 경우 불편함을 느끼셨나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경기장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경험이 있었나요?
4. 대회 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활동보조인(ex 안내원, 수어통역사 등) 서비스가 제공되었나요?
5. 주최단체로부터 경기대회에서 인권침해 발생시 구제 절차와 방법, 신고·상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주최단체에서는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안내하였나요?
6. (위 5번 질문과 관련하여) 어떠한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7.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문체부, 교육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Part 6. 기타

1. 선수들의 인권 향상 및 인권친화적인 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정부(문체부, 교육부 등)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 「학교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학생 선수, 학교운동부 지도자, 체육지도자 등이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1년에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의무교육시간 등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예시) (종목별)인권침해 사례 위주의 교육 실시, 인권침해 발생시 대처 방안 등 교육, 교육 횟수 및 시간 확대, 실습 위주의 참여형 교육 실시 등
3.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인권교육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 (예시) 인권교육 전문강사, 지도자, 대학인권센터 직원, 선생님/교수, 기타 등등
5. 작년과 비교해서 경기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경기장 환경, 감독 등 지도자가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 경기 규칙 등이 달라진 점이 있었나요? 있다면 어떠한 점이 달라졌나요?
6. 선수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정부(문체부, 교육부 등)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있다면) 제도, 규정, 지침, 지도자의 언행 등
 - (없다면) 정부가 어떠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과보고서

2022년 주요경기대회 인권상황 점검 모니터링

발행일

2022년 11월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팀(02-2125-9843)